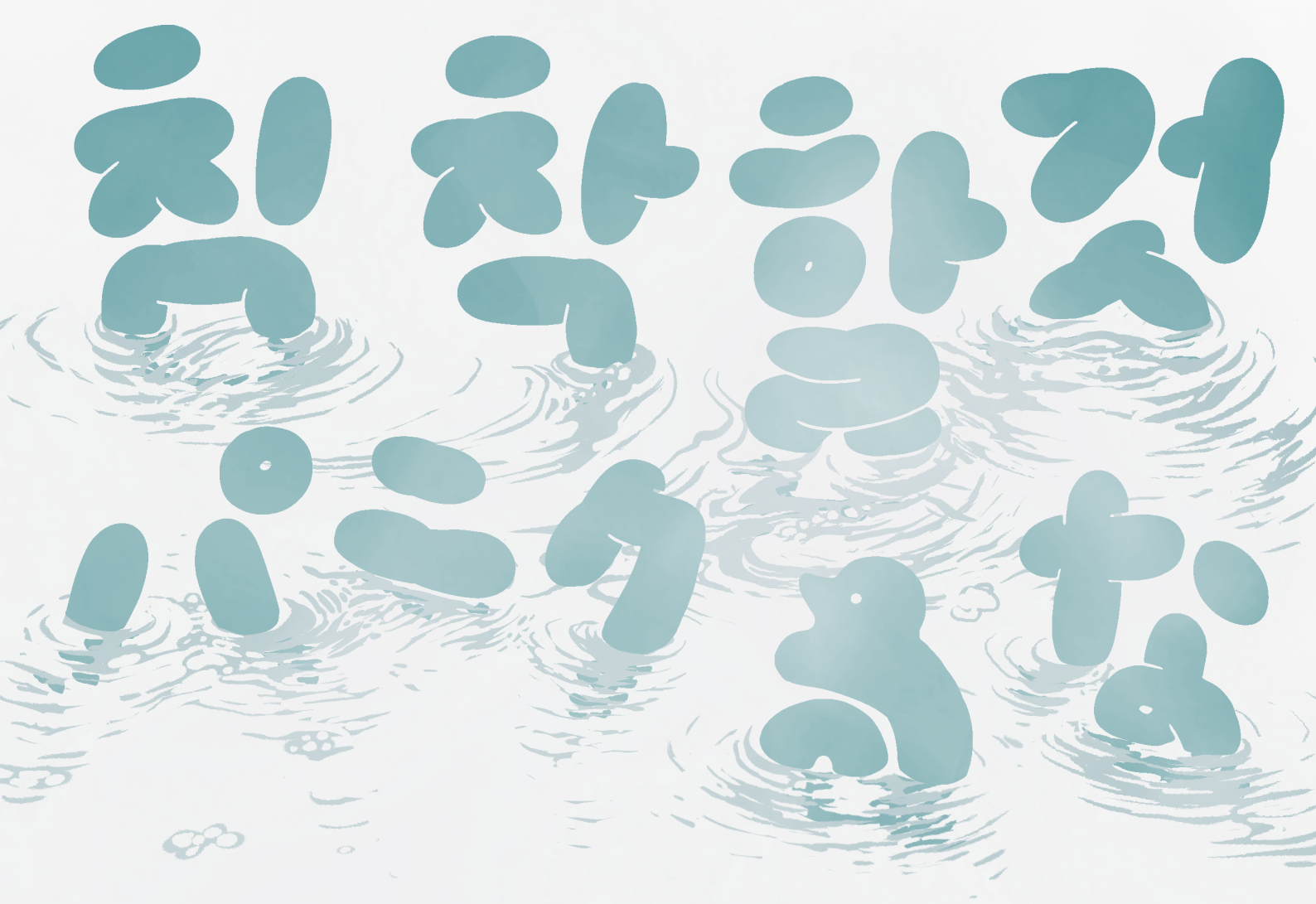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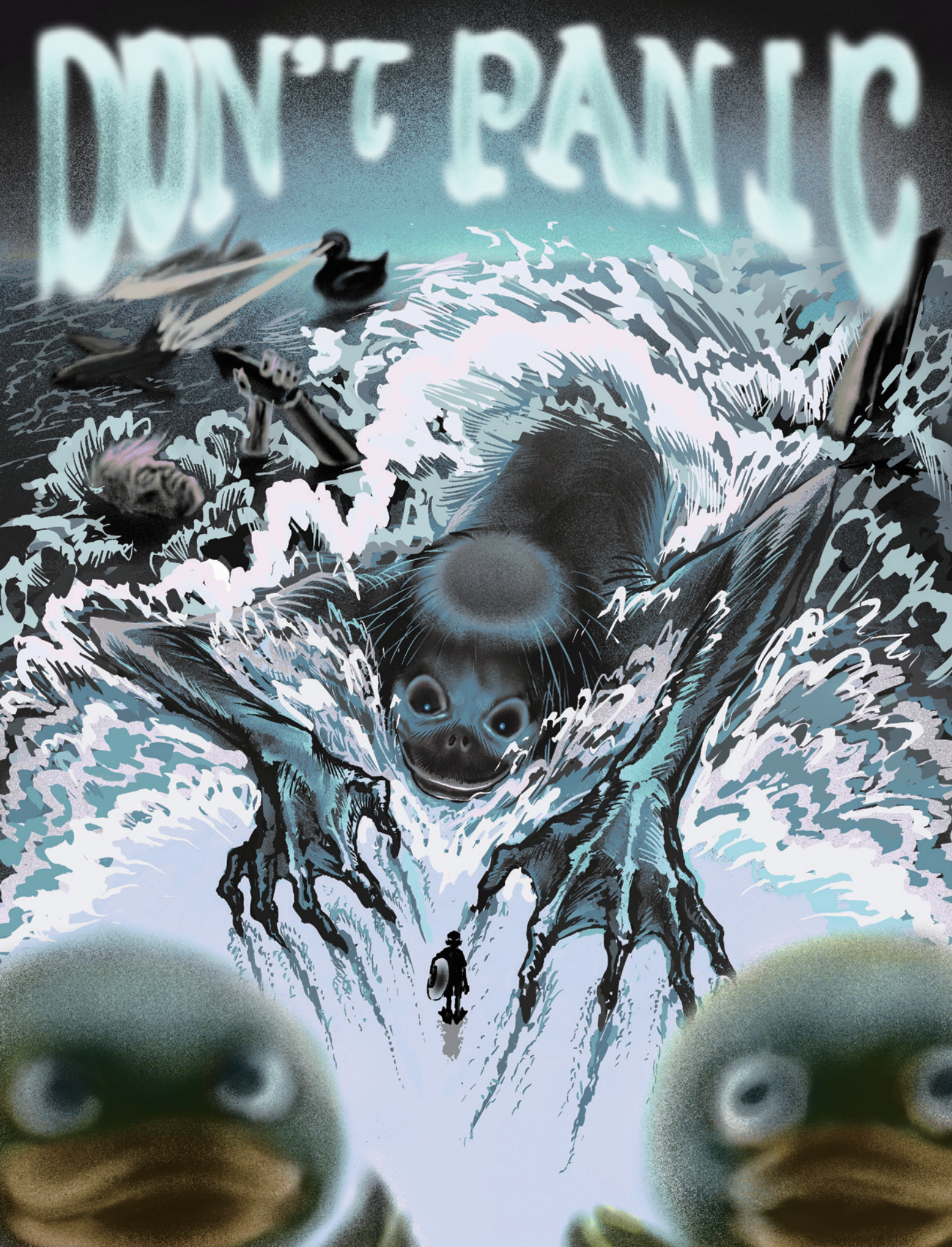


COP31 edition

침착할 것 パニクるな COP31 edition


DON'T PANIC

we are

DOERS in ASIA!

사가史家의 마음으로 짓는,
동아시아의 기후-민주-디지털 시민을 위한
이야기 창고

歴史家の心で作り上げる、
東アジアの気候·民主·デジタル
市民のための物語の倉庫

일러두기: 하인리히 뵐의 권고에 따라 덜 바쁘게 채널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お知らせ：ハインリッヒ·ベルの勧告に従い少しのんびりと、あまり急がずにチャンネル管理に取り組んでいます

03

나아가기 進んでく

책방을 운영하다 보면 손님들이 서가에 꽂혀 있는 잡지를 보며 "이게 뭐예요?"라고 자주 묻는데, 자연스럽게 기후 문제에 관한 대화와 설명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느낀다. 몇 년 전에 들었던 기후 관련 강연에서는 공격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잡지를 읽으면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좋았다. (박범각 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 지도를 하고 있어 평소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입장인데, 잡지를 받은 뒤에는 잠시나마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재밌게 읽었고, 특히 아리마 준이 쓴 「기후 협상의 회고와 전망」을 통해 일본의 협상 논리와 관점을 접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김평화 님)

기자로 일하며 기업과 산업이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취재하며 느꼈던 고민이 잡지와 맞닿아 있었다. 익숙한 이야기에서 딱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도가 반가웠다. (김민호 님)

書店を営んでいると、棚に並んだこの雑誌を見たお客さんから「これ何ですか？」とよく尋ねられる。そこから自然と気候問題についての会話や説明に続くところが良いと思った。数年前に聴いた気候変動関連の講演ではどこか攻撃的な印象を受けたが、この雑誌にはそんな感じかしなくて良かった。(パク・ボムガク)

小学生の読書指導をしており、普段子どもたちに宿題を出す立場なのだが、この雑誌を受け取った後、子どもたちの気持ちが一瞬わかった気がした。しかし意外に楽しく読めたし、とりわけ有馬純氏の「地球温暖化交渉の回顧と展望」を通じて、日本の交渉論理や視点に触れられたことが印象に残った。(キム・ピョンファ)

記者として、企業や産業が気候危機にどう対応しているかを取材するなかで抱えてきた悩みが、この雑誌と重なり合っていた。聞き慣れた話からもう一歩先へと踏み出そうとする試みが嬉しかった。(キム・ミンホ)

지역에서 地域から

冒頭のベレンの食と言葉に関する記事が面白く、気軽に読みはじめることができた。川やコーヒーなど、普段当たり前だと思っていたものをどう守っていくべきか、見直すきっかけになった。(イ・ナユン)

地方に住んでいると、環境問題が肌で感じられる。私が営む書店がある忠清南道は火力発電所のせいで常に微小粒子状物質(PM2.5)の汚染が深刻だし、錦山(クムサン)周辺に行けば、送電塔の建設に反対する横断幕を頻繁に目にする。大田(テジョン)近郊でも、2 3年おきに廃棄物をめぐる問題が繰り返されている。こうした地方の生々しい現実も、今後ぜひ誌面で取り上げてほしい。(チョ・ヒョンミン)

앞부분에 실린 벨렝의 먹거리와 언어에 관한 기사가 재미있어서 부담 없이 읽기 시작했다. 강이나 커피처럼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나윤 님)

지역에 살다 보면 환경 문제가 피부로 느껴진다. 운영 중인 책방이 있는 충남은 화력발전소 때문에 늘 미세먼지가 심하고, 금산 주변에 가면 송전탑 설치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전 인근에서는 2~3년마다 폐기물 관련 이슈가 반복된다. 이러한 지역의 현실도 잡지에 담기면 좋겠다. (조형민 님)

막막해도 見えずとも

아이를 키우며 기후 문제에 대해 막연한 걱정이 있던 터라 '침착할 것'이라는 콘셉트가 유독 반가웠다. 극단적인 이야기들에 지쳤던 것 같다. 개인 실천보다 정책과 구조를 중심으로 다루는 점은 신선했지만, 기후 정책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위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느꼈다. (곰솔 님)

글씨가 작고 생소한 단어가 많아 읽는 데 시간이 꽤 걸렸다. 잡지를 읽는 동안에도 전쟁이 계속되는 현실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기 어렵지만, 그래도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마음이다. (박진희 님)

子育てをするなかで気候問題に漠然とした不安を抱えていた私にとって、「パニクるな」というコンセプトがこのほかありがたかった。極端な話に疲れていたようだ。個人の実践よりも政策や構造を中心に据えている点は新鮮だった半面、気候政策に詳しくない読者への解説がもう少しあるとなお良いと感じた。(コムソル)

文字が小さいうえに耳慣れない用語も多く、読み終えるのにずいぶん時間がかかった。雑誌を読んでいるこの瞬間にも戦争が続いているという現実を前に、悲観的な思いを振り払うのは難しいけど、行動し、実践しなければと思う。(パク・ジニ)

독자 후기 読者レビュー



訂正します

『침착할 것 COP30 edition』 21쪽에 실린 "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로 인해 세계가 '탈(脱)탄소' 흐름으로 전환되었다'는 일부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에서 '탈(脱)탄소'를 '탈(脱)·탈탄소'로 바로 잡습니다. 오역을 세심하게 짚어주신 김나율, 박대우, 황혜준 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パニクるな』COP30 edition、21ページに掲載した「私は『トランプ政権のパリ協定離脱によって世界が「脱炭素」の流れへと転換した』という一部の見方には同意しない。」という文中の「脱炭素」を「脱・脱炭素」に訂正します。誤訳を丁寧にご指摘くださった読者のキム・ナユル様、パク・デウ様、ファン・ヘジュン様に感謝申し上げます。

바로잡습니다

Contents

05 편집부의 말
編集部より

06 안탈리아 지도
アンタルヤの地図

08 안탈리아의 비건 프렌들리 레스토랑과 카페
アンタルヤのヴィーガングルメ

12 안탈리아의 트리비아와 장소들
アンタルヤのトリビアとおすすめスポット

14 구호 전문가의 왓츠 인 마이 백팩
救援活動専門家の
「ワッツ・イン・マイ・バックパック」

16 환대와 연대의 튀르키예어
歓待と連帯のトルコ語

20 초심자를 위한 COP31 인수인계서
初心者のためのCOP31引継ぎノート

26 귤나무는 발이 없으니까
柑橘の木には足がないから

32 조금 덜 후회되는 여행 기념품 이야기
少しでも後悔しない、旅のおみやげ話

36 세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계속할 수 있을까
世界が崩れゆくとき、
私たちはどう歩み続けられるのか

42 섬은 방어선이 아니다
島は防衛線ではない

48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방법
踏ん張って生き続ける方法

58 패닉에 도움이 되는 점과 점 잇기
パニックに効く点つなぎ

62 패닉에 도움이 되는 메모장
パニックに効くメモ帳

63 십자말풀이
クロスワード



기획
하인리히 뵐 재단
노건우
오늘의풍경
신인아, 황효진,
오채은, 최정화,
김영인

편집
오늘의풍경
황효진, 오채은

글
아이세귈 에르카야
아르슬란, 김동훈,
알레이나 일마즈,
이수민, 다케다 준,
크리스티안 브라켈,
다케미네 세이이치로,
장혜영

한국어 교정교열
박은아

번역 및 일본어 검수
권용,
다나카 히로시

디자인
오늘의풍경
신인아,
최정화

아트워크
조,
포푸리(홍세인),
박부미,
오사와 유다이

만화
이다

광고
하인리히 뵐 재단,
시티트리클럽,
햇볕의 농부들

企画
ハインリヒ・ベル
財団
ノ・ゴヌ
Scenery of Today
シン・イナ、
ファン・ヒョジン、
オ・チェウン、
チェ・ジョンファ、
キム・ヨンイン

編集
Scenery of Today
ファン・ヒョジン、
オ・チェウン

文
アイシェギュル・
エルカヤ・
アルスラン、
キム・ドンフン、
アレイナ・ユルマズ、
イ・スミン、
武田淳、
クリスティアン・
ブラーケル、
竹峰誠一郎、
チャン・ヘヨン

韓国語校正校閲
パク・ウナ

翻訳および校正
ゴン・ユング、田中博

デザイン
Scenery of Today
シン・イナ、
チェ・ジョンファ

アートワーク
ジョ、ポプリ
(ホン・セイン)、
パク・プミ、
大澤悠大

マンガ
2da

広告
ハインリヒ・ベル
財団、シティツリー
クラブ、陽なたの
ファーマーズ

Editorial Planning
Heinrich-Böll-
Stiftung
RO Kunwoo
Scenery of Today
SHIN In-ah,
HWANG Hyojin,
OH Chaeeun,
CHOI Junghwa,
KIM Youngin

Editor
Scenery of Today
HWANG Hyojin,
OH Chaeeun

Contributor
Ayşegül Erkaya
ARSLAN,
KIM Donghun,
Aleyna YILMAZ,
LEE Sumin,
TAKEDA Jun,
Kristian BRAKEL,
TAKEMINE
Seiichiro,
JANG Hyeyeong

Korean
Proof Reading
PARK Euna

Japanese
Translation and
Proof Reading
KWON Yung,
TANAKA Hiroshi

Design
Scenery of Today
SHIN In-ah,
CHOI Junghwa

Artwork
Jo, popurri
(HONG Sein),
PARK Boomi,
OSAWA Yudai

Cartoon
2da

Advertisement
Heinrich-Böll-
Stiftung
City Tree Club
Sun Farmers in
Fukushima

05

『침착할 것』 2호의 원고 마감을 앞둔 토요일. 오늘은 곧 식구가 될 짝꿍,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남기기로 한 날입니다. 아침부터 휴대전화에 폭염 알림이 두 번이나 울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는 뉴스도 뜹니다. 야외 촬영을 해 질 녘에 시작했는데도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모두의 얼굴에 천연 볼터치가 생생합니다. 촬영을 마치고, 마침 생일을 맞은 친구를 위해 케이크을 꺼냅니다. 동네 유명한 빵집이 며칠 전부터 내놓기 시작한 '시즌' 메뉴. 하우스감귤이 담뿍 올라간 케익입니다. 겨울 감귤에 익숙한 제게 여름 감귤도 제철이라는 말은 꽤 낯섭니다. 궁금해서 찾아봅니다. 제주에서는 노지 감귤밭이 줄어드는 동시에 하우스 감귤 시설의 면적이 조금씩 커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변화를 기후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요. 폐원, 수익성, 규모화 같은 여러 사정이 얽혀 있을 겁니다. 아무튼 하우스감귤이 전기와 연료로 계절을 조절하는 과일이라는 사실이 새삼 눈에 밟힙니다. 올해는 3월 중동 전쟁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봄 가온을 줄인 농가가 많았고, 그래서 출하가 7~8월에 몰릴 수 있다는 몇 달 전 기사도 보입니다. 전쟁과 기름값과 감귤 한 알이 이렇게도 만나네요.

실제로 감귤이 많이 풀린 까닭인지, 빵집이 명성대로 인심을 크게 쓴 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케이크는 정말 거대했습니다. 성인 여덟 명이 먹고도 남을 양이라 옆 테이블 손님들과 나눴습니다. 그 커다란 케이크를 잘라 나누던 마음으로 이번 호를 건넵니다. 기후협상을 바닥에 깔고, 계속되는 전쟁과 다자주의의 위기, 후쿠시마와 태평양 핵실험처럼 한꺼번에 삼키기에는 목이 막히는 이야기들을 겹겹이 올렸습니다. 한 번에 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 가는 데서 한 조각씩, 침착하게 잘라 드셔보시죠. 자르고 또 자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피스 오브 케이크가 될 겁니다.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 사무소
노건우

『パニクるな』第2号の原稿締め切りを目前に控えた土曜日。この日は、もうすぐ家族になるパートナー、そして友人たちと記念写真を撮る約束をしていました。スマートフォンには朝から猛暑を知らせる通知が二度も届き、韓国のほとんどの地域に猛暑の警報や注意報が出ているというニュースも目に入りました。屋外での撮影は夕暮れ時に始めたのに、汗が滝のように流れました。写真に写ったみんなの頬には、暑さが生んだ天然のチークが鮮やかに浮かんでいました。撮影を終え、ちょうど誕生日を迎えた友人のためにケーキを取り出しました。近所で人気のパン屋さんが数日前から売り出した「季節限定」メニュー。ハウスみかんがたっぷりとのったケーキです。ところが、冬のみかんに慣れ親しんできた私には、夏のみかんも「旬」だというのが、どうにも不思議でした。気になって調べてみると、済州島では露地栽培のみかん畑が減る一方で、ハウスみかんの栽培施設の面積が少しずつ広がっているそうです。この変化を気候変動だけで説明することはできないでしょう。果樹園をたたむ事情や採算性、栽培規模の拡大など、さまざまな事情が絡み合っているはずです。ただ、ハウスみかんが電気や燃料を使って季節を調整しながら育てられる果物だという事実が、あらためて心に引っかかりました。今年は3月の中東での戦争で暖房費の負担が増し、春先にハウスの加温を控えた農家が多かったため、出荷が7〜8月に集中す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数か月前の記事も見つかりました。戦争と燃料代とみかん一個が、こんなふうにつながるんですね。

みかんがたくさん出回ったおかげなのか、それとも評判どおりパン屋さんが太っ腹だったからなのか、わかりません。とにかく、そのケーキは本当に巨大でした。大人8人で食べても余るほどだったので、隣のテーブルのお客さんたちにもおすそ分けしました。あの大きなケーキを切り分けて分け合ったときの気持ちで、今号をお届けします。気候交渉を土台に、続く戦争や多国間主義の危機、福島や太平洋での核実験など、一度に飲み込もうとすると喉につかえてしまうような話を、幾重にも重ねました。一度に全部食べる必要はありません。気の向くところから一切れずつ、慌てずに切り分けて味わってみてください。切って、また切っていくうちに、いつしか「ピース・オブ・ケーキ」(たやすいこと)になっているはずで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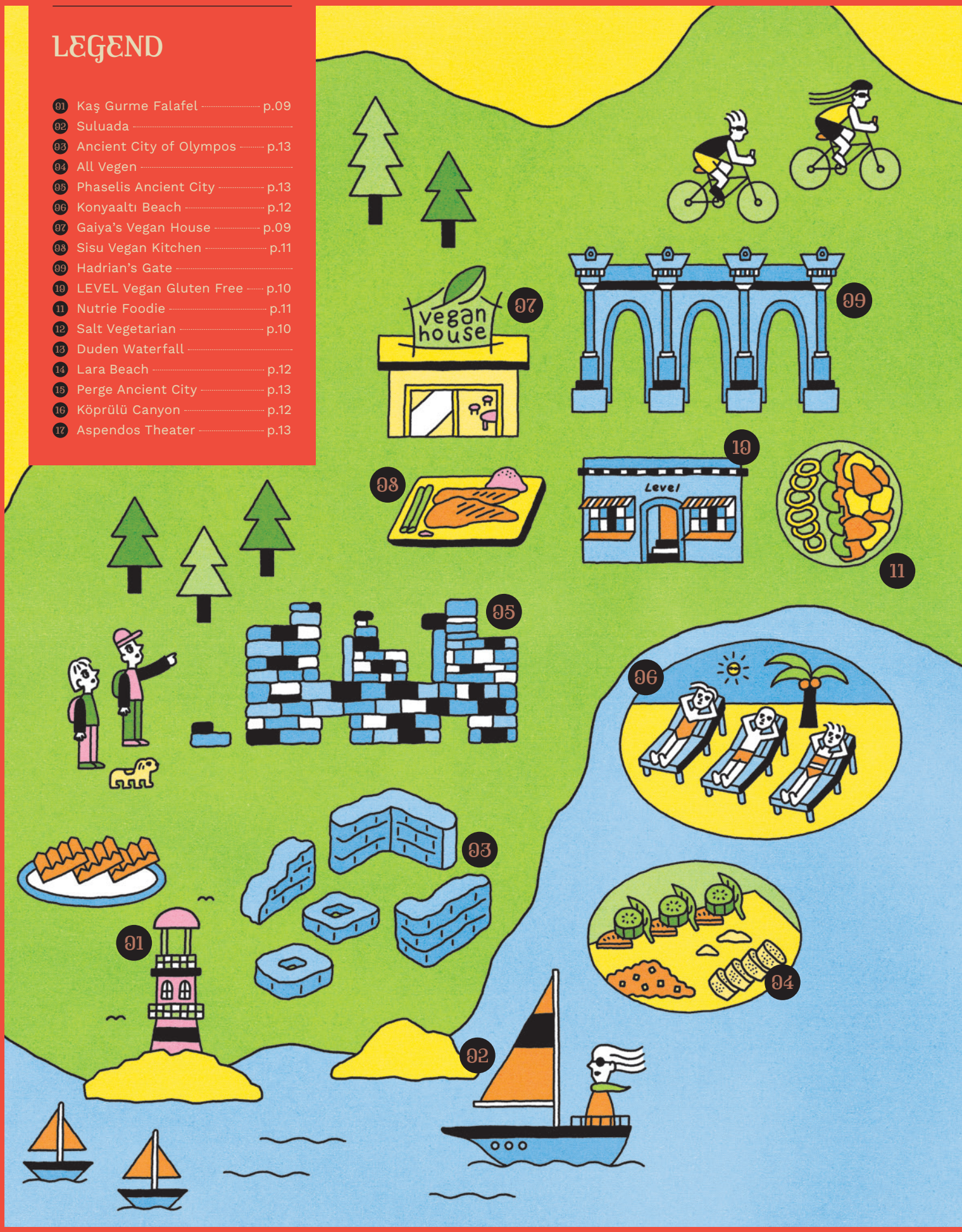
ハインリヒ・ベル財団 東アジア事務所
ノ・ゴヌ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

artwork © popuri (Hong Sein)

LEGEND

01 Kaş Gurme Falafel p.09
02 Suluada .....
03 Ancient City of Olympos p.13
04 All Vegen .....
05 Phaselis Ancient City p.13
06 Konyaaltı Beach p.12
07 Gaiya's Vegan House p.09
08 Sisu Vegan Kitchen p.11
09 Hadrian's Gate .....
10 LEVEL Vegan Gluten Free p.10
11 Nutrie Foodie p.11
12 Salt Vegetarian p.10
13 Duden Waterfall .....
14 Lara Beach p.12
15 Perge Ancient City p.13
16 Köprülü Canyon p.12
17 Aspendos Theater p.13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Welcome to Antelya

안탈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アンタルヤへようこそ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안탈리아의 비건 프렌들리 레스토랑과 카페

08

アンタルヤの ヴィーガングルメ

Vegan Friendly Restaurant and Cafe in Antalya

TOUR GUIDE



AYŞEGÜL ERKAYA ARSLAN
아이셰귈 에르카야 아르슬란 ♥
アイシェギュル・エルカヤ

튀르키예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언론인이자 편집자. 권리 기반 저널리즘, 도시의 삶, 환경, 기후정의, 동물권을 다룹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뒤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일하며 지방정부, 도시 정책,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기사를 써왔습니다. 최근에는 『안탈리아 켄트 하버』(Antalya Kent Haber)에서 에디터이자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トルコを拠点に活動しているジャーナリスト・編集者。権利に根ざしたジャーナリズム、都市の暮らし、環境、気候正義、動物の権利をテーマに執筆している。市民団体での活動を経てフリーランスのジャーナリストとなり、現在はAntalya Kent Haberで編集者兼記者を務める。

맛집을 알아두면 낯선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는 안탈리아의 비건 식당과 카페 여덟 곳을 모았다.
각 식당과 카페의 인기 메뉴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먹을지 미리 고민해보는 일도 큰 즐거움이 될 것이다.

おいしい店を知っているだけで、見知らぬ土地へ向かう足取りはぐっと軽くなるものだ。
ここでは、誰でも気兼ねなく立ち寄れるアンタルヤのヴィーガンレストランとカフェを8軒ご紹介しよう。それぞれの人気メニューを眺めながら、何を食べようかとあらかじめ迷ってみる時間も、きっと旅の大きな楽しみになるはずだ。

09

07 Gaiya's Vegan House

instagram @gaiyasveganhouse
Altınkum, 470. Sk. No:9 D:e, 07070 Konyaaltı/Antalya

콘야알트 지구의 알튼쿰에 자리한 가이야스 비건 하우스는 한곳에서 다양한 비건 음식을 맛보고 싶은 이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건네는 공간입니다. 창업가 야세민의 노력으로 문을 연 이곳은 든든한 비건 아침 식사부터 비건 메인 요리, 비건 디저트까지 어느 시간에 찾아가도 고를 수 있는 메뉴가 넉넉합니다.

이곳의 매력은 비건 음식에만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여성들 사이의 연대감도 이 공간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곳에서는 특정한 날마다 여성 생산자들을 위한 장터가 열립니다. 생산자의 노동을 드러내고, 서로를 지지하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위층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여성들이 기획하고 이끄는 활동이 열립니다. 요가, 호흡 수업, 수채화 워크숍처럼 창의성과 돌봄의 감각을 키우는 프로그램들이 @gaiyaflow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지되고 운영됩니다. 맛있는 비건 음식을 먹고, 나에게 맞는 활동까지 찾아보고 싶다면 한번 들러보세요.

コンヤアルトゥ地区、アルトゥンクムにあるGaiya's Vegan Houseは、一か所でさまざまなヴィーガン料理を味わいたい人に温かなもてなしを届けてくれる空間です。創業者、ヤセミンの尽力によってオープンしたこの店は、ボリュームたっぷりのヴィーガン朝食からヴィーガンのメイン料理、ヴィーガンデザートまで、いつ訪れても選べるメニューが充実して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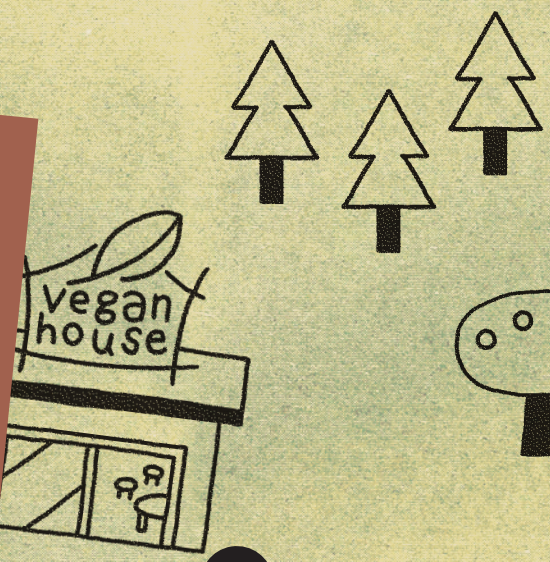
この店の魅力はヴィーガン料理だけにとどまりません。女性たちの連帯感もこの空間を特別なものにしています。Gaiya's Vegan Houseでは、特定の日に女性農家のためのマーケットが開かれます。農家の労働に光を当て、互いを支え合う小さなコミュニティを育んでいく場です。

2階も注目のポイントです。ここでは主に女性たちが企画し、リードする活動が行われています。ヨガ、呼吸法のクラス、水彩画ワークショップなど、クリエイティブとケアの感覚を育むプログラムが、Instagramアカウント@gaiyaflowを通じて告知・運営されています。おいしいヴィーガン料理を味わい、自分に合った活動まで探してみたい方は、ぜひ一度店に立ち寄ってみてください。

tip! 추천하는 메뉴는 아몬드 요거트를 곁들인 튀르키예식 만두 만트와 비건 라흐마준입니다. 일정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바닷가를 따라 산책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おすすめメニューは、アーモンドヨーグルトを添えたトルコ風餃子マントゥとヴィーガン・ラフマジュンです。スケジュールに合うプログラムに参加した後、海辺に沿って散歩してみるのも良いでしょう。





01 Kaş Gurme Falafel

instagram @kas_gurme_falafel
Andifli, 2 sokak no:3/A, 07580 Kaş/Antalya

카시 구르메 팔라펠은 안탈리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휴양지 중 하나인 카시의 활기찬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팔라펠로 유명하지만, 차분하고 꾸밈없는 분위기로도 눈길을 끕니다.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한 끼가 생각날 때 들르기 좋습니다. 동물성 재료를 피하고 싶은 여행자에게도 반가운 선택지죠.

팔라펠은 플레이트나 랩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트에는 넉넉한 채소와 팔라펠 네 알이 함께 나옵니다. 병아리콩은 메르신에서, 타히니는 안탈리아 중심부에서 옵니다. 모두 로컬 생산자에게서 받은 재료이며, 소규모 생산자와의 연대는 이 식당의 중요한 지향이지요.

Kaş Gurme Falafelは、アンタルヤ屈指の人気リゾート地カシュの、にぎやかな通りにあります。ファラフェルの名店として知られていますが、肩ひじ張らない落ち着いた雰囲気も魅力のひとつ。さっと食べられて、しかもしっかりお腹にたまる食事がしたいときに、ふらっと立ち寄るのにちょうどいい店です。動物性の食材を避けたい旅行者にとっても、ありがたい存在です。

ファラフェルはプレートかラップから選べます。プレートを頼むと、たっぷりの野菜にファラフェルが4個。ひよこ豆はメルシン産、タヒニはアンタルヤ中心部から仕入れたもので、いずれも地元の生産者から届く食材です。小さな作り手たちを支えることが、この店の大切にしている考え方なのです。

tip!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팔라펠에 핫소스를 추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운 날에는 직접 만든 레모네이드도 놓칠 수 없겠습니다.

辛いもの好きなら、ファラフェルにホットソースを足すのをお忘れなく。暑い日には自家製レモネードもぜひ。



12

Salt Vegetarian

instagram @salt.vegetarian
Çağlayan mahallesi 2028 sokak Kapşır 2 Asya sitesi D blok D.2, D:3, 07230 Muratpaşa/Antalya

Muratpaşa Çağlayan
무라트파샤 지구의 찰라얀에 있는 솔트 베지테리언은 베지테리언 카페로, 동시에 비건 옵션도 눈에 띄는 곳입니다. 아침 식사, 오트볼, 토스트 샌드위치, 수프, 메인 요리, 랩, 디저트까지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일만을 착즙해서 만든 디톡스 음료도 유명합니다. 여러 종류의 콜드 커피 메뉴가 있어서, 커피만 마시고 싶은 사람에게도 괜찮은 선택지이고요.

Muratpaşa Çağlayan
ムラトパシャ地区のチャーラヤンにあるSalt Vegetarianは、ベジタリアンカフェでありながらヴィーガンメニューの充実ぶりでも知られる店です。朝食メニューにオーツボウル、トーストサンド、スープ、メイン料理、ラップ、デザートまで、選択肢は実に幅広く揃っています。果物だけを搾ったデトックスドリンクも評判です。コーヒー目当てに立ち寄るのもあり。数種類のコールドコーヒーが用意されています。

tip! 비건 굿모닝 브렉퍼스트와 아보카도 템페 샌드위치가 특히 인기 있는 메뉴로 꼽힙니다.
なかでも人気なのが、Vegan Good Morning Breakfast Avocado Tempeh Sandwichです。

Çıralı All Vegan Café

instagram @all_vegan_cirali
Beycik, 07982 Kemer/Antalya

Kemer Çıralı
케메르 지구의 츠랄르에 있는 츠랄르 올 비건 카페는 올림포스 고대 도시와 올림포스 해변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약 2500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전해지는 전설 속 '불타는 바위' 야나르타시에서는 3킬로미터쯤 떨어져 있죠. 그래서 올림포스, 츠랄르 해변, 야나르타슈를 잇는 동선에 넣고 쉬어가기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전적으로 식물성 재료로 만든 음식을 냅니다. 다른 비건 식당에 비해 메뉴는 더 간결한 편이고요. 그 간결함이 오히려 다정하고 친밀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칭찬하는 것 중 하나는 주인 이브라힘의 환대입니다. 이브라힘은 주방에서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협력 업체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 하지만 요리에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재료를 받아 옵니다. 그렇게 버려질 뻔한 재료는 다양한 소스로 다시 태어나죠. 그가 직접 만드는 식물성 요리 옆에는 뜻밖의 맛있는 소스들이 함께 놓일 때가 많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속가능성과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의 원칙이 메뉴 구성의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모든 메뉴는 이브라힘의 손을 거쳐 만들어지며, 식당의 다른 일도 대부분 그가 직접 맡고 있습니다.

Çıralı All Vegan CaféはケメルKemer地区のチュラルÇıralıにあり、オリンポス遺跡やオリンポスビーチから歩いて行ける距離にあります。料理はすべてベジタリアン料理のみで作られています。他のヴィーガンレストランと比べるとメニューは少なめですが、その控えめなところがかえって、あたたかく親密な雰囲気につながっています。訪れた人が口をそろえて褒めるのが、オーナー・イブラヒムさんのもてなし。イブラヒムさんはサステナビリティを大切にするキッチンを目指し、食品ロスを減らすため、取引先が扱わなくなったけれど調理には十分使える食材を引き取っています。捨てられるはずだった食材は、こうしてさまざまなソースへと生まれ変わります。彼の手による植物性の料理には、意外なほどおいしいソースが添えられていることも少なくありません。サステナビリティと食品ロス削減の考え方が、この店ではメニューづくりの根っこにあるのです。料理はすべてイブラヒムさんが自ら作り、店のこまごまとした仕事も、そのほとんどを一人でこなしています。

店から車で3キロほどの場所には、伝説の「燃える岩」ヤナルタシュYanartaşがあります。およそ2,500年ものあいだ火が消えたことがないと言い伝えられる場所です。オリンポス、チュラルビーチ、ヤナルタシュをめぐるコースの途中に立ち寄る、ひと休みスポットとしてぴったりの一軒です。

tip! 인기 메뉴로는 소스를 곁들인 베이티 랩과 진하고 크리미한 타코가 있습니다.
人気メニューは、ソースを添えたベイティラップと、濃厚でクリーミーなタコス。

10

LEVEL Vegan Gluten Free

instagram @levelvegan
Barbaros, Civelek Sk. No:12, 07100 Muratpaşa/Antalya

레벨 비건 글루텐 프리는 안탈리아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칼레이치Kaleiçi에 있는 비건 레스토랑입니다. 역사, 바다, 상점,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유명한 칼레이치를 천천히 산책한 뒤, 완전한 비건 음식으로 식사를 하고 싶다면 들러볼 만합니다. 이곳의 여러 메뉴는 글루텐 프리이기도 합니다.

LEVEL Vegan Gluten Freeは、アンタルヤの心臓部ともいえる旧市街カレイチにあるヴィーガンレストランです。歴史と海、ショップにエンターテイメント、見どころの尽きないカレイチをのんびり歩いたあと、完全ヴィーガンの食事で締めくくりたいなら、ここがおすすめ。メニューの多くはグルテンフリーにも対応しています。

11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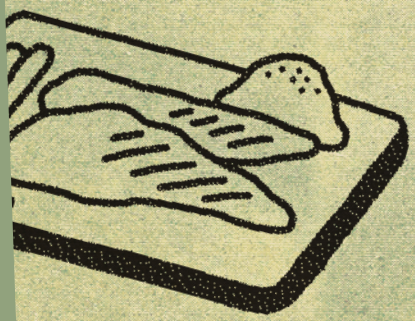
Sisu Vegan Kitchen

instagram @sisukitchen.tr
Meltem, 3808. Sk. 13 C, 07030 Muratpaşa/Antalya,

Muratpaşa Meltem
무라트파샤 지구 멜템에 있는 시스 비건 키친은 모든 메뉴를 비건으로만 구성한 식당입니다. 세 가지 종류의 푸짐한 토스트 샌드위치부터 더운 날 가볍게 먹기 좋은 과일 볼, 메인 요리와 간식까지, 눈과 입을 함께 즐겁게 하는 다채로운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건과 베지테리언은 물론, 평소 비건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즐겨 찾는 곳입니다.

Muratpaşa Meltem
ムラトパシャ地区、メルテムにあるSisu Vegan Kitchenは、全てのメニューがヴィーガンで提供されるレストランです。3種類のボリューム満点なトーストサンドイッチから、暑い日に軽く食べるのにぴったりなフルーツボウル、メイン料理やスナック類まで、目と舌の両方を楽しませてくれる多彩なメニューが揃っています。ヴィーガンやベジタリアンはもちろん、普段プラントベースの食事をしない人々にも人気の店です。

tip! 하나만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비건 드림스틱은 대표 메뉴로 꼽을 만합니다. 느타리버섯, 라이스페이퍼, 비건 치킨 시즈닝, 옥수수 가루로 만드는 이 특별한 메뉴는 방문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一つだけ選ぶのは難しいのですが、それでもVegan Drumstickは看板メニューに挙げられます。ヒラタケ、ライスペーパー、ヴィーガンチキンシーズニング、コーンフラワーで作られるこの特別な一品は、訪れる多くの人々から愛されて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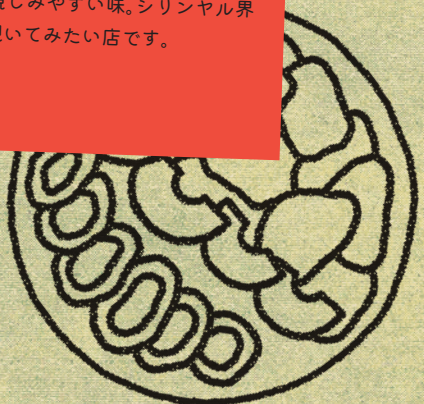
11

Nutrie Foodie

instagram @nutriefoodie
Şirinyalı, 1497. Sk. No:12/2, 07160 Muratpaşa/Antalya

Muratpaşa Şirinyalı
무라트파샤 지구의 시린얄리에 자리한 누트리 푸디는 완전 비건 식당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건과 베지테리언을 위한 선택지가 잘 갖춰진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찾기 좋지요. 일행들의 식단이 제각각일 때 특히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메뉴에서는 비건 라흐마준, 비건 쾨프테, 비건 플래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실용적이고 든든하며 접근성 좋은 맛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린얄리 근처에서 한번 들러볼 만한 장소입니다.

Şirinyalı
ムラトパシャ地区のシリンヤルにあるNutrie Foodieは、オールヴィーガンのレストランではありません。とはいえ、ヴィーガン・ベジタリアン向けの選択肢はしっかり揃っています。だからこそ、食のスタイルが違っていても一緒に楽しめるのがこの店の良いところ。同行者の食事事情がバラバラなときには、とりわけ頼りになる一軒です。メニューでは、ヴィーガン・ラフマジュン、ヴィーガン・キョフテ、ヴィーガン・プレートあたりが目を引きます。気取らず、お腹も満たされて、誰にでも親しみやすい味。シリンヤル界隈に来たら、一度は覗いてみたい店で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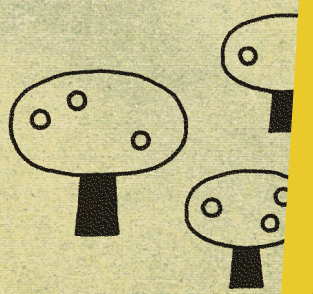
Lifebox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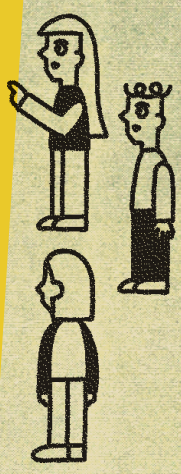
instagram @lifeboxtr
Andifli, Eski Antalya Cd., 07580 Kaş/Antalya

Kaş Andifli
카시 지구의 안디플리에 있는 라이프박스터는 전 메뉴를 비건, 무설탕, 글루텐 프리로 구성한 특별한 식당입니다. 고정 메뉴가 있지만, 때때로 메뉴판에 없는 깜짝 메뉴를 만날 수도 있지요. 선택지는 풍성합니다. 초록 채소가 가득한 샐러드와 식사 플레이트, 디저트, 차가운 음료와 따뜻한 음료까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Kaş Andifli
カシュ地区のアンディフリにあるLifeboxtrは、全メニューがヴィーガン・砂糖不使用・グルテンフリーというユニークな店です。定番メニューのほかに、日によってサプライズメニューに出会えることも。選択肢は豊富で、緑の野菜たっぷりのサラダに食事プレート、デザート、冷たいドリンクから温かいドリンクまでひととおり揃っています。

tip! 채소가 넉넉히 들어간 라이프박스터 볼과 브라우니는 많은 사랑을 받는 메뉴입니다.
野菜がぎっしり入ったLifeboxtrボウルとブラウニーは、ファンの多い看板メニューです。





12

과일
果物



오렌지나무는 안탈리아의 정체성을 이루는 풍경입니다. 과수원에서뿐 아니라 거리와 공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이 나무들은 도시 곳곳에 선명한 색을 더합니다. 그래서 안탈리아 하면 오렌지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최근 몇 년 사이 아보카도, 용과, 망고, 파파야 생산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제 안탈리아는 튀르키예의 '열대 과일 수도'라고도 불립니다. 튀르키예에서 판매되는 바나나 중 상당량은 안탈리아주의 알란야와 가지파샤 지구에서 재배됩니다.

オレンジの木は、アンタルヤの街並みを語るうえで欠かせない存在です。果樹園はもちろん、通りや公園でもあちこちで目にすることができ、街に鮮やかな彩りを添えています。そのため「アンタルヤといえばオレンジ」というイメージが強いのですが、近年はアボカド、ドラゴンフルーツ、マンゴー、パパイヤの生産が急増。いまやトルコの「トロピカルフルーツの都」とも呼ば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ちなみに、トルコ国内で流通するバナナのかなりの部分は、アンタルヤ県のアランヤとガズィパシャで栽培されたものです。

Alanya Gazipaşa

스포츠
スポーツ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 덕분에 안탈리아에서는 해마다 크고 작은 국내외 스포츠 행사가 열립니다. 이 도시는 유럽 축구 팀들이 겨울 훈련 캠프로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탈리아는 프로 사이클링 선수들의 겨울 훈련지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튀르키예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자전거 도로도 잘 갖춰져 있어, 선수뿐 아니라 자전거 여행자들에게도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温暖な地中海性気候に恵まれたアンタルヤでは、毎年、国内外の大小さまざまなスポーツイベントが数多く開催されています。ヨーロッパのサッカークラブが冬季キャンプ地として好んで訪れる街としても知られています。プロの自転車チームにとっても、アンタルヤは人気の冬季トレーニング拠点です。トルコの他都市に比べてサイクリングロードの整備が進んでおり、選手はもちろん、自転車で旅する人にとっても走りやすい街です。



Photo © flicker @nuestrociclismo.com

바다
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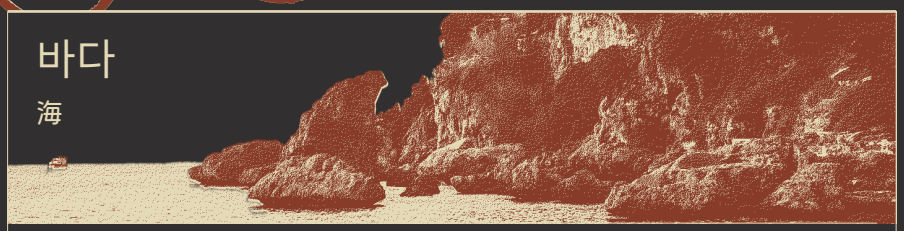


Photo © Ayşegül Aytören

안탈리아에서 물놀이와 해양 스포츠는 일상에 가깝습니다. 콘야알트 해변과 라라 해변을 비롯한 여러 해안에서는 스탠드업 패들보딩을 포함해 다양한 수상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쿠버다이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튀르키예의 대표적인 휴양지 카시는 깨끗한 시야, 풍부한 해양 생물, 흥미로운 난파선 덕분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다이빙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탈리아의 해변과 만은 저마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술루아다는 유난히 사랑받는 곳입니다. 청록빛을 띠는 맑은 바다 덕분에 '튀르키예의 몰디브'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여름철에는 당일 보트 투어도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안탈리아의 해수욕 시즌은 튀르키예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깁니다. 11월에도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Konyaaltı Lara Kaş Suluada

アンタルヤの人々にとって、海水浴やマリンスポーツはごく身近な楽しみです。コンヤアルトゥビーチやララビーチをはじめ、各地の海岸ではSUP(スタンドアップパドルボード)などさまざまなアクティビティが楽しめます。スキューバダイビングも見逃せません。トルコ屈指のリゾート地カシュは、抜群の透明度、豊かな海の生き物、そして興味深い沈没船ポイントを擁し、世界有数のダイビングスポットに数えられています。アンタルヤのビーチや入り江は、それぞれ違った表情を見せてくれますが、なかでもひときわ人気を集めているのがスルアダ。透き通ったターコイズブルーの海から「トルコのモルディブ」の異名を持ち、夏は日帰りボートツアーの定番として特に人気です。海水浴シーズンの長さもアンタルヤならでは。トルコの他地域よりずっと長く、11月になっても海に入る人の姿が珍しくありません。

Konyaaltı Lara Kaş Sulu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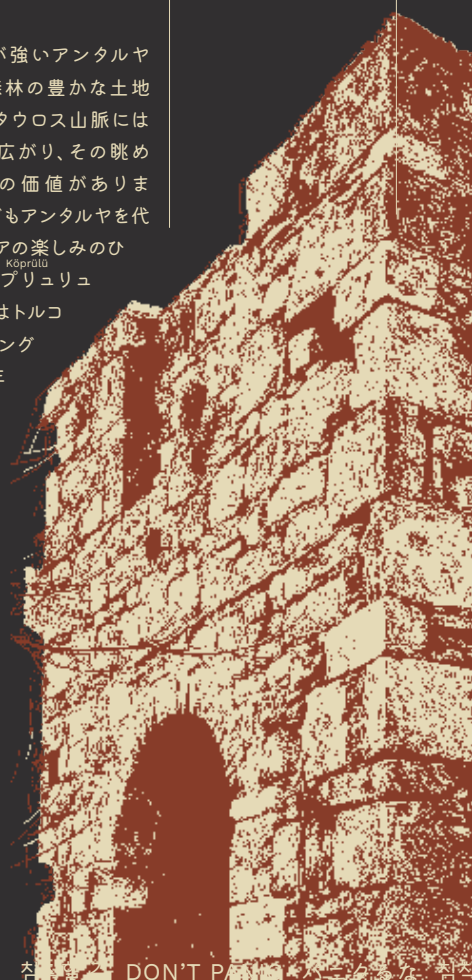
숲과 계곡
森と渓谷

안탈리아는 해안 도시로 유명하지만, 사실 숲도 많은 지역입니다. 타우루스산맥에는 삼나무와 소나무 숲이 넓게 펼쳐져 있어, 그 풍경만으로도 장관을 이루죠. 래프팅도 안탈리아를 대표하는 야외 활동입니다. 특히 쾨프륄뤼 협곡 국립공원은 튀르키예에서 손꼽히는 래프팅 명소로, 해마다 수십만 명이 찾습니다.

Köprülü Canyon National Park

海のイメージが強いアンタルヤですが、実は森林の豊かな土地でもあります。タウロス山脈には杉や松の森が広がり、その眺めだけでも一見の価値があります。ラフティングもアンタルヤを代表するアウトドアの楽しみのひとつ。特にキョプリュリュ渓谷国立公園はトルコ屈指のラフティングの聖地で、毎年数十万人が訪れます。

Köprülü Canyon National Park



TRIVIA & PLACES

안탈리아의
트리비아와 장소들

アンタルヤの
トリビアとおすすめスポット

Antalya

13

칼레이치
カレイチ
旧市街

Muratpaşa 무라트파샤 지구의 칼레이치는 역사적 도심입니다. 헬레니즘, 로마, 비잔틴, 셀주크, 오스만 시대의 흔적이 겹겹이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식사, 숙박, 쇼핑, 밤 문화, 박물관, 사진 명소가 한곳에 모인 활기찬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ムラトパシャ地区のカレイチは、歴史が凝縮された旧市街です。ヘレニズム、ローマ、ビザンティン、セルジューク朝、オスマン朝――各時代の面影が幾重にも折り重なっています。同時に、グルメ、宿泊、ショッピング、ナイトライフ、博物館、フォトスポットがぎゅっと詰まった、活気あふれるエリアでもあります。

파셀리스 고대 도시
ファセリス遺跡

Photo © Christian Heinisch



Kemer 케메르 지구의 Tekirova 테키로바에 있는 Phaselis 파셀리스 고대 도시에는 아고라, 목욕탕, 신전 같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도시를 둘러본 뒤 얕은 만에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Kemer ケメル地区のTekirova テキロヴァにある Phaselis ファセリス遺跡には、アゴラや浴場、神殿跡などが残っています。古代都市を見学したあとは、遠浅の入り江でひと泳ぎできます。

페르게 고대 도시
ペルゲ遺跡

Photo © Engin Akyurt



Aksu Perge 아크수 지구에 있는 페르게 고대 도시는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보존 상태가 좋은 고대 정착지 중 하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Pamphylia 잠정 목록에 올라 있으며, '팜필리아의 수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도시 안에는 로마 문, 경기장, 페르게 아고라, 열주 거리, 목욕탕, 케스트로스 분수 같은 구조물이 남아 있습니다.

Aksu Perge アクス地区にあるペルゲ遺跡は、地中海地域でも指折りの重要性と保存状態を誇る古代都市です。ユネスコ世界遺産の暫定リストに登録されており、「パンフィリアの都」としても知られています。遺跡内には、ローマ門、スタジアム、アゴラ、列柱通り、浴場、ケストロスの泉といった建造物が残っています。

타즈 협곡
タズ渓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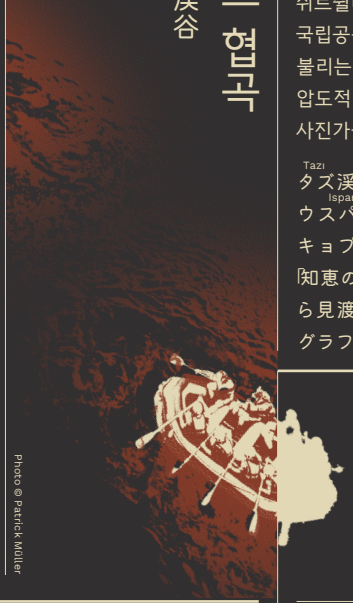


Photo © Patrick Müller

Tazi 타즈 협곡은 안탈리아의 Manavgat 마나브가트와 Serik 세리크, Isparta 이스파르타의 Sütçüler 쉬트칠레르가 만나는 지점, 쾨프륄뤼 협곡 국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지혜의 계곡'이라고도 불리는 이 협곡은 높은 곳에서 펼쳐지는 압도적인 풍경 덕분에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진가들에게 특히 사랑받습니다.

Tazi タズ渓谷は、アンタルヤのManavgat マナヴガト・セリクとIsparta ウスパルタのSütçüler スュトチュレルが接するあたり、キョプリュリュ渓谷国立公園の中にあります。「知恵の谷」の別名を持つこの渓谷は、断崖の上から見渡す圧巻のパノラマで、自然好きやフォトグラファーを魅了してやみません。

아스펜도스 고대 극장
アスペンドス古代劇場

Aspendos 세리크 지구 근처에 있는 아스펜도스 고대 극장은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로마 건축물 가운데 가장 장엄한 유적 중 하나입니다. 약 2000년의 역사를 지닌 이곳은 뛰어난 음향과 건축미, 시간을 견뎌낸 역사 덕분에 고대 세계의 '살아 있는 무대'로 불립니다.

Serik セリク地区近郊のAspendos アスペンドス古代劇場は、現存するローマ建築のなかでも屈指の壮麗さを誇る遺跡です。およそ2千年の歴史を持ち、卓越した音響と建築美、時を超えて残る舞台から、古代世界の「生きた舞台」と称されています。

올림포스 고대 도시
オリンポス遺跡



Kumluca Olympos 쿰루자 지구에 있는 고대 도시 올림포스는 파셀리스와 함께 이 지역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숲과 바다, 역사가 한데 어우러진 곳이며, 붉은바다거북의 중요한 산란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몇 음식점과 음료 판매 공간을 제외하면 해변에서는 대규모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Kumluca Olympos クムルジャ地区にあるオリンポス遺跡は、ファセリスと並ぶこの地域の重要な港湾都市でした。森と海、歴史がひとつに溶け合う場所であり、アカウミガメの貴重な産卵地でもあります。そのためビーチ周辺は、いくつかの飲食店や売店を除けば、ほとんど開発の手が入っていません。

안탈리아처럼 이미 유명한 지역일수록 더욱더 깊이 알고 싶어진다. 튀르키예 현지인이 알려주는 안탈리아에 관한 짧은 사실들과 방문하면 좋을 장소들.

アンタルヤのように広く名の知れた土地ほど、もっと深く知りたくなる。地元トルコの人々が教えてくれた、アンタルヤにまつわる豆知識、そしてとっておきの場所。

구호 전문가의 왓츠 인 마이 백팩 14 救援活動専門家の ワッツ・イン・マイ・バックパック

TOUR GUIDE



KIM DONG HUN
김동훈 ♥ キム・ドンフン

한국에 두 명뿐인 재난사회복지사 중 한 명이다. 26년간 28개 국가에서 국제 구호사업을 해왔다. 2016~2018년에는 일본의 피스 윈즈 재팬(Peace Winds Japan)에서 연수도 했었다. 지금은 한국 유일의 재난사회복지전문기관 '더 프로미스(The Promise)'를 통솔하고 있다. 韓国に二人しかいない災害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一人。26年間、28か国で国際救援事業に携わってきた。2016年から2018年にかけては、日本のピースウィンズ・ジャパンで研修も行った。現在は韓国で唯一の災害福祉専門機関「ザ・プロミス(The Promise)」を率いている。

'맥가이버 칼'이라고 많이 부른다. 재난 안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해낼 물건이다. 다기능 접이식 만능칼이다. 필요하기도 하고 유용하기도 한데 주의할 것이 있다. 비행기 탈 때 위탁 수화물로 맡겨야 한다. 비행기에 직접 들고 타려 하다가는 영원히 이별해야 한다. COP 행사장에서도 수상한 사람으로 의심받고 싶다면 꼭 들고 갈 것.

いわゆる「十徳ナイフ」だ。防災に関心のある人なら誰でも思いつく物だろう。多機能の折りたたみ式万能ナイフである。ただし、必要で便利ではあるが、注意すべき点がある。飛行機に乗るときは必ず預ける荷物に入れること。機内に持ち込もうとすれば永遠のお別れになる。それから、COPの会場に入るときも、不審者として疑われたい人だけ持って行くように。

재난 때 남들이 챙겨주기 어려운 물건들이 있다. 틀니, 보청기, 안경, 콘택트렌즈, 개인 처방약, 애착 인형 등 개인 맞춤형 아이템들이 그것이다. 이런 물품들은 재난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빌릴 수도 없고 현지에서 구하기도 어렵다. 이런 물품의 목록은 사람마다 달라서 당신만이 만들 수 있다. 나는 '예비 안경'과 '당뇨약'이 기본 목록이다. 그리고 '귀마개'도 챙긴다. 나하고 같이 방 쓰는 사람은 내 코골이로 고생을 해야 하므로.

災害時に他人が助けてあげられない物がある。入れ歯、補聴器、メガネ、コンタクトレンズ、個人の処方薬、お気に入りのぬいぐるみなど、自分専用のアイテムだ。災害現場では誰かに借りることもできず、現地で調達するのも難しい。このリストは人それぞれで、あなた自身にしか作れない。私の場合は「予備のメガネ」と「糖尿病の薬」が基本リストだ。それから「耳栓」も持っていく。同室になる人は私のいびきに苦しむことになるので。







What's in M

EDC라는 것이 있다. 'Everyday Carry'의 줄임말이다. '상비품'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다. 매일 들고 다니는 물건이 갑작스런 재난 위기 상황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면 좋다는 취지다. '생존 배낭'의 축소판이라고 할까. EDC에 꼭 어떤 물건이 있어야 하는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휴대용 손전등, 호루라기, 일회용 우비, 고열량 간식 등 누구나 생각하기 쉬운 물품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거나 의외로 떠올리기 어려운 물품을 소개해본다.

EDCと呼ばれるものがある。「エブリデイ・キャリー」の略だ。訳せば「最小携帯物」といった意味になるだろう。毎日持ち歩く物が、突然の災害時にも役立つものであれば良い、という考え方だ。いわば「防災リュック」の縮小版と言える。ここに必ずこれを入れるべき、という正解があるわけではない。携帯用ライト、ホイッスル、使い捨てレインコート、高カロリーのフードなど、誰でも思いつきやすい物がある一方で、ここでは特に強調したい物や、意外に思われる物を紹介してみたい。

My Backpack

❹ 스마트폰 スマートフォン



해외에 갈 때 의외로 절대 빠뜨리지 않는 물건은 '종교 용품'이다. 나는 불교 신자라서 염주를 가져간다. 멀리 오래 갈 때는 불경까지 챙긴다. 아직까지 현장에서 쓸 일은 없었지만 여전히 최후에 의지할 마음의 보루다. 2023년 튀르키예에 지진이 났을 때 그곳 소방대가 구조 역량 문제로 엄청난 지탄을 받은 것을 안다면, 여러분도 믿을 게 마땅히 없을 것이다. 그런데 종교가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고? 그럼 이 기회에 종교를 하나 가져보시라.

意外にも、海外へ行くとき絶対に忘れない物が「宗教用品」だ。私は仏教徒なので「数珠」を持っていく。遠くまで行くときは「お経」まで持参する。今のところ現場でこれを使う事態にはなっていないが、いまだに最後に頼れる心の砦である。2023年のトルコ地震のとき、現地の消防隊が救助能力の問題でさんざん批判されたことを覚えていれば、頼れるものなど大してないと皆さんも分かるはず。宗教がない人はどうすればいいかって?では、この機会に一つ持ってみてはどうだろう。

❺ 노트북 ノートパソコン



우리가 가진 모든 물건 가운데 재난 안전을 위해 단 한 가지의 물건을 고르라고 한다면 단연 '스마트폰'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가족의 안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안부 확인 외에 손전등, 나침반, 지도, 통번역, 정보 확인, 구조 신호 보내기 등 사실상 스마트폰은 재난 대응을 위한 만능 자산이다. 나는 만약을 위해 해외 출장 때 예비폰까지 가져가곤 한다.

私たちの持ち物の中で、災害安全のためにたった一つだけ選べと言われたら、文句なしに「スマートフォン」だ。災害が起きたとき、人々が最もつらいのは家族の安否が確認できないことだ。安否確認のほかにも、ライト、コンパス、地図、通訳・翻訳、情報収集、救助信号の発信など、スマートフォンは事実上、災害対応のための万能資産である。私は万一に備えて、海外出張の際にはサブ機(予備のスマホ)まで持っていくことにしている。

❻ 물티슈 ウェットティッシュ



모든 물품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이 가장 무거운 역할을 한다. 출력된 가족사진 한 장. 세상이 멈췄을 땐 지갑 속 종이 사진 한 장이 어떤 것보다도 위로가 된다. 가장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도 의지를 잃지 않게 하며 살아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상기시킨다. 사진 뒤에 이름, 비상 연락처, 혈액형, 복용약 등을 적어두면 비상시 신분증 역할도 할 수 있다.

すべての持ち物の中で、最も軽い物が最も重い役割を果たす。プリントされた家族写真一枚。世界がすべて止まっても、財布の中の紙の写真一枚が何よりも慰めになる。極限のストレス状況の中でも意志を失わず、自分が帰るべき理由を思い出させてくれる。写真の裏に名前、緊急連絡先、血液型、服用している薬などを書いておけば、非常時のIDカードの役割も果たせる。

❼ 가족사진 家族写真



당신이나 나 같은 워커홀릭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아이템이다. EDC에 어울리지 않게 부피와 무게가 있지만 사실 어떠한 경우에도 들고 다닐 것이라는 걸 안다. 비단 업무를 이어가는 것뿐 아니라, 노트북은 그 자체로 재난 상황에서 큰 보조 배터리가 된다. 또한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영화 몇 편, 음악 몇 곡은 훌륭한 디지털 신경 안정제가 될 수 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즐길 수 있다.

あなたや私のようなワーカホリックのために特別に用意したアイテム。EDCらしからぬ体積と重さだが、実際、これを持たずに出かけることはありえない。ところが、仕事を続けられるだけでなく、ノートパソコン自体が災害時にはそのまま大容量のモバイルバッテリーになる。また、パソコンに保存してある映画や音楽は、優れた「デジタル精神安定剤」になり得る。隣にいる人たちと一緒に楽しむこともできる。

❽ 마지막으로 챙길 것 最後のアイテム



마지막으로 챙기면 좋은 것은 '물건'이 아니라 '협동'이다. 안전을 위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많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설령 가져갔다 하더라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운 없게 두고 나왔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같이 쓰면 된다. '너희의 물건은 다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해지도록 하자.

最後に備えておきたいのは「物」ではなく「仲間」。安全のために持ち歩く物は多いに越したことはないが、いつも準備できるとは限らない。たとえ旅先に持って行ったとしても、災害が起きたとき、運悪く部屋に置いてくるかもしれない。すべて自分が持っていなくても、他の人の物を一緒に使えばいい。「君たちの物は全部私の物」というオーナーシップを持って、まんべんなくみんなと仲良くなっておこう。

환대와 연대의
튀르키예어

16

歓待と連帯の
トルコ語

Turkish for Hospitality and Solidarity

TOUR GUIDE



ALEYNA YILMAZ
일마즈 알레이나 ♥
ユルマズ・アレイナ

부모님의 영향으로 한국과 튀르키예 두 문화를 경험하며 성장했다. 2026년 대한민국 청(소)년 기후변화 컨퍼런스 LCOY Korea에서 활동했다. 언어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며, 두 문화 사이에서 배운 것을 더 넓은 세상과 나누고자 한다.

両親の影響で、韓国とトルコという二つの文化に触れながら育った。2026年には韓国の青少年気候変動会議「LCOY Korea」で活動した。言語は人と人をつなぐ架け橋になると信じ、二つの文化の間で学んだことを、より広い世界へ伝え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る。

튀르키예어로 손님을 뜻하는 '미사피르(Misafir)'는
아랍어 '여행자(رفاسم)'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길 위에 있는 사람,
어딘가에서 와서 잠시 이 자리에 깃드는 사람을
의미하지요. 각자의 언어와 각자의 현장을
등에 지고 하나의 위기 앞에서 잠시 같은 자리에
모인 사람들인 우리는 오랜 세월
만남의 땅이었던 튀르키예로 모입니다.
동과 서가 교차하고 언어와 언어가 부딪치고
가운데 차 한잔을 두고 대화가 이어지던 곳.
손님을 사랑하는 땅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는 이미 차이(Çay)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トルコ語で客人を意味するは、Misafir
アラビア語の「旅人」に由来する言葉です。
とどまる人ではなく、道の上にいる人、
どこかからやって来て、しばしこの場所に身を
寄せる人を意味しています。それぞれの言語と
それぞれの現場を背に負い、同じ危機を
前にしてしばし私たちが集うところは、
長きにわたり「出会いの地」であったトルコです。
東と西が交差し、言語と言語がぶつかり合い、
それでも一杯のお茶を挟んで対話が続いてきた場所。客人を愛する土地が、再び扉を開きました。皆さんの席には、すでにチャイ(Çay)が
用意されているでしょう。

메르하바
Merhaba,
メルハバ

나슬스느즈
Nasılsınız?
ナスルスヌズ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로 상대방의 안녕을 묻는 질문이에요. 튀르키예에서도 높임말을 쓰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나슬스느즈’를 사용하지만 친분이 있다면 가볍게 ‘나슬슨’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답니다.
「こんにちは、お元気ですか?」最も基本的な挨拶で、相手の安否を尋ねる表現になります。トルコ語には敬語の形式があるため、フォーマルな場ではナスルスヌズを使い、気軽な間柄ですでに顔見知りの友人であればナスルスンに言い換えることもできます。

호시차칼른
Hoşçakalın
ホシュチャカルン

귈레 귈레
Güle güle
ギュレ ギュレ

“잘 있어.” / “잘 가.” 헤어질 때 상대의 행운을 빌어주는 인사예요. 남아 있는 사람에는 ‘호시차칼른’, 떠나는 사람에게는 ‘귈레 귈레’라고 인사하면 됩니다.
「さようなら」。別れるときに相手の幸運を祈る挨拶です。残る人にはホシュチャカルン「お元気でいてください」を、去る人にはギュレギュレ「行ってらっしゃい」と挨拶しましょう。

차이 이스테르 미시느즈
Çay ister misiniz?
チャイ イステル ミシニズ

“차 한잔 드실래요?” 이 한마디로 환대의 뜻을 전한다면 거절보다는 ‘좋습니다’라는 뜻의 ‘귀젤’이라고 답해보세요. 차 대신 물을 달라고 하고 싶다면 ‘수 뤼트펜’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お茶を一杯いかがですか?」この一言で歓待してくれたら、断るよりもギュゼル「いいですね」、あるいはお茶の代わりにス・リュトフェン「お水を下さい」と答えてみてください。

테셰퀴레데림
Teşekküederim
テシェッキュル・エデリム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의 있게 사용할 수 있어 여행 중 가장 자주 쓰는 표현 중 하나가 될 거예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感謝を表すときに使う最も一般的な表現です。誰に対しても礼儀正しく使えるので、旅の中で最もよく使う表現の一つになると思います。

베리르 미시느즈
_____ verir misiniz?
ヴェリル ミシニズ

“~를 주시겠어요?” 뭔가를 달라고 할 때 쓰는 정중한 표현이에요. 주문을 하거나 부탁을 할 때 사용하면 매너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をいただけますか?」という丁寧な表現です。注文をするときやお願いをするときに使うと、礼儀正しい印象を与えることができます。

야샴 사부누주수
Yaşam savunucusu
ヤシャム サヴヌジュス

“생명의 수호자.” 튀르키예의 많은 환경 활동가는 스스로를 ‘환경 운동가’라고 부르는 대신 ‘생명의 수호자’라고 불러요. 그들의 투쟁이 자연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물, 토양, 문화, 인권을 함께 지키는 것이라는 의미를 포괄하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죠.
「命の守り手」。トルコの多くの環境活動家は、自らを「環境運動家」と呼ぶ代わりに「命の守り手」と名乗っています。この選択は、彼らの闘いが自然だけを守るのではなく、水、土壌、文化、人権を共に守ることを意味する、包括的な言葉だからです。

야 헵 베라베르 야
Ya hep beraber ya
ヤ ヘップ ベラベル ヤ

히치비리미즈
hiçbirimiz
ヒチビリミズ

“모두 함께이거나 우리 중 아무도 아니거나.” 기후정의에서 연대의 정신을 강조하는 강력한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위 현장에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みんな一緒か、それとも全滅か」。気候正義における連帯の精神を強調する力強い表現です。多くの人が集まる集会やデモで耳にす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예실 게치시 아딜 게치시
Yeşil geçiş, adil geçiş
イェシル ゲチシュ アディル ゲチシュ

올마단 올마즈
olmadan olmaz
オルマダン オルマズ

“녹색 전환은 정의로운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 녹색 전환이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구호예요.
「グリーン・トランジションは、公正な転換なしにはあり得ない」。緑の転換が労働者や地域コミュニティを犠牲にするやり方ではダメだという、重要なスローガンです。

데프렘 데일
Deprem değil,
デプレム デイル

이흐말 욀뒤뤼르
ihmal öldürür
イフマル オェルドゥルゥル

“지진이 아니라 방치가 죽인다.” 2023년 2월 6일 대지진 이후 튀르키예에서 널리 퍼진 구호예요. 재난은 자연이 일으키지만 그 피해의 규모는 사람이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기후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것이 정말 자연의 일이었는가?” 하고요.
「地震ではなく、放置(怠慢)が人を殺す」。2023年2月6日の大地震以降、トルコで広く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スローガンです。災害は自然が引き起こすものですが、その被害の大きさは人間が決めるという意味です。気候危機を前にしても、私たちは同じ問いを投げかけ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これは本当に自然の出来事だったのか」と。

제이티니메
Zeytinime
ゼイティニメ

도쿤마!
dokunma!
ドクンマ

“내 올리브에 손대지 마!”라는 뜻으로, 화력발전소에 석탄을 공급하기 위한 광산 개발에 맞서 아크발렌의 숲과 올리브 밭을 지키기 위해 외친 구호입니다. 지역의 농촌 여성들이 권력에 맞서 가장 앞줄에서 저항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튀르키예 생태 운동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私のオリーブに手を出すな!」という意味で、火力発電所に石炭を供給するための鉱山開発に対抗し、アクベレンの森とオリーブ畑を守るために叫ばれたスローガンです。地域の農村の女性たちやおばあさんたちが、権力に立ち向かう最前線で運動を率いたという点で、トルコの環境運動における象徴的な場面として記憶されています。

카즈마 부라크
Kazma Bırak!
カズマ カズ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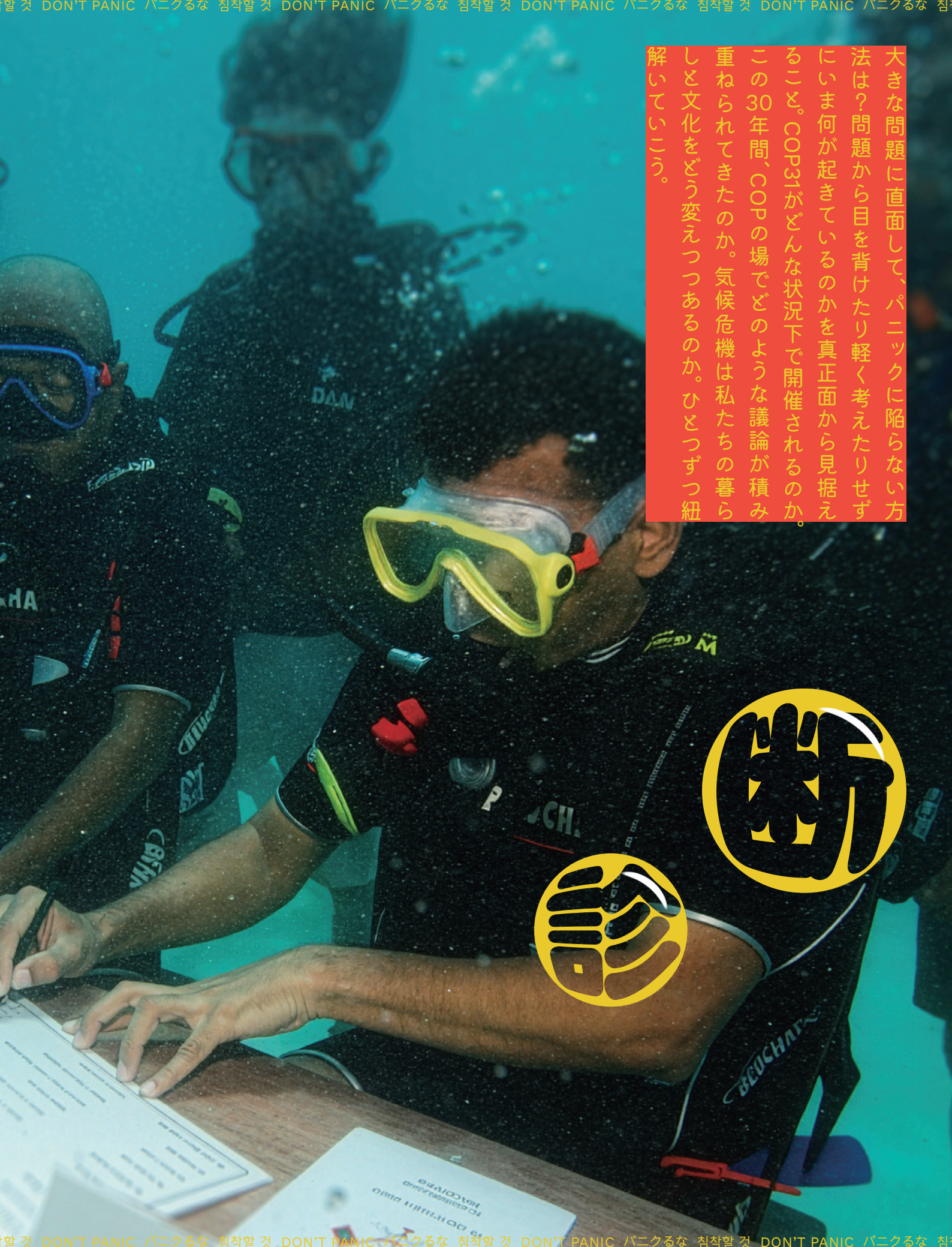
“삽을 내려놔라!” 안탈리아가 면한 동지중해와 흑해 해저를 파고드는 화석연료 채굴에 저항하는 구호입니다. 키프로스, 그리스, 튀르키예 등 때로는 갈등을 빚어온 나라들이 같은 바다 앞에서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지중해를 자원의 창고로 보지 말라는 단호한 선언이지요.
「シャベルを置け!」。アンタルヤが面する東地中海と黒海の海底を掘り進める化石燃料採掘に対抗して生まれたスローガンです。キプロス、ギリシャ、トルコ、時に対立を重ねてきた国々が、同じ海を前に同じスローガンを叫びました。地中海を資源の倉庫と見なすなという、断固たる宣言です。

커다란 문제 앞에서 패닉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문제를 회피하거나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똑바로 마주하는 것이다. COP31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열리는지, 30년 동안 COP에서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기후위기가 우리 삶과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자.



진

단



大きな問題に直面して、パニックに陥らない方法は？問題から目を背けたり軽く考えたりせずにいま何が起きているのかを真正面から見据えること。COP31がどんな状況下で開催されるのか。この30年間、COPの場でどのような議論が積み重ねられてきたのか。気候危機は私たちの暮らしと文化をどう変えつつあるのか。ひとつずつ紐解いていこう。



photo © Ádám Berkecz

글쓴이
이수민

執筆
イ・スミン

20

초심자를 위한 初心者のための 인수인계서 C 引継ぎノート

이수민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유엔기후변화협약
감축의제 협상에 참여하며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탄소시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룬 다섯 가지는
실제로 협상장에 처음
들어가는 후배가 있다면
건네주고 싶었던 내용이다.
회의장 안의 논의를 회의장
밖의 언어로 옮기는 일에
관심이 많다.

イ・スミン
韓国エネルギー経済研究
院・気候変動政策研究室
の研究委員。国連気候変
動枠組条約(UNFCCC)
の緩和議題の交渉に参
加し、韓国の温室効果ガ
ス削減政策とカーボン
マーケットに関する研究
を行っている。本稿に書
かれた五つの項目は、実
際に交渉の場に初めて入
る後輩がいたら手渡した
いと思っていた内容。会
議場の中で行われる議
論を会議場の外の言葉
に置き換える仕事に仕事
にとても興味がある。

21

P 削減作業計画(MWP)を中心に 31

이 글은 일종의 인수인계 문서다. 튀르키예 출장을 준비하는 동안 "올해는 감축작업프로그램(mitigation work programme, MWP)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을 텐데, 정작 그게 무슨 의미인지 차분히 설명해줄 시간은 서로 없었을 것이다. 사정이 생겨 내가 협상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대신 들어가는 사람이 최소한 길을 잃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문서를 남긴다. 1995년 제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부터 이어져온 협상의 역사, 그 안에 쌓인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긴장을 하루아침에 이해할 필요는 없다. 우선 다섯 가지만 챙기고 들어가자. 나머지는 천천히 봐도 늦지 않다.

この文書は、いわば引き継ぎ文書である。トルコ出張の準備をする間、「今年はMWPが重要だ」という話を何度も耳にしているはず。しかしそれが何なのかをゆっくり説明する時間は、お互いになかっただろう。事情ができて、私が交渉の場に入れなくなった場合、代わりに入る人が少なくとも道に迷わないでほしいという思いで、この文書を残す。1995年、京都で行われた第1回国連気候変動枠組条約締約国会議(COP)から続いてきた交渉の歴史、そこに積み重なった先進国と途上国の間の緊張を、一朝一夕に理解しようとする必要はない。まずは五つだけ押さえて入ろう。残りはゆっくり見ても遅くない。

감축작업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나, 왜 하필 MWP인가

MWP는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만들어졌다. 2030년까지❶의 결정적 시기에 감축 의욕을 높이고 실제 이행을 끌어올리자는 취지로, 매년 글로벌 대화체와 투자 중심 행사를 연다. 언뜻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보이지만, 올해는 위상이 다르다. 파리협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은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주요 절차라서, 해마다 감축의 세부 쟁점을 붙잡고 논의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다. 지금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안에서 감축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창구는 사실상 MWP 하나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동안 MWP가 해온 일을 짚어보면, 이 프로그램은 부문별 감축 기술이나 정의로운 전환, 도시와 에너지 시스템 같은 주제를 놓고 각국의 경험과 이행 장벽, 협력 가능성을 나누는 자리로 기능했다.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COP27 이후 운영 방식이 구체화되었고, 해마다 논의 결과가 문서로 조금씩 쌓여왔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작년 브라질 벨렝에서의의 COP30을 떠올려보자.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은 결정문에 담기지 못한 채 의장국이 주도하는 자발적 이니셔티브로 밀려났고, GST 후속 논의도 별도 트랙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감축의 수준을 결정하던 지렛대들이 하나둘 힘을 잃으면서, 그간 큰 관심을 받지 못하던 MWP의 향방이 어느새 올해 협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국제 정세도 가세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미국은 파리협정을 다시 떠났다. 감축을 강하게 견인해온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비용 상승과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부담을 함께 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으로 공급망이 나뉘면서 다자주의의 기반도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올해 초 호르무즈 위기까지 겹치자 에너지 안보는 각국의 최우선 의제로 올라섰다. 이 네 요인이 겹치면서, 최근의 기후 협상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표면 아래 에너지 안보와 산업 정책, 무역 질서가 뒤엉킨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 감축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나 그것을 밀어붙일 정치적 여력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에서 COP31이 열리는 셈이다. 그래서 MWP의 향방이 어떻게 정리되느냐는 프로그램의 연장 문제를 넘어, 앞으로 감축 논의를 이어갈 거의 유일한 통로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되었다.

둘, MWP는 압박 장치인가, 대화 공간인가

이 지점에서 협상 전략이 갈린다. 한쪽은 MWP가 GST 결과와 과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각국의 감축목표 이행을 실제로 끌어당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른 한쪽은 MWP가 원래 위임받은 대로 비규범적이고 비징벌적이며 촉진적인 성격을 지켜야 한다고 본다. 이 대립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❷이라는 원칙을 세웠고,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지웠다. 그러다 2010년 칸쿤 합의를 지나며 각국이

一、なぜ、よりによってMWPなのか

緩和作業計画(Mitigation Work Programme)、略してMWPは、2021年に英国グラスゴーで開かれたCOP26で策定された。2030年までという❶決定的な時期に削減意欲を高め、実際の履行を促進させるという趣旨で、毎年グローバル対話と投資中心のイベントを開催している。一見すると数多あるプログラムの一つに見えるが、今年は位置づけが違う。パリ協定の実施状況を点検するグローバル・ストックテイク(GST)は5年に一度巡ってくる大きな手続きであり、毎年、削減の細かな争点を取り上げて議論できる道具ではない。現在、UNFCCCの中で削減を定期的に議論できる窓口は、事実上MWPただ一つだと言っても差し支えない。

これまでMWPが担ってきた仕事を振り返ると、部門別の削減技術や公正な移行、都市やエネルギーシステムといったテーマをめぐり、各国の経験や実施上の障壁、協力の可能性を話し合う場であった。エジプトのシャルム・エル・シェイクで開かれたCOP27以降、運営方式が具体化され、毎年の議論の成果が文書として少しずつ積み重ねられてきた。この会議は確かに世間の耳目が集まる場ではなかった。しかし、昨年ブラジル・ベレンのCOP30を思い出してほしい。化石燃料移行ロードマップは決定文に盛り込まれないまま、議長国が主導する自発的イニシアティブへと押しやられ、GSTのフォローアップの議論も別トラックへと移された。削減の水準を決定してきたテコが一つ、また一つ二つと力を失う中で、それまで大きな関心を集めてこなかったMWPの行方が、いつの間にか今年の交渉の核心として浮上したのである。

ここに国際情勢が重なる。史上最も多くの温室効果ガスを排出してきた米国は、再びパリ協定を離脱した。削減を強く牽引してきた欧州は、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以降、エネルギーコストの上昇と産業競争力の低下という負担を同時に背負っている。米中の戦略的競争によりサプライチェーンが分断され、多国間主義の基盤も揺らいでいる。今年の頭に起きたホルムズ危機まで重なると、エネルギー安全保障は各国の最優先課題に躍り出た。この四つの流れが重なり合う中で、近年の気候交渉は、温室効果ガス削減という表面の下で、エネルギー安全保障と産業政策、貿易秩序が絡み合う闘いへと変わりつつある。削減の必要性はかつてないほど明白なのに、それを押し進める政治的余力はむしろ縮小した状況で、COP31が開かれるわけである。したがって、MWPの行方がどう整理されるかは、一つのプログラムの延長の問題を超えて、今後の削減議論を続けていくほぼ唯一の窓口が残るのか、という問いになっている。

二、MWPは圧力装置か、対話の場か

この点で交渉の戦略が分かれる。一方は、MWPがGSTの成

❶ 편집자 주: 2030년은 UNFCCC 각 당사국이 제출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의 첫 마감 시점이다. 한국에서 NDC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명명, 규율된다. 편의상 기후목표 또는 감축목표라고 불리기도 한다.

❶ 2030年は、UNFCCC(国連気候変動枠組条約)の各締約国が提出した気候変動対応のための「国が決定する貢献(NDC)」の最初の期限である。韓国においてNDCは、「気候危機対応のための炭素中立・緑色成長基本法」により、「中長期国家温室効果ガス削減目標」と命名され、規定されている。便宜上、気候目標や削減目標と呼んでも意味は通じる。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국제 사회는 이를 검토하는 상향식 구조로 넘어왔다. '목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달성하지 못해도 처벌은 없다.' 파리협정도 이 틀을 물려받았다. 특정 감축 경로를 MWP 공식 문서에 못 박기 어려운 것은 이런 맥락 때문이다.

대립이 첨예한 이유는 '실질화'라는 말이 모두에게 같은 의미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감축 이행을 돕는 실용적인 조언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국내 정책에 대한 외부 간섭이 된다. 특정 부문의 감축 경로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MWP 공식 문서에 담자는 제안이, 일부 개도국에서 새로운 감축 기준을 슬며시 만들려는 시도로 읽히는 이유다. 한번 문서에 들어간 표현은 쉽게 다음 협상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도 다들 경험으로 안다. COP28에서 화석연료 '폐지' 대신 '전환(transition away)'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겨우 합의를 이루었지만 그 표현 하나를 두고 지금까지 해석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런 긴장은 지난 6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64차 부속기구회의(SB64)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당사국들은 MWP의 지속 여부와 운영 개선, GST와의 연계, 문서화 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MWP를 계속 끌고가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그 형식과 강도를 두고는 온도 차가 여전히 컸던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감축 이행을 돕는 실용적인 조언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국내 정책에 대한 외부 간섭이 된다.

ある者にとっては緩和の実施を助ける実用的な助言が、
別の者にとっては国内政策への外部からの介入となる。

셋, 협상 그룹들은 왜 서로 다른 말을 하는가

협상장에서 각국은 개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처한 현실이 비슷한 나라들이 그룹을 이뤄 발언하고, 의장도 개별 국가보다 그룹 대표에게 먼저 발언권을 준다. 누가 어느 그룹의 이름으로 말문을 여는지 살펴보면 판을 읽기 쉬워진다. 다음 쪽에 적힌 이름들이 나오면 대체로 표에 정리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은 각자가 처한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다. 생존이 걸린 섬나라, 발전과 빈곤 해소가 시급한 나라, 화석연료 수출에 경제를

❷ 편집자 주: 국제 환경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서로 다른 의무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모든 국가가 환경을 보호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과거에 환경을 오염시킨 역사적 책임과 환경 문제 해결에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적·기술적 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게 국제적 의무를 나누어 부여하는 것이다.

❷ 編注:共通だが差異ある責任(CBDR)とは、国際的な環境交渉において、先進国と途上国に異なる義務の基準を適用する仕組みを指す。すべての国が環境を守る共通の責任を負うと認めたうえで、過去に環境を汚染してきた歴史的責任の重さや、問題の解決に動員できる経済的・技術的な能力に差があることを踏まえ、各国の事情に応じて国際的な義務に差異を置いて負わせるという考え方である。

果と科学的評価に基づき、各国の削減の実施を実際に引き寄せる空間になるべきだと考える。もう一方は、MWPが本来付託されたとおり、非規範的・非懲罰的で促進的な性格を守るべきだと考える。この対立の根は、思いのほか深い。1992年の気候変動枠組条約は「共通だが差異ある責任(CBDR)」❷という原則を打ち立て、京都議定書は先進国のみに削減義務を課した。その後、2010年のカンクン合意を経て、各国が自ら目標を定め、国際社会がそれをレビューするボトムアップ型の構造へと移行した。目標は交渉の対象ではなく、達成できなくてもペナルティはない。パリ協定もこの枠組みを受け継いでいる。特定の緩和経路をMWPの公式文書に明記しにくいのは、こうした流れがあったからである。

対立が先鋭化する理由は、「実質化」という言葉が、すべての人に同じ意味で聞こえるわけではないからだ。ある者にとっては緩和の実施を助ける実用的な助言が、別の者にとっては国内政策への外部からの介入となる。特定部門の緩和経路や具体的な政策の方向性をMWPの公式文書に盛り込もうという提案が、一部の途上国には、新たな削減基準を密かに作ろうとする試みと読まれる理由である。一度文書に入った表現が次の交渉の基準点になりやすいことも、誰もが経験から知っている。COP28では化石燃料の「廃止」ではなく「移行(transition away)」という表現でようやく決着がついたものの、その表現一つをめぐって今なお解釈の争いが続いているという事実も、これをよく物語っている。こうした緊張は、この6月にドイツ・ボンで開かれた第64回補助機関会合(SB64)でもそのまま表れた。締約国はMWPの存続の可否と運営改善、GSTとの連携、文書化の方式をめぐって議論したが、最後まで合意には至らなかった。MWPを続けていくべきだという点には概ね共感しつつも、その形式と強度をめぐる温度差は依然として大きい。

三、交渉グループはなぜ互いに違うことを言うのか

交渉の場で国々は単独では動かない。置かれた現実が似ている国々がグループを組んで発言し、議長も個別の国よりグループ代表に先に発言権を与える。誰がどのグループの名で口火を切るのかを見れば、局面が読みやすくなる。以下の名前が出てきたら、おおむねこういう話をしていると考えてよい。同じ案件をめぐってこれほど違う言葉が出てくるのは、それぞれが置か

유럽연합 欧州連合 (European Union, EU)	GST 결과에 기반한 실질적인 감축 신호가 필요하다. 2030년 이전의 감축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남은 공간이 MWP라고 본다.	GSTの成果に基づく実質的な削減シグナルが必要だ。2030年以前の削減ギャップを埋められる残された空間がMWPと考えている。
군소도서국연합 小島嶼国連合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AOSIS) ❸	해수면 상승과 기후재난이 국가의 존속과 직결되는 나라들이다. 1.5˚C 목표에 부합하는 강력한 감축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海面上昇と気候災害が国家の存続に直結する国々である。1.5˚C目標に整合する強い削減の議論が続けられるべきだ。
최빈개도국 後発開発途上国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	감축 논의가 재원과 기술, 역량 지원과 함께 다뤄져야 한다. 감축 요구는 쌓이는데 지원 논의는 늘 뒤로 밀린다.	削減の議論は資金・技術・能力構築支援とともに扱われるべきだと考える。削減の要求は積み上がるのに、支援の議論はいつも後回しにされるという不満が根底にある。
환경건전성그룹 環境十全性グループ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한국과 스위스, 멕시코 등이 속한 그룹. 운영 개선을 전제로 MWP를 지속하자. 양쪽 사이를 잇는 절충적 입장.	韓国、スイス、メキシコなどが属するグループ。運営改善を前提にMWPを継続しようという、両者の間をつなぐ折衷的な立場。
일본 日本 ❹	각국의 NDC 이행을 지원하는 기능과 국제사회에 더 적극적인 감축 신호를 보내는 기능이 모두 필요. MWP를 새로운 의무 부과 장치로 만들기보다 이행을 촉진하는 장으로 개선하자.	各国のNDC実施を支援する機能と、国際社会により積極的な削減シグナルを送る機能の両方が必要だと考える。MWPを新たな義務賦課の装置にするよりも、実施を促進する空間として改善しよう。
강성개도국 同志途上国グループ (like-minded developing countries, LMDC)	국가주권과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CBDR)'이 먼저이며, 우회로를 통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인도처럼 배출 규모가 큰 나라들이 포진해 있어 발언권이 세다.	国家主権とCBDR原則が第一であり、迂回路を用いて新たな義務を課してはならないと考える。中国やインドのように排出規模の大きな国が名を連ねており、発言力が強い。
아랍그룹 アラブグループ (Arab Group)	화석연료를 특정해 감축 경로를 설정하려는 논의를 강하게 경계한다. 산유국 경제의 기반이 화석연료에 있기 때문이다.	化石燃料を対象として削減経路を策定しようとする議論を強く警戒する。産油国経済の基盤が化石燃料にあるためである。
아프리카협상그룹 アフリカグループ (African group of negotiators, AGN)	감축은 개발권과 적응, 재원 지원과 분리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감축의 필요성을 부정한다기보다 부담과 지원의 배분을 묻는 쪽이다.	削減は発展の権利や適応、資金支援と切り離せないと考える。削減の必要性を否定しているのではなく、負担と支援の配分を問う側である。

의존하는 나라, 산업 경쟁력과 기술 주도권을 고민하는 나라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다. MWP 논의는 이들의 서로 다른 현실이 부딪치는 자리다.

넷, 한국은 어디에 서 있나

한국은 MWP의 지속과 개선을 지지하되, 비규범·비징벌적이라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쪽에 가깝다. 'MWP 2.0'이라 부르는 이 구상의 핵심은 MWP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굴리는 데 있지 않다. 진짜 목표는 MWP가 실제 감축 이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GST 결과와의 연계, 과학에 기반한 주제 선정, 각국의 이행 경험 공유, 재원과 기술 협력을 한데 엮어보자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는 협상 정치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감축 속도를 높이자고 밀어붙이다 개도국의 반발로 협상 전체가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고, 반대로 각국의 자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MWP는 결과 없이 반복되는 대화체로 남는다. 한국이 찾으려는 접점은 이 두 위험 사이 어딘가에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화석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기대는 실정이기에, 감축 방향은 분명히 하더라도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 구조를 함께 살필 수밖에 없다. 선진국도 개도국도 아닌 위치가 답답할 때도 있지만, 양쪽의 사정을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협상단의 오래된 강점이기도 하다.

다섯, 에너지 안보와 감축은 대립하는가

다시 국제 정세로 돌아가보자. 호르무즈 위기 이후 에너지 안보가 각국의 우선순위로 떠오르면서 감축을 논의할 정치적 공간은 단기적으로 좁아졌다. 산유국의 방어 논리는 강해졌고, 에너지 가격과 물가 불안은 각국 정부의 정책 여지와 기후 재원 이행 동력을 함께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길게 보면 다른 그림도 보인다. 수입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구조의 취약성이 이번 위기로 다시 확인되면서,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곧 에너지 안보 전략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안보가 강조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오히려 더 분명해지는 국면이다. 에너지 안보와 감축은 반드시 대립하는 의제라기보다, 조건에 따라 다시 만날 수 있는 사안이다.

결국 올해의 협상 과제는 감축목표를 더 높이라고 요구하는 데에만 있지 않다. 감축의 필요성은 이미 분명하다. 그 필요성을 이행으로 옮길 통로를 지키는 일, 그게 MWP가 올해 협상의 중심에 놓인 이유다. 물론 COP31이 다루는 의제는 감축만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의제를 한 번에 따라가며 이해하기는 어렵다. 협상장을 처음 찾는 당신에게, 올해는 우선 MWP의 향방에 집중해보기를 권한다.

❸ 태평양 여러 국가들은 자신들을 '작은 섬나라'가 아닌 '광대한 해양 국가(Large Ocean States)'로 바라봐달라고 이야기해 왔다. 육지 면적만으로는 이들 국가가 살아가는 바다와 그곳에 깃든 삶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❸ 太平洋の島嶼国の人々は、自分たちを「小さな島国」ではなく、「広大な海洋国家(Large Ocean States)」として捉えてほしいと訴えてきた。陸地の面積だけでは、彼らが暮らす海と、そこに根づく営みを十分に語ることはできないからだ。

れた現実が異なるからだ。生存がかかった島国、発展と貧困解消が急務の国、化石燃料の輸出に経済を依存する国、産業競争力と技術の主導権に頭を悩ませる国が、同じテーブルに着いている。MWPの議論は、この異なる現実がぶつかり合う場なのである。

四、韓国はどこに立っているのか

韓国は、MWPの継続と改善を支持しつつも、非規範的・非懲罰的な原則は守られるべきだという側に近い。「MWP 2.0」と呼ぶこの構想の核心は、MWPをもう少し効率的に回すことにあるのではない。真の目標は、MWPが実際の削減の実施に役立つ方向で機能するようにすることである。GSTの成果との連携、科学に基づくテーマ選定、各国の実施経験の共有、資金と技術協力を一つに束ねてみようというものだ。この立場には、交渉政治の現実が反映されている。削減のスピードを上げようと押し進めた結果、途上国の反発で交渉全体が止まってしまえば何の意味もなく、逆に各国の自律性ばかりを強調すれば、MWPは成果のないまま繰り返される対話の場にとどまる。韓国が探ろうとしている接点は、この二つのリスクの間のどこかにある。製造業の比重が高く、化石燃料の大部分を輸入に頼る国であるがゆえに、削減の方向性は明確にしつつも、実施を可能にする協力の構造をあわせて検討せざるを得ない。先進国でも途上国でもない立ち位置がもどかしいときもあるが、双方の事情をともに理解できるということは、韓国交渉団の長年の強みでもある。

五、エネルギー安全保障と緩和は対立するのか

再び国際情勢に戻ろう。ホルムズ危機以降、エネルギー安全保障が各国の優先順位として浮上し、削減を議論する政治的空間は短期的には狭まった。産油国の防御の論理は強まり、エネルギー価格と物価の不安は、各国政府の政策の余地と気候資金の実施動力をともに制約している。しかし、少し長い目で見れば、別の絵も見えてくる。輸入化石燃料に依存する構造の脆弱性が今回の危機で改めて確認されたことで、クリーンエネルギーへの投資こそがエネルギー安全保障戦略だという認識が広がりつつある。短期的には化石燃料による安全保障が強調されるが、長期的にはエネルギー転換の必要性がむしろいっそう明確になる局面である。エネルギー安全保障と緩和は必ずしも対立する議題ではなく、条件次第で再び交われる案件なのだ。

結局、今年の削減交渉の課題は、削減目標をさらに引き上げよと要求することだけにあるのではない。削減の必要性はすでに十分明白である。その必要性を実施へと移す通路を守ること——それが、MWPが今年の交渉の中心に立つ理由である。

❹ 일본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캐나다 등과 함께 엄브렐라 그룹(Umbrella Group)에 속한다. 이 그룹은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형성된 비EU 선진국들의 느슨한 협상 연합으로, 단일한 입장을 내기보다 사안별로 공조하는 성격이 강하다. MWP 논의에서 일본은 주로 개별 국가 자격으로 발언해왔기에 본문에서도 별도 항목으로 소개했다.

❹ 日本はオーストラリア、ニュージーランド、ノルウェー、カナダ等とともに、「アンブレラ・グループ(Umbrella Group)」に属している。京都議定書の採択以降に形成された非EU先進国による緩やかな交渉グループであり、統一した立場を示すというよりは、案件ごとに足並みをそろえる性格が強い。MWPの議論において、日本は主に一国として発言してきたため、本文では独立した項目として取り上げた。



photo © Bernd Dittrich

글쓴이
다케다 준

執筆
武田淳

26

귤나무는 발이 없으니까
柑橘の木には足がないから



다케다 준
공립대학법인 시즈오카 문화예술대학 준교수. '커피와 기후변화'를 문화인류학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최근 저서로 『커피 2050년 문제(コーヒー2050年問題)』가 있다.

武田淳
公立大学法人静岡文化芸術大学准教授。「コーヒーと気候変動」を文化人類学の視点から研究している。近著『コーヒー2050年問題』が発売中。

겨울이 되면 귤이 먹고 싶어진다

요즘은 고타쓰(일본 전통 좌식 온열 탁상)가 있는 가정이 줄었지만, 그래도 '겨울과 귤'의 조합은 일본인에게 특별하다. 귤을 한 박스 사 와서 가족끼리 나누어 먹는다. 껍질을 까면 달콤한 향이 퍼지고, 그 향과 함께 겨울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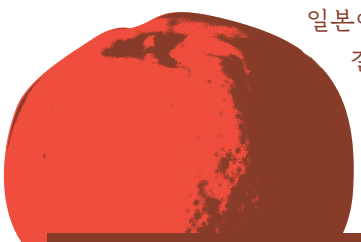
한국에서도 귤은 친숙한 과일이다. 다만 일본의 '겨울과 귤' 같은 조합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 사람은 감귤이라고 하면 대부분 제주도를 떠올릴 것이다. 제주도의 풍경, 관광, 기념품, 그리고 생활은 오랫동안 감귤 재배와 함께 가꾸어져왔다. 제주도에 가본 사람이라면 감귤밭이나 주황색 열매 모양의 조형물, 공항에 진열된 감귤 과자를 떠올릴지도 모른다.

일본의 귤과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감귤의 주력 품종은 같은 '온주밀감'이다. 2026년 COP31이 열리는 튀르키예에서도 이 과일은 '사쓰마(Satsuma)'라는 이름으로 널리 유통되고 있다. 한 과일이 일본에서는 겨울 식탁을 수놓고, 한국에서는 제주도를 상징하며, 튀르키예에서는 중요한 수출 농산물이 되었다. 같은 온주밀감이면서도 각지에서 서로 다른 풍경과 문화를 길러온 것이다.

우리는 평소 온주밀감을 '겨울이 되면 먹는 과일'로 여기며 무심코 입에 넣는다. 그러나 그것은 기후가 길러낸 과일이기도 하다. 온주밀감은 따뜻한 지역을 좋아하지만, 그저 덥기만 해서 재배가 가능한 건 아니다. 적당한 겨울의 저온, 여름의 일조량, 강수량 등 다양한 자연조건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우리에게 친숙한 빛깔과 향, 단맛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온주밀감의 맛은 그 땅의 기후가 지탱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가 변하면 귤 맛도 변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각지의 귤 산지에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귤은 기후를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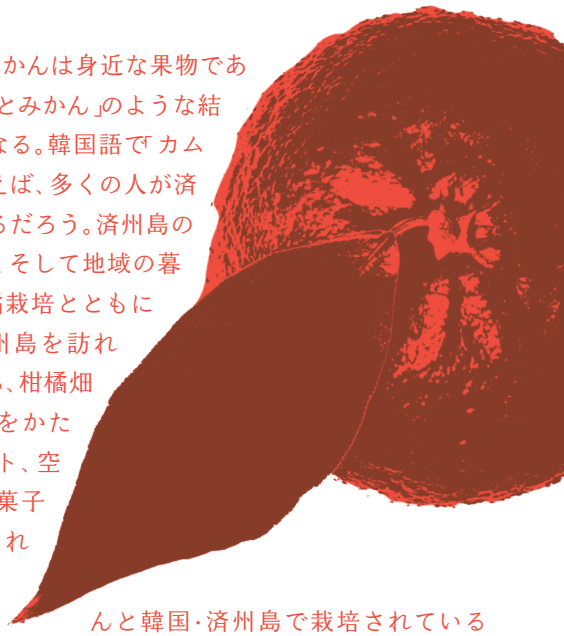
기후변화는 온주밀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먼저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과실 품질 차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여름부터 가을에 걸친 기온 상승으로 과피의 착색 불량이나 '껍질 들뜸'이라 불리는 품질 문제가 각지에서 보고되고

冬になると、みかんを食べたくなる

近年はこたつのある家庭も少なくなったが、それでも「冬とみかん」の組み合わせは、日本人にとって特別なものだろう。箱いっぱいのみかんを買い込み、家族で分け合って食べる。皮をむくと甘い香りが広がり、その香りとともに冬の記憶がよみがえる。



韓国でも、みかんは身近な果物である。ただ、日本の「冬とみかん」のような結びつきとは少し異なる。韓国語で「カムギュル(감귤)」といえば、多くの人が済州島を思い浮かべるだろう。済州島の風景、観光、お土産、そして地域の暮らしは、長らく柑橘栽培とともに育まれてきた。済州島を訪れたことのある人なら、柑橘畑やオレンジ色の実をかたどったモニュメント、空港に並ぶ柑橘のお菓子を思い出すかもしれない。

日本のみかんと韓国・済州島で栽培されているカムギュルの主力品種は、同じ「温州みかん」である。さらに、2026年にCOP31が開催されるトルコでも、この果実は Satsuma(サツマ)」の名で広く流通している。一つの果物が、日本では冬の食卓を彩り、韓国では済州島を象徴し、トルコでは重要な輸出農産物となっている。同じ温州みかんでありながら、それぞれの土地で異なる風景や文化を育んできたのである。

私たちは普段、温州みかんを「冬になると食べる果物」として何気なく口にしている。しかし、それは気候が育てた果物でもある。温州みかんは暖かい地域を好むが、ただ暑ければよいわけではない。冬の適度な低温、夏の日射、降水量など、さまざまな自然条件が重なり合うことで、私たちが親しんできた色や香り、甘さが生まれる。つまり、温州みかんのおいしさは、その土地の気候によって支えられているのである。だからこそ、気候が変われば、みかんの味も変わる。そして今、その変化は、すでに各地のみかん産地で少しずつ現れ始めている。

온주밀감의 맛은 그 땅의 기후가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후가 변하면 귤도 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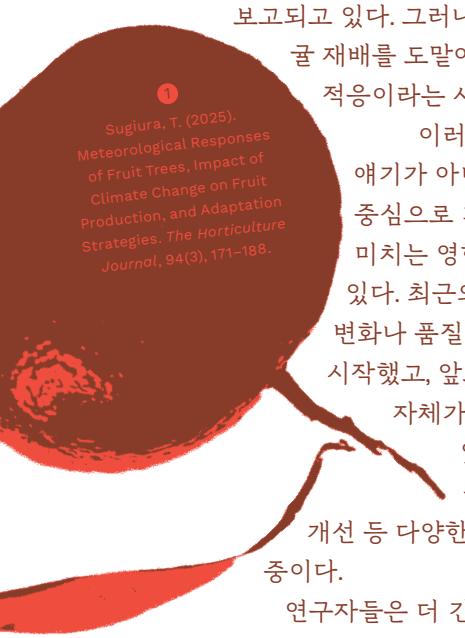
温州みかんのおいしさは、その土地の気候によって
支えられているのである。だからこそ、
気候が変われば、みかんも変わる。

있다.[1] 과실 색이 늦게 들거나 과육과 껍질 사이에 틈이 생기면서 시장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고온은 단맛과 신맛의 균형에도 영향을 주기에 지금까지 사랑받아온 맛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지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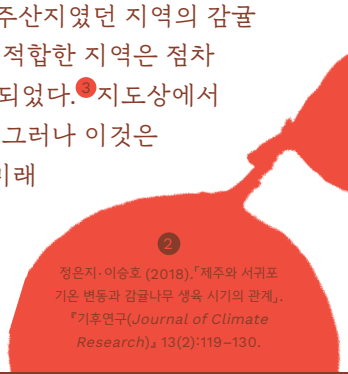
물론 기후변화가 반드시 나쁜 영향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겨울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냉해가 줄어든 지역도 있고, 그동안 재배가 어려웠던 곳에서 온주밀감이 재배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랜 세월 귤 재배를 도맡아온 산지들은 고온에 대한 적응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만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에서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기후변화가 감귤 재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의 기온 상승으로 생육 시기 변화나 품질에 대한 영향이 보고되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재배에 적합한 지역 자체가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2] 제주도에서는 품종 구성 재검토와 재배 기술 개선 등 다양한 적응 대책이 시도되는 중이다.

연구자들은 더 긴 시간축을 두고 이 변화를 들여다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농업·식품산업기술 종합연구기구 등의 연구 그룹이 미래의 기후 조건을 예상해 온주밀감의 재배 적지가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하고 있다. 그 결과, 온난화가 진행되면 지금까지 주산지였던 지역의 감귤 재배 조건이 악화되는 한편, 재배에 적합한 지역은 점차 북쪽으로 이동해 갈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3] 지도상에서 재배 적지는 천천히 북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후 조건으로 그려본 미래 예측일 뿐이다. 현실에서는 산지가 그렇게 간단히 옮겨지지 않는다.



1 Sugiura, T. (2025). Meteorological Responses of Fruit Trees, Impact of Climate Change on Fruit Production, and Adaptation Strategies. *The Horticulture Journal*, 94(3), 171–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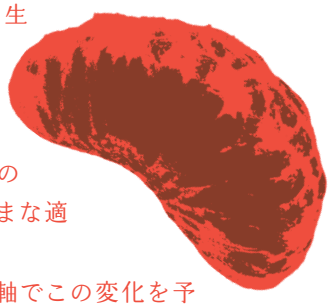
2 정은지·이승호 (2018).「제주와 서귀포 기온 변동과 감귤나무 생육 시기의 관계」. 『기후연구(*Journal of Climate Research*)』 13(2):119–130.

みかんは気候を映す

気候変動は、温州みかん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のだろうか。まず現れているのは、果実の品質の変化である。日本では近年、夏から秋にかけての気温上昇によって、果皮の着色不良や「浮皮(うきかわ)」と呼ばれる品質障害が各地で報告されている。[1] 果実の色づきが遅れたり、果肉と果皮の間に隙間ができたりすることで、市場価値が低下する場合もある。また、高温は糖や酸のバランスにも影響を及ぼし、これまで親しまれてきた味わいを変えてしまう可能性も指摘されている。

もちろん、気候変動は必ずしも悪い影響だけをもたらすわけではない。冬の寒さが和らぐことで凍害が減少した地域もあり、これまで栽培が難しかった場所で温州みかんが育つようになった例も報告されている。しかしその一方で、長年みかん栽培を支えてきた産地では、高温への適応という新たな課題に直面している。

こうした変化は、日本だけの話ではない。韓国でも、済州島を中心に気候変動が柑橘栽培へ及ぼす影響について研究が進められている。近年の気温上昇によって、生育時期の変化や品質への影響が報告されるようになり、将来は栽培に適した地域そのものが変化する可能性も議論されている。[2] 済州島では、品種構成の見直しや栽培技術の改善など、さまざまな適応策が試みられている。



研究者たちは、さらに長い時間軸でこの変化を予測している。日本では、農業·食品産業技術総合研究機構などの研究グループが、将来の気候条件をもとに温州みかんの栽培適地がどのように変化するかを予測している。その結果、温暖化が進めば、これまで主産地だった地域では栽培条件が厳しくなる一方で、栽培に適した地域は徐々に北へ移動していく可能性が示されている。[3]

地図の上では、適地はゆっくりと北へ動いていく。しかし、それはあくまでも気候条件から描かれた将来予測である。現実の産地は、それほど簡単には動かない。

나무에는 발이 없다.
그러니 기후가 변한다 해서 제 발로 새로운 땅에 갈 수 없다.

木には足がない。だから、気候が変わっても、
自ら新しい土地へ移ることはできない。



나무에는 발이 없다

연구자들은 온난화가 진행되면 온주밀감에 적합한 산지가 북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 예측만 보고 '그럼 새로운 땅에서 재배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채소라면 이듬해부터 다른 품종으로 바꿀 수도 있다. 해마다 다시 심는 작물은 기후변화에 맞춰 재배 방법을 재검토하는 것도 비교적 쉽다. 그러나 귤을 맺는 것은 과실수다. 한 그루의 나무는 수십 년 동안 같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 묘목을 심고 나서 수확이 안정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까닭에, 한번 과수원을 조성하면 그것을 쉽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 하물며 계단식 밭이나 돌담, 수로처럼 긴 시간에 걸쳐 쌓아 올린 산지의 풍경은 하루아침에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무에는 발이 없다. 그러니 기후가 변한다 해서 제 발로 새로운 땅에 갈 수 없다. 물론 사람은 나무를 옮겨 심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나무 한 그루만 옮겨서 되는 일이 아니다. 농지를 정비하고, 새 묘목을 심고,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 농가는 새로운 재배 기술을 익히며, 수확이 안정되기까지의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 움직여야 하는 쪽은 나무가 아닌 사람인 것이다.

게다가 나무만이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온주밀감 산지에는 밭만 있는 게 아니다. 수확한 열매를 선별하는 선과장이 있고, 가공장이 있으며, 시장과 직판장도 있다. 겨울이 되면 수많은 가정으로 상자 가득 귤이 배달되고, 연말 선물로 전국 각지에 배송된다. 우리가 받는 귤에는 긴 세월에 걸쳐 다져진 기술과 노동, 사람들의 삶이 있다. 산지란 단지 나무가 식재돼 있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이 겹겹이 쌓여온 장소인 것이다.

따라서 '재배 적지가 북쪽으로 이동한다'는 연구 결과는 '새로운 곳에서 재배하면 된다'는 이야기로 끝날 수 없다. 나무에는 발이 없다. 그런데도 기후변화로 잃게 되는 것이 과연 수확량뿐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변하는 것은 나무가 아닌 사람이다

물론 사람들이 변화를 그저 받아들이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귤 산지에서는 관수 관리와 농법 재검토, 품종 구성 변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배 기술과 품종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즉, '재배 적지가 북쪽으로 이동한다'는 예측은 미래를 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변화를 내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木には足がない

研究者は、温暖化が進めば温州みかんの適地は北へ移動すると予測している。その予測だけを見ると、「では、新しい土地で栽培すればよい」と考える人もいるかもしれない。しかし、現実はそれほど単純ではない。野菜であれば、翌年から別の品種に切り替えることもできる。毎年植え替える作物であれば、気候の変化に合わせて栽培方法を見直すことも比較的容易である。一方、温州みかんは果樹である。一本の木は、何十年ものあいだ同じ土地に根を張り続ける。苗木を植えてから収穫が安定するまでには年月がかかり、一度園地を造成すれば、それを簡単に別の場所へ移すことはできない。まして、段々畑や石垣、水路など、長い時間をかけて築かれてきた産地の風景は、一朝一夕につくり直せるものではない。

木には足がない。だから、気候が変わっても、自ら新しい土地へ移ることはできない。もちろん、人は木を植え替えることができる。しかし、それは一本の木を移すことではない。農地を整備し、新しい苗木を植え、収穫できるまで何年も待た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間、農家は新たな栽培技術を身につけ、収穫が安定するまでの時間を乗り越えなければならない。動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は、木ではなく、人なのである。

さらに、影響を受けるのは木だけではない。温州みかんの産地には、畑だけがあるわけではない。収穫された果実を選別する選果場があり、加工場があり、市場や直売所がある。冬になると、多くの家庭へ箱いっぱいのみかんが届けられ、お歳暮などの贈答品として全国へ発送される。そこには、長い年月をかけて培われた技術や仕事、人々の暮らしがある。産地とは、単に木が植えられている場所ではなく、人々の営みが積み重ねられてきた場所なのである。

したがって、「適地が北へ移動する」という研究成果は、「新しい場所で栽培すればよい」という話では終わらない。木には足がない。それなのに、気候変動で失うものが収穫量だけだと言えるだろう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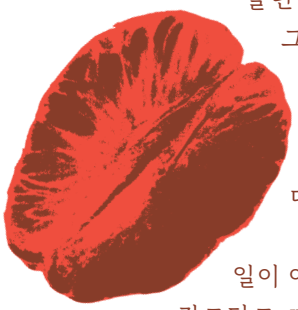
変わるのは木ではなく人である

もちろん、人々は変化をただ受け入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日本のみかん産地では、水分管理や栽培方法の見直し、品種構成の工夫など、気候変動に対応するさまざまな取り組みが進められている。韓国済州島では、気候変動に対応するための栽培技術や品種のあり方についても検討が進められている。つまり、「適地が



나무를 계속 키워 나갈 수 있을지를 궁리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다만 적응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예컨대 오랜 세월 키워온 품종을 다른 품종으로 바꾸는 일은 농가에 큰 결단이다. 새 묘목이 안정적으로 열매를 맺기까지 수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재배 방법이 바뀌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기술도 다시 손봐야 한다. 여기에 더해 산지에는 저마다 긴 세월에 걸쳐 쌓아 올린 지역 브랜드와 평판이 있다. 소비자는 그 땅이 선사하는 고유한 품질과 맛을 기대하며 산지를 선택한다. 만약 재배에 적합한 지역이 크게 바뀐다면 그런 신뢰 또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시 쌓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응이란 나무를 옮기는 일이 아니다. 사람이 지혜를 짜내고, 기술을 갈고닦고, 때로는 품종 구성을 재검토하면서 그 땅에서 작물을 계속 키워나갈 방법을 찾아가는 일이다. 기후변화에 적응한다는 건 사람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변해가는 자연과 마주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다시 맺어가는 일이다. 그러나 그 노력으로 수확을 지켜낸다 해도 잃게 되는 것이 있다.

잃는 것은 수확량만이 아니다

일본에선 '귤 농가'라고 하면 떠오르는 풍경이 있다. 가파른 비탈에 펼쳐진 계단식 밭. 바다에서 비추는 빛을 받아 익어가는 주황색 열매. 수확한 귤을 실어 나르는 모노레일. 겨울 햇살을 받으며 가지 가득 열매를 맺은 나무들. 에히메현, 와카야마현, 시즈오카현 등 산지마다 나름의 풍경이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풍경 중 하나는 검은 현무암을 쌓은 돌담과 그 너머로 펼쳐진 감귤밭일 것이다. 제주공항에 내리면 진열된 감귤 과자와 음료가 섬을 찾는 사람들을 맞이한다. 감귤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제주도라는 섬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올해 COP31이 열리는 튀르키예 또한 사쓰마의 산지다. 지중해와 에게해 연안에 펼쳐진 감귤밭에서 재배된 수많은 사쓰마가 유럽 각국에 수출되고 있다. 일본이나 한국과 풍경은 달라도 사람들은 똑같이 이 과일과 더불어 살아간다. 물론 기후변화로 인해 이 풍경이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농가는 재배 방법을 궁리하고 과수원을 지키면서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려 할 것이고, 그 노력 덕분에 많은 산지가 앞으로도 존속할 것이다.

그럼에도 변하는 것은 있다. 만약 재배에 적합한 지역이 북쪽으로 이동한다면 오랜 세월에 걸쳐 가꾸어온 산지의 풍경도 조금씩 모습을 바꿔갈지 모른다. 지역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온 경치, 계절의 시작을 알려주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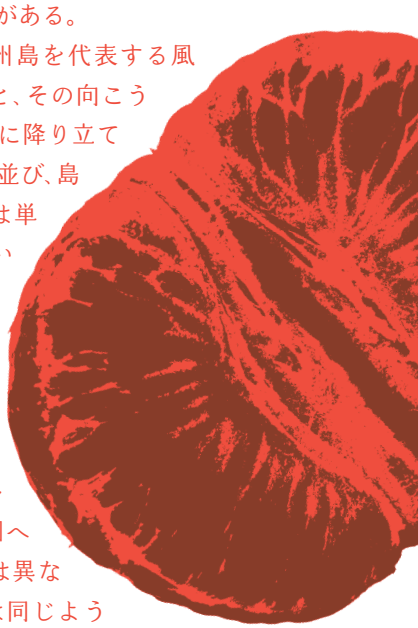
北へ移動する」という予測は、未来をあきらめるためのものではない。むしろ、その変化を見据えながら、どうすれば木を育て続けられるのかを考えるための出発点である。

もっとも、適応とは単に新しい技術を導入することではない。たとえば、長年育ててきた品種を別の品種へ切り替えることは、農家にとって大きな決断である。新しい苗木が安定して実をつけるまでには時間がかかり、その間の収入をどう確保するかという問題もある。栽培方法が変われば、これまで積み重ねてきた経験や技術も見直さなければならない。さらに、産地には、それぞれ長い年月をかけて築かれてきた地域ブランドや評価がある。消費者は、その土地ならではの品質や味わいを期待し、その産地を選んでいる。もし栽培に適した地域が大きく変われば、そうした信頼もまた、新たな環境のなかで築き直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

したがって、適応とは木を動かすことではない。人が知恵を出し、技術を磨き、ときには品種構成を見直しながら、その土地で果樹を育て続ける方法を探していくことである。気候変動への適応とは、人が自然を支配することではない。変わりゆく自然と向き合いながら、新しい関係を築き直していく営みである。しかし、その努力によって収穫を守ることができたとしても、なお失われるものがある。

失われるのは収穫量だけではない

日本には、「みかんの産地」と聞いて思い浮かべる風景がある。急斜面に広がる段々畑。海からの光を受けて実るオレンジ色の果実。収穫されたみかんを運ぶモノレール。冬の日差しのなかで枝いっぱいに実をつけた木々。愛媛県や和歌山県、静岡県など、それぞれの産地には、それぞれの風景がある。



韓国でも同じである。済州島を代表する風景の一つは、黒い玄武岩の石垣と、その向こうに広がるみかん畑であろう。空港に降り立てば、柑橘を使った菓子や飲み物が並び、島を訪れる人々を迎える。みかんは単なる農産物ではなく、済州島という土地を思い起こさせる象徴になっている。

そて、今年COP31が開催されるトルコもまた、Satsumaの産地である。地中海やエーゲ海沿岸では、柑橘畑が広がり、多くのSatsumaがヨーロッパ各国へ輸出されている。日本や韓国とは異なる風景でありながら、人々は同じように、この果実とともに暮らしている。もちろん、気候変動によって、すぐにこれらの風景が失われるわけではない。農家は栽培方法を工夫し、園地を守りながら、変化する気候に適応しようとしている。その努力によって、多くの産地はこれからも存続していくだろう。しかし、それでも変わるものはある。もし、

과수원, 지역명과 함께 이야기되어온 특산품—그런 것들까지 새로운 곳에 그대로 옮길 순 없다. 기후변화가 바꾸는 것은 기온과 강수량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땅과 함께 가꾸어온 기억에도 조용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숫자 너머에 삶이 있다

앞서 말했듯, COP31 개최국 튀르키예에서 온주밀감은 '사쓰마'라는 이름으로 널리 유통되고 있다.[4] 이 이름은 19세기 말 일본에서 구미로 수출된 온주밀감이 이후 같은 이름으로 세계 시장에 알려지게 된 데서 유래한다. 일본 남부의 사쓰마 지방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품종명은 바다를 건너 이제 세계 곳곳에서 쓰이고 있다.

하나의 과일이 일본에서는 겨울 식탁을 수놓고, 한국에서는 제주도를 상징하며, 튀르키예에서는 세계로 수출되는 농산물이 되었다. 나라와 문화는 달라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땅에서 이 과일과 더불어 살아왔다. 그렇기에 기후변화가 던지는 물음은 농업 생산의 문제만이 아니다. 온주밀감의 재배 적지는 앞으로도 조금씩 변해갈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이 긴 세월에 걸쳐 가꾸어온 풍경과 기억은 쉽게 옮길 수 없다.

우리는 기후변화를 "기온이 몇 도 오른다"라고 숫자로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나 그 숫자 너머에는 하나하나의 산지가 있고, 사람들의 삶이 있으며, 저마다의 땅에서 가꾸어져온 풍경이 있다.

겨울이 되면 귤이 먹고 싶어진다. 그 무심한 습관은 사실 긴 시간에 걸쳐 가꾸어져온 기후와 땅의 은혜 위에 놓여 있다. 나무에는 발이 없다. 그러니 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인지도 모른다.

[4] Yazıcı, K., Balijagi , J., Bilgin, Ö. F., Göksu, B., & Ercisli, S. (2023). Comparison of Some Fruit Quality Parameters of Selected 12 Mandarin Genotypes from Black Sea Region in Turkey. *ACS Omega*, 8(21), 19020–19028.

栽培に適した地域が北へ移動すれば、長い年月をかけて育まれてきた産地の風景も少しずつ姿を変えていくかもしれない。地域の人々が当たり前だと思ってきた景色、季節の訪れを知らせる果樹園、土地の名とともに語られてきた特産品。そうしたものは、新しい土地へそのまま移すことはできない。気候変動が変えるのは、気温や降水量だけではない。それは、私たちが土地とともに育んできた記憶にも、静かに影響を及ぼし始めているのである。

数字の先に、いのちがある

COP31の開催国トルコでは、温州みかんは「Satsuma」の名で広く流通している。[4] この名前は、19世紀末に日本から欧米へ輸出された温州みかんが、その後この名称で国際的に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に由来する。日本南部の薩摩地方にちなんで名付けられたとされるこの名前は、海を越え、いまでは世界各地で使われている。

一つの果物が、日本では冬の食卓を彩り、韓国では済州島を象徴し、トルコでは世界へ輸出される農産物となった。国や文化は異なっても、人々はそれぞれの土地で、この果実とともに暮らしてきた。だからこそ、気候変動が問いかけているのは、農業生産の問題だけではない。温州みかんの適地は、これからも少しずつ変わっていくかもしれない。しかし、人々が長い年月をかけて育んできた風景や記憶もまた、簡単には移動できない。

私たちは、気候変動を「気温が何度上がるか」という数字で語ることが多い。しかし、その数字の向こうには、一つひとつの産地があり、人々の暮らしがあり、それぞれの土地で育まれてきた風景がある。

冬になると、みかんを食べたくなる。その何気ない習慣は、実は長い時間をかけて育まれてきた気候と土地の恵みの上に成り立っている。木には足がない。だから、変わるべきなのは私たちなのかもしれない。

숫자 너머에는 하나하나의 산지가 있고,
사람들의 삶이 있고, 저마다의 땅에서 가꾸어져온 풍경이 있다.

数字の向こうには、一つひとつの産地があり、
人々の暮らしがあり、それぞれの土地で育まれてきた風景がある。

32

少しでも後悔しない
조금 덜 후회되는 여행기념품 이야기

글·그림 2dA
文·絵 2da

旅のおみやげ話

인간은 어쩌다 여행을 하게 되었을까?
旅のおみやげ話



문제는 이런 소비가 살 때는 즐거운데, 돌아오면 후회된다는 거다.

問題は、こういう消費は、買うときは楽しいのに、帰ってくると後悔するってこと。







그래서, 요즘은 좀 다른 기념품을 사고 있어.

だから最近は、ちょっと違うおみやげを買っている。





① 평소에도 쓸 물건만 사기
日常で使うものだけ買う

② 중고나 오래된 기념품 사기 (다른 관광객이 안 사는 것중에 멋진것 고르기)
古着や古いおみやげ(ほかの観光客が買わないもの)の中からすてきなものを選ぶ

③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 중에 고르기
その土地でつくられたものの中から選ぶ

여행과 소비를 끊을 수 없다면,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보면 좋을것 같아!

旅も買い物もやめられないなら、自分なりの基準をつくってみてもいいかも。



또 어떤 게 있을까?

ほかには、どんなのがあるかな？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기후위기는 가속화된다. 세상이 종아지고 있다는 신호는 어디서도 찾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관점과 태도, 생활 방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棲来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보존

各地で戦争が起こり、気候危機は加速していく。世界が好転する兆しは、どこにも見当たらない。それでも私たちは生きていかなければ。投げ出したり、あきらめたりせずに生き続けるため、ほんの少しでもましな世界を築くために——いま求められる視点と態度、生活のあり方をめぐる物語をお届けします。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photo © Christian Pan

글쓴이
크리스티안 브라켈

36

執筆
クリスティアン ブラケル

크리스티안 브라켈
지난 수십 년간 국제 정치 분야에서 일해왔으며, 특히 중동 지역에 집중해왔다. 2015년 독일의 녹색 정치 재단인 하인리히 뵐 재단에 합류하기 전에는 중동과 동아프리카에서 유엔, 유럽연합, 독일 정부 관련 직책을 맡았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서울에 뵐 재단의 동아시아 사무소를 새로 여는 작업을 맡았고, 이후 베이루트 사무소로 옮겨 현재 레바논과 시리아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스탄불의 길고양이였던 판과 함께 산다.

クリスティアン・ブラケル
筆者は数十年にわたり国際政治の分野で働いてきた。とりわけ中東地域に力を注いできた。2015年にドイツの緑の政治財団であるハインリヒ・ベル財団に加わる前は、中東と東アフリカで国連、欧州連合、ドイツ政府関連の職務に携わった。2023年から2025年まではソウルにベル財団の東アジア事務所を新設する任にあたり、その後ベイルート事務所に移り、現在はレバノンとシリア関連の事業を統括している。イスタンブールの野良猫だったパンとともに暮らしている。

번역: 노건우
訳者 ノ・ゴヌ



뉴스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얼마 전 베를린에서 친구와 마주 앉아 본격적으로 정치 이야기를 나누려던 참이었다. 친구는 잠깐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 나는 그 얘기는 하나도 몰라. 사실 몇 년 전부터 뉴스를 안 보기 시작했거든. 정신 건강에 좋지 않더라고."

낯선 장면은 아니다. 지난 10년간, 나는 정치 소식에 누구보다 밝았던 사람들이 신문을 끊고, 텔레비전을 끄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일을 그만두었다고 말하는 장면을 여러 번 마주했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팔레스타인처럼 잔혹한 분쟁에 휩싸인 곳에서, 혹은 튀르키예처럼 권위주의적 압박이 거센 곳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친구들이었다. 세상을 아주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움직이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몇 년이 흐른 뒤, 바로 그 사람들이 정치의 세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 있었다. 더는 자신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게 된 것이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예외적인 집단이 아니다. 독일 성인 응답자의 72퍼센트가 적어도 가끔은 뉴스를 피하려 한다고 답했으니까. 누가 그들을 탓할 수 있을까?

익숙했던 세계 질서의 끝에서

우리는 지금, 정치적 낙관주의를 오래 지켜온 사람들마저 절망하게 만드는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은 지정학적 계산과 가능성의 범위를 크게 바꾸어놓았다. 물론 아시아에서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늘 곧바로 체감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때 '팍스 아메리카나'라 불렸던 질서가 끝나가며 생기는 더 넓은 파장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감지되고 있다.

유럽에,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에 이것은 커다란 균열이다. 1945년 이후 익숙했던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질서가 모두에게 이로웠다고 말할 수는 없다. 미국은 물론 유럽 국가들조차 독재 정권을 지원했다. 세계 무역 체제는 불공평했고, 그 과정에서 북반구 선진국들이 남긴 거대한 기후 그림자의 영향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선택받은 몇몇 국가에 들지 못했던 수많은 나라는, 지금의 현실이 과거보다 딱히 더

우리는 지금, 정치적 낙관주의를 오래 지켜온 사람들마저 절망하게 만드는 세계에 살고 있는 듯하다.

私たちはいま、長らく政治的な楽観を保ってきた人々でさえ絶望させるような世界に生きているようだ。

ニュースから遠ざかる人々

少し前、ベルリンで友人と向かい合って座り、「さて、本格的に政治の話でもしようか」というときだった。友人は私をちらりと見て、こう言った。「ああ、そういう話はさっぱりなんだ。実は何年か前からニュースを見るのをやめてね。精神衛生上、よくないから」

珍しい光景ではない。この10年、政治のニュースに誰よりも通じていた人たちが、新聞をやめ、テレビを消し、世界で何が起きているのかを知ろうとすること自体をやめたと語る場面に、私は何度も出くわしてきた。しかも彼らは、政治に無関心な人たちではなかった。むしろ、パレスチナのような苛烈な紛争地で、あるいはトルコのような権威主義の圧力が強い場所で、ともに働くなかで知り合った友人たちだった。世界をほんの少しでもましな場所にしたい――そんな思いで動いていた人たちだったのだ。

ところが数年が経つと、まさにその彼らが政治の世界から一歩身を引きつつあった。もはや自分が何かを変えられるとは、信じられなくなったのだ。ロイター・ジャーナリズム研究所の最近の調査によれば、彼らは決して例外的な存在ではない。ドイツの成人回答者の72パーセントが、少なくとも時々はニュースを避けようとしていると答えたのだから。彼らを責めることなど、誰にできようか。

慣れ親しんだ世界秩序の終わりに

どうやら私たちはいま、長らく政治的な楽観を保ってきた人々でさえ絶望させるような世界に生きているようだ。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とドナルド・トランプの再選は、地政学的な計算と「あり得ること」の範囲を大きく塗り替えた。もちろんアジアでは、戦争の直接的な影響を常に肌で感じるわけではないかもしれない。しかし、かつて「パクス・アメリカーナ」と呼ばれた秩序が終わりに向かうことで生じる、より広範な波紋は、すでに世界中で感じ取られている。

ヨーロッパにとって、そして韓国や日本といったアジアの米国の同盟国にとって、これは大きな地殻変動である。1945年以来慣れ親しんできた世界の秩序が揺らいでいるからだ。もちろん、その秩序がすべての人に恩恵をもたらしたとは言えない。米国はもとよりヨーロッパの国々でさえ、独裁政権を支援してきた。世界の

世界に生きてさえ絶望させるような いるようだ。

나쁘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오늘의 세계 질서는 여전히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에 깊이 기대고 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자유롭고 민주적이라고 여겨졌던 '아메리칸드림'이 훨씬 더 어둡고 독단적인 무언가로 급진화될 때, 그 파장은 미군이 어디에 주둔하느냐의 문제를 아득히 넘어선다.

더 나은 대안이 보이지 않을 때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기존 질서가 모든 나라와 사람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질서는 언제나 편향적이었다.)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새로운 선택지들조차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서구 중심의 지배적 질서는 보편적 가치, 인권, 국제법을 말해왔다. 그리고 그 말들은 자주 배반당했다. 가자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 진정한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다극적 세계 질서가 들어설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질서는 강대국들의 흥정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한 나라는 가자에서 벌어지는 일을 못 본 척하겠다고 약속하고, 다른 나라는 위구르 인권 문제를 너무 크게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말이다.

국제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거대한 다국적 기업에 정부가 가진 자원과 권력까지 상대하는 일은 언제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뤄져왔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많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 그건 민주적 공론장이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에 국제 기준을 지키라고 요구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물론 불완전한 체제였다. 정권이 권위주의적이고 고립되어갈수록 국제 외교나 시민사회의 압박은 힘을 잃었다. 그럼에도 낙관주의자들 사이에는 대체로 이런 생각이 있었다. 그래도 두 가지, 그러니까 여론의 압박과 전문가의 지식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믿음 말이다. 정부는 종종 외부의 조언을 구했고, 공론장에서의 토론도 어느 정도는 힘을 발휘했다. 물론 이 방식에도 한계는 많았지만.

서구 중심의 지배적 질서는 보편적 가치, 인권, 국제법을 말해왔다. 그리고 그 말들은 자주 배반당했다.

貿易体制は不公平だったし、その過程で北半球の先進国が残した巨大な「気候の影」の影響も、いよいよ本格的に現れつつある。だから、選ばれた少数の国々に入れなかった多くの国々にとっては、いまの現実が昔よりことさら悪いとは感じられないかもしれない。

それでも、今日の世界秩序は依然として米国の経済力、軍事力、政治的影響力に深く依存している。少なくとも建前上は自由で民主的とされてきたアメリカン・ドリームが、はるかに暗く独善的な何かへと急旋回するとき、その波紋は米軍がどこに駐留するかという問題をはるかに超えて広がるのだ。

よりよい選択肢が見えないとき

米国の影響力の低下が問題なのは、既存の秩序がすべての国と人々に公平な恩恵をもたらしていたからではない(その秩序はつねに偏ったものだった)。問題は、目の前に見えてきた新しい選択肢のほうも、さして希望を抱かせ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点にある。

西側中心の支配的秩序は、普遍的価値、人権、国際法を掲げてきた。そしてその言葉は、しばしば裏切られてきた。ガザで最もあからさまに示されたように。だが、この秩序が崩れた跡地に、真の普遍主義を目指す多極的な世界秩序が打ち立てられるようには見えない。むしろ、これから私たちを待っているのは、大国同士の取引に近い秩序になる公算が大きい。たとえば、ある国はガザで起きていることを見て見ぬふりすると約束し、別の国はウイグルの人権問題をあまり大ごとにしないでほしいと求める――そんな具合に。

国際問題に携わる人々は、ずっと前から知っていた。巨大な多国籍企業や政府が持つ資源と権力を相手にする闘いが、つねに不公平な土俵の上での闘いだったことを。それでも多くの民主主義国では、なお期待できるものがあった。民主的な公論の場が政府にブレーキをかけ、政府が他国の政府に国際基準を守るよう迫るように仕向けられる――そう信じることができたのだ。

もちろん、不完全な仕組みだった。政権が権威主義的で閉鎖的になるほど、国際外交や市民社会の圧力は力を失った。それでも楽観主義者たちのあいだには、おおむねこんな考えがあった。それでもふたつのもの、すなわち世論の圧力と専門家の知見は、確かに影響を及ぼすのだ、と。政府はしばしば外部の助言を求めたし、公論の場での議論はある程度の力を持っていた。もちろんこのやり方にも限界は多かった。それで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낙관주의자들이 이정표로 삼고, 다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떠한 정치적 지평으로 기능했다.

미래가 방어전이 될 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의지해온 그 지평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다. "기후 보호라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한가한 소리 아닌가? 난민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극우의 집권을 막는 게 먼저 아닌가? 성평등이라니, 더 중요한 문제도 많지 않은가?"

이러한 여론의 변화는 일부 국가에서 극우 세력이 부상하는 것 때문만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정치 지형이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믿음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유주의적 세계관이 그리는 미래는, 운이 좋으면 현 상태의 일부라도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졸아든 듯하다.

미래에 대한 일말의 긍정적 전망 없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는 어렵다. 우리의 비전이 고작 다음과 같은 말로 이루어져 있다면 더욱 그렇다. "상황은 더 나빠질 겁니다. 그래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완전한 재앙까지는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세계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계속 새로운 지평을 세울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여기에 간단한 답은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세계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정적인 국제 질서와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특정 엘리트들이 논쟁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다.

이런 맥락에서,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변화한 현실의 직접적인 영향을 아직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사치다. 베를린의 저녁 뉴스에 나오는 일이, 가자 같은 곳의 누군가에게는 견뎌내야 하는 삶 자체이기 때문이다.

한편,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일이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정치적인 사람으로 남는 것. 그럴 때에만 우리는 오늘의 정치라는 폭풍 속에서도 붙들 수 있는 비전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西側中心の支配的秩序は、普遍的価値、人権、国際法を掲げてきた。しばしば裏切られてきた。

も少なくともそれは、楽観主義者たちが道しるべと考え、また仕事を続けていくための拠り所になる、ひとつの政治的地平だったのである。

未来が防戦一方になるとき

より根本的な問題は、私たちが拠り所にしてきたその地平そのものが崩れつつあるように見えることだ。「気候保護だって? 経済がこんなに苦しいのに、悠長なことを言っている場合か。難民の権利も大事だが、極右の政権入りを防ぐほうが先じゃないのか。ジェンダー平等? もっと大事な問題が山ほどあるだろう」

こうした世論の変化は、一部の国で極右勢力が台頭しているからだけではない。根本には、政治の地形がますます二極化し、いまよりよい未来が実際に可能だという信頼が弱まっているという事情がある。今日、リベラルな世界観が描く未来は、「運がよければ現状のいくらかでも守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願いにまで後退してしまったかのようだ。

未来への前向きな展望がまったくないまま、人々を鼓舞するのは難しい。私たちのビジョンが、たかだか次のような言葉だったら、なおさらそうだ。「状況はもっと悪くなるでしょう。それ'でも必死に頑張れば、完全な破局だけは避けられるかもしれませ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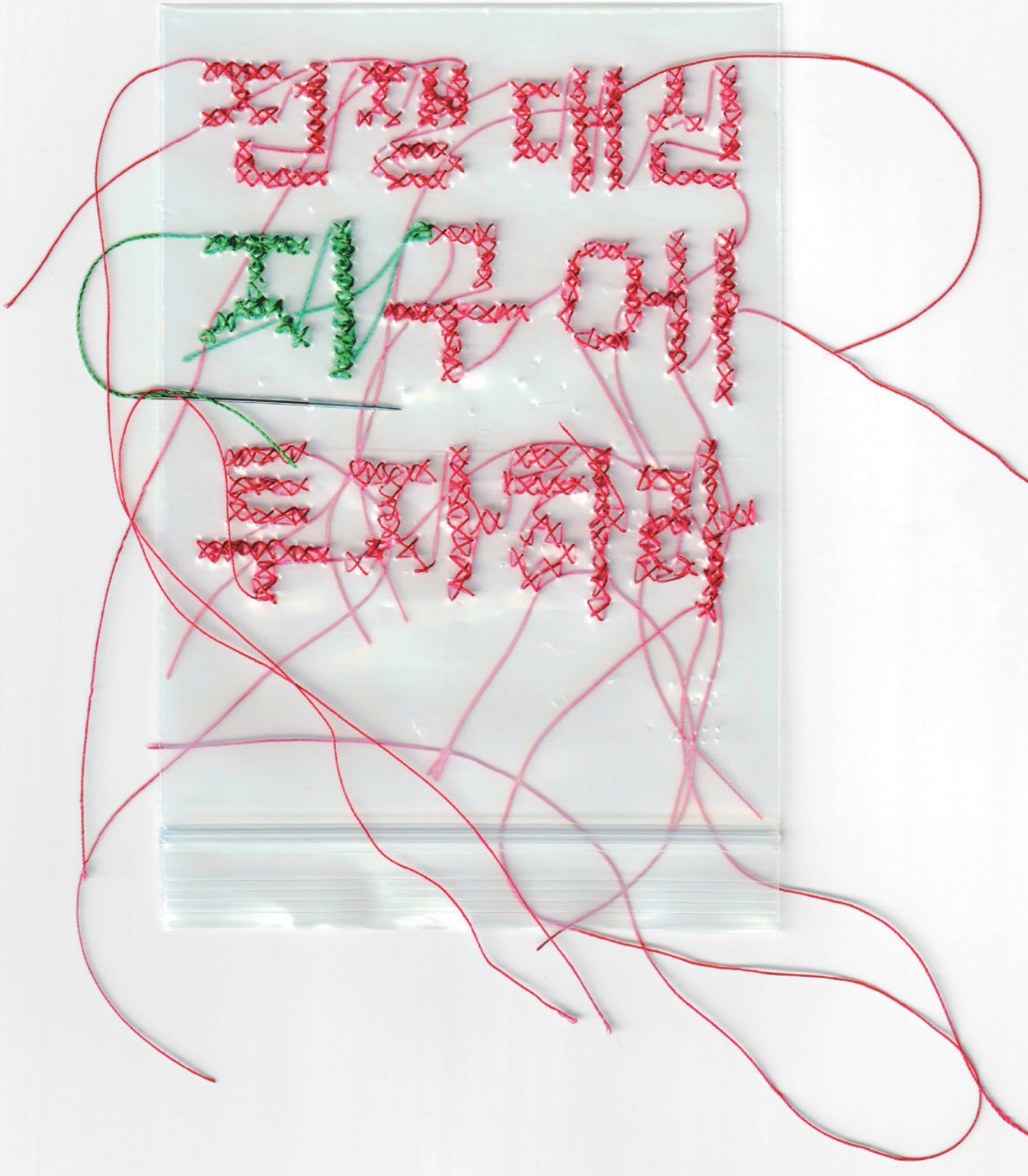
それでも、世界とつながりを絶たないこと

では、どうすれば新しい地平を築き続けられるのだろうか。ここに簡単な答えはない。ただ、ひとつだけ言えることがある。世界の大多数の人々にとって、安定した国際秩序と自由に生きる権利が必要だという事実は、何も変わっていない。変わったのは、特定のエリートたちが議論に影響を及ぼす力のほうなのだ。

こうした文脈で言えば、ニュースを見ないというのは、変化した現実の直接的な影響をまだ受けていない人にだけ許された贅沢である。ベルリンの夜のニュースで報じられる出来事が、ガザのような場所の誰かにとっては、耐え抜かねばならない生活そのものなのだから。

その一方で、世界で何が起きているかを逐一追いかけることよりも大切なことがある。思考と行動を通じて、政治的な人間であり続けること。そのときはじめて私たちは、今日の政治という嵐のなかでも拠り所にできるビジョンを打ち立てられるはずだ。

artwork © Park Boomi



artwork © Osawa Yuda | 出典 日本国際ボランティアセンター (Japan International Volunteer Center)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

停戦 C

を、 easefire,

食料 F 今 N

すぐ

を、ood, に ow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

42



글쓴이
다케미네 세이이치로

執筆
竹峰誠一郎

섬은 방어선

島は防衛線

태평양 핵실험 80년: 환경·공해

太平洋核実験80年：環境・公

다케미네 세이이치로
태평양 마셜제도를 사반세기에 걸쳐 오가면서 '글로벌 히바쿠샤(global hibakusha)' 개념을 제창, 전 세계의 핵피해에 주목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남양군도의 일본 통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북마리아나제도 등으로 현장을 넓히고 있다. 저서로 『마셜제도, 끝나지 않는 핵피해를 살아가다』, 공저로 『왜 공해는 계속되는가: 잠재화·산재화·장기화하는 피해』, 『3·11 이후의 평화학—'탈원자력 사회'를 향하여』 등이 있다. 메이세이대학 인문학부 인간사회학과 교수, 일본평화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국제사회학과 평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竹峰誠一郎
太平洋のマーシャル諸島に四半世紀にわたり通い続け、「グローバルヒバクシャ」の概念を提唱し、世界の核被害に着目した研究を進める。近年は南洋群島の日本統治時代にもさかのぼりながら、北マリアナ諸島などにもフィールドを広げる。著作に『マーシャル諸島　終わりなき核被害を生きる』、「重層化する核被害のなかでマーシャル諸島発「核の正義」を求めて」『なぜ公害は続くのか：潜在・散在・長期化する被害』、「福島第一原発事故の後始末—海洋放出に反発する太平洋諸島の人びとの声」『3.11からの平和学—「脱原子力社会」へ向けて』などがある。明星大学人文学部人間社会学科教授、日本平和学会理事などを務める。専門は国際社会学、平和学、博士(学術)。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

선이 아니다
線ではない

문제, 탈식민지화와 연결하여
害問題、脱植民地化と結んで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

미국 핵실험 '크로스로드 작전'으로부터 80년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지 불과 4개월 후인 1945년 12월 20일, 합동참모본부에서 다음 핵폭발을 실시할 장소 선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해군의 프레더릭 L. 애시워스(Frederick L. Ashworth)는 중부 태평양 마셜제도 비키니 환초를 핵실험 적지로 제안했다. 애시워스는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B29 폭격기 '복스카(Bockscar)'에 탑승해 투하 명령을 내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마셜제도는 1914년부터 30년에 걸쳐 '대일본제국'의 지배 아래 놓여 '남양군도'라 불리던 지역의 일부였다.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태평양을 배경으로 한 미일 전쟁에 주민들이 휘말렸다. 그 후 미 군정 아래 놓이면서 마셜제도는 미국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던 것이다. 1946년 2월, 미국은 비키니 주민들에게 이주를 요청했다. "신의 인도에 따른 약속의 길"이며, 핵실험은 "인류에 행복을 가져다주고 세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설명했다는 사실이 미 해군 공식 기록에 남아 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46년 7월, 마셜제도 비키니 환초에서 '크로스로드 작전(Operation Crossroads)'이 시작되었다. 크로스로드는 '교차로'를 뜻하는데, 이 작전은 본격적인 핵시대로 향하는 교차로가 되었고 마셜제도, 나아가 태평양이 이후 강대국의 핵개발에 희생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후 1958년 8월까지 마셜제도에서는 67회에 이르는 핵폭발이 '실험'이라는 이름으로 비키니와 에니웨톡에서 시행되었다. 미국의 핵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희생 구역'에 주민들이 편입된 것이다. 『기민의 군도(棄民の群島)』의 저자이기도 한 마에다 데쓰오의 표현을 빌리면 '전후(戦後)'라는 휴식기도 주어지지 않은 채 마셜제도는 미국 핵개발의 산실이 되었던 것이다. 크로스로드 작전 80주년을 맞아, 마셜제도에서의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핵무기를 환경·공해 문제로 다시 파악하고자 한다.

핵 보유국이 태평양을 제멋대로 이용해온 모습에서 태평양이

核保有国が太平洋を好き勝手に利用してきた様から 太平洋は

米核実験「クロスロード作戦」から80年

米国は、広島、長崎に原子爆弾を投下してからわずか4カ月後の1945年12月20日、統合参謀本部で、次なる核爆発をおこなう場の選定に向けた会合を開催していた。同会合で海軍のフレデリック・アシュワース(Frederick L. Ashworth)は、中部太平洋のマーシャル諸島ビキニ環礁を核実験の適地として提案した。アシュワースは、長崎に原爆を投下したB29爆撃機「ボックスカー」(Bockscar)に乗り込み、投下命令を出した人物として知られる。マーシャル諸島は1914年から30年にわたり大日本帝国の支配下に置かれ「南洋群島」と呼ばれた地域の一角にあった。日本の植民地支配のなかで、太平洋を舞台にした日米の戦争に住民は巻き込まれた。その後、米軍政下に置かれ、マーシャル諸島は米国が「自由」に使える空間となっていたのだ。1946年2月、米国はビキニ住民に移住要請を行った。「神の導きによる約束の道」であり、核実験は「人類に幸福をもたらし、世界の戦争を終わらせるため」だと住民に説明したことが、米海軍の公式記録に記されている。

広島、長崎の米原爆投下から1年も満たない1946年7月、マーシャル諸島ビキニ環礁で「クロスロード作戦」が開始された。クロスロードは「十字路」を意味するが、同作戦は、本格的な核時代に向かう十字路となり、マーシャル諸島、さらには太平洋がその後、大国の核開発の犠牲となる序章になっていった。その後1958年8月まで、マーシャル諸島では67回におよぶ核爆発が「実験」という名で、ビキニとエニウェトクの両環礁で繰り返された。米核開発を進める「犠牲区域」に住民は組み込まれたのである。『棄民の群島』の著者でもある前田哲男の言葉を借りるならば、「戦後」という休息期が与えられず、マーシャル諸島は米核開発の母胎となっていったのである。米クロスロード作戦から80年にあたり、マーシャル諸島でのフィールドワークを踏まえ、核兵器を環境・公害問題として捉え直したい。

「地球は被ばくしている」

広島・長崎の原爆投下後、マーシャル諸島をはじめ2000回を超える核爆発実験が繰り返される

"지구는 피폭되어 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마셜제도를 비롯해 2000회가 넘는 핵폭발 실험이 반복되는 등 핵개발은 본격화되었고 원자력발전, 즉 핵발전도 촉진되었다. 그런 가운데 "환경 논의에서 방사능 오염 문제가 빠져 있다. 방사능 오염이야말로 지구 환경을 이야기할 때의 '원점'이 아닌가"라며, 히로시마에 본사를 둔 『주고쿠신문』은 특별 취재팀을 편성해 1989년 5월부터 1년에 걸쳐 '세계의 히바쿠샤(피폭자)'를 연재했다. "끝없는 핵실험, 핵무기 제조, 우라늄 채굴,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며 '히바쿠샤'는 계속 늘어났다"고, 취재진은 이 같은 물음에서 태평양이

繰り返される

など、核開発は本格化し、原発、すなわち核発電も促進された。そうしたなか「環境論議から、放射能汚染問題が抜け落ちている。放射能汚染は地球環境を語る際の『原点』ではないのか」と、広島を本社とする中国新聞は特別取材班を編成し、1989年5月から1年間かけて連載「世界のヒバクシャ」を展開した。「際限のない核実験、核兵器製造、ウラン採掘、原子力発電所事故などによる被害が続発し、『ヒバクシャ』は増え続けた」現実を鋭く問いかけた。

核被害は地球規模におよんだ。NHK広島放送局は、北極圏で氷床のボーリング調査を行い、核実験や原発事故によって生じた核分裂生成物は、地球上の大地や動植物、そして人びとの上に降り注ぎ、北極にも達していたことを突きとめた。この内容も含めて、広島、長崎の原爆投下から50年目にあたる1995年8月6日、NHKは「調査報告・地球核汚染ヒロシマからの警告」をNHKスペシャルで報道した。人間の活動が全地球に多大なる影響およぼす「人

현실을 예리하게 파헤쳤다.

핵피해는 지구적 규모에 이르렀다. NHK 히로시마 방송국은 북극권에서 빙상 시추 조사를 실시하여 핵실험과 원전 사고로 생긴 핵분열 생성물이 지구상의 대지와 동식물, 그리고 사람들 위로 쏟아져내려 북극까지 도달해 있었음을 밝혀냈다. 이 내용을 포함해,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로부터 50년째가 되는 1995년 8월 6일, NHK는 〈NHK 스페셜〉에서 '조사보고·지구 핵오염–히로시마로부터의 경고'를 방영했다. 인간의 활동이 지구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류세' 시대로의 진입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핵실험, 나아가 핵개발을 꼽을 수 있다. 조지타운대학의 히구치 도시히로는 환경사의 관점에서 대기권 핵실험을 지구 환경 문제의 시발점으로 평가한다. "지구는 피폭되어 있다." 세계 각지의 핵피해지를 선구적으로 취재해온 도요사키 히로미쓰는 말한다.

"독립 없이는 핵문제 해결도 없다"

그러나 핵피해가 세계에 균등하게 퍼진 것은 아니다. '핵식민주의(nuclear colonialism)' '핵 인종차별(nuclear racism)'이라 일컬어지는, 핵피해를 둘러싼 지구적 규모의 불공정한 차별 구조 속에서 피해가 유독 무겁게 닥치는 지역과 사람들이 있다. 특히 세계 체제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태평양 도서 지역은 미국·영국·프랑스 같은 핵개발의 '중심' 국가들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연 300회가 넘는 핵폭발 실험을 비롯한 핵개발이 유독 집중되었다. 핵 보유국이 태평양을 제멋대로 이용해온 모습에서 태평양이 '핵 놀이터'(nuclear playground)가 되었다고 스튜어트 퍼스는 지적한다. 핵 보유국이 '핵 놀이터'로 삼은 태평양에서는, 베트남전쟁이 종결되기 직전인 1975년 4월 피지의 남태평양대학에서 최초의 '비핵태평양회의'가 열렸다. 이는 프랑스가 태평양에서 핵폭발 실험을 계속하는 데 대한 항의를 분명히 드러내는 동시에 태평양의 선주민의식과 독립운동의 고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 회의에서 태평양을 비핵 지대로 만드는 조약안이 만들어졌고 각국에 이를 촉구하는 결의도 이루어졌다.

1975년 피지에서 열린 비핵태평양회의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포나페, 하와이, 바누아투에서의 회의로 이어졌다. 태평양 도서 지역의 반핵운동에서는 유럽과 미국, 일본의 반핵운동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핵전쟁 방지나 핵무기 철폐의 구호를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 비핵태평양회의에서는 핵실험장뿐 아니라 핵무기의 저장과 배치, 핵추진 잠수함의 기항, 미사일 실험, 합동 군사훈련, 군사기지, 우라늄 광산, 핵폐기물 등 외부 세력이 태평양 지역에 가져온 다양한 핵 관련 문제를 공유했다. 동시에 각 지역의 독립운동 역시 핵문제와 연결지어 논의되었다.

일본에서 공해 수출 반대 운동에 참여하다 태평양의 핵문제를 접하고, 1978년부터 비

'핵 놀이터'(nuclear playground)가 「核の遊び場」とされたことを

되었다고 스튜어트 퍼스는 지적한다.
スチュワート・ファースは指摘する。

新世」の時代への突入を象徴する一つの出来事として、核実験、さらに核開発は捉えることができる。ジョージタウン大学の樋口敏広は、環境史の観点から大気圏核実験を地球環境問題の先駆けと位置付ける。「地球は被ばくしている」と、世界各地の核被災地を先駆的に取材してきた豊崎博光は述べる。

「独立なくして核問題の解決はない」

だが、核被害は世界に等しく広がったわけではない。「ニュークリア・コロニアリズム」や「ニュークリア・レイシズム」と称される、核被害を取り巻く地球規模の不公正な差別構造のなかで、核被害がとくに重くのしかかる地域や人びとがいる。とりわけ世界システムの「最周縁」に位置付けられる、太平洋諸島は、米・英・仏といった核開発の「中心」国と直接的に結びつけられ、延べ300回を超える核爆発実験をはじめとした、核開発がとりわけ集中した。核保有国が太平洋を好き勝手に利用してきた様から、太平洋は「核の遊び場」(Nuclear Playground)とされたことを、スチュワート・ファース(Stewart Firth)は指摘する。核保有国によって「核の遊び場」とされた太平洋では、ベトナム戦争が終結する直前の1975年4月、フィジーにある南太平洋大学で、初となる「非核太平洋会議」が開催された。フランスが太平洋で核爆発実験を続けることへの抗議を明確に示すとともに、太平洋の先住民族意識と独立運動の高まりを示すものともなった。同会議で、太平洋を非核地帯にする条約案が起草され、各国に働きかけることも決議された。

1975年フィジーで開催された「非核太平洋会議」は一過性に終わらず、その後も、ポナペ、ハワイ、バヌアツと、大会は続けられていった。核に抗う太平洋諸島からは、核戦争防止を訴えたり、核兵器廃絶を目指したり、欧米、あるいは日本の反核運動でよく繰り返される訴えはあまり聞かれない。非核太平洋会議では、核実験場とともに、核兵器の貯蔵や配備、原子力潜水艦の寄港、さらにはミサイル実験、合同演習、基地、ウラン鉱山、核廃棄物など、外から持ち込まれた多様な核問題が共有された。同時に各地の独立運動も核問題と結びつけながら議論された。

日本で公害輸出反対運動に取り組む中で太平洋の核問題に出合い、非核太平洋会議にも1978年から参加した横山正樹は、植民地や人種差別を背景に、核大国による核開発が先住民族の犠牲の上に進められていることが会議を通じて浮き彫りになっていったことを回想する。非核太平洋会議がフィジーで誕生し、太平洋の島々の間でネットワークが形成されるなかで、「独立なくして核問題の解決はない」という共通認識が確立していったのだ。会議の名称も、非核太平洋会議から非核独立太平洋会議に、1983年のバヌアツ大会から改称された。

非核独立太平洋運動が展開されるなか、1985年8月6日、広

핵태평양회의에도 참가한 요코야마 마사키는 식민지와 인종차별을 배경으로 핵 강대국의 핵개발이 선주민의 희생 위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회의를 통해 부각되어갔음을 회상한다. 비핵태평양회의가 피지에서 탄생하고 태평양 섬들 사이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가운데, '독립 없이는 핵문제의 해결도 없다'는 공통 인식이 확립되어갔던 것이다. 회의 명칭도 1983년 바누아투 대회부터 비핵태평양회의에서 '비핵독립태평양회의'로 바뀌었다.

비핵독립태평양운동이 전개되던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투하 40주년을 맞은 1985년 8월 6일에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라로통가 조약)이 체결·서명되었다. 체약국에 의한 핵무기의 제조·보유·타국으로부터의 취득 금지와 더불어, 영역 내 핵 폭발장치 실험 금지, 핵무기 배치 금지(단 핵 함선 및 항공기의 통과 및 기항은 각국의 주권적 판단에 맡김), 영역 내 핵폐기물 해양 투기 금지가 규정되었다. 핵폐기물 투기 금지가 육지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지만,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은 핵폐기물을 비핵의 과제로 자리매김시킨 선구적인 장이었다.

왜 핵폐기물의 해양 투기 금지가 이 조약에 담기게 되었을까. 그 뒤에는 일본의 존재가 있었다. 원전에서 나오는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시멘트로 굳혀 드럼통에 밀봉한 뒤 북마리아나제도 북단에서 약 800킬로미터 떨어진 공해상에 투기한다는 계획이 1979년 일본 원자력위원회에서 발표되었다. 인근 괌과 사이판 등에서는 이에 반

마셜제도에서는 '기후 정의'와 「気候正義」と並んで、核被害者や

島の原爆投下から40年を迎えた日に、南太平洋非核地帯条約(ラロトンガ条約)が締結署名された。1)締約国による核兵器の製造、所有、他国からの取得の禁止とともに、2)域内における核爆発装置の実験の禁止、3)核兵器配備の禁止、ただし核艦船および航空機の通過・寄港は各国の主権判断、4)域内での核廃棄物海洋投棄の禁止が定められた。核廃棄物投棄の禁止は陸地には及ばない限界もあるが、核廃棄物を非核の課題として、南太平洋非核地帯条約は先駆的に位置付けた。

核廃棄物の海洋投棄の禁止が同条約になぜ盛り込まれたのであろうか。そこには、日本の存在があった。原発から出る低レベル放射性廃棄物をセメントで固めドラム缶に密閉して、北マリアナ諸島北端から約800キロ離れた公海域に投棄する計画が、日本の原子力委員会から1979年に発表された。周辺のグアムやサイパンなどで反対を訴える署名運動やデモや集会が島ぐるみで展開された。その問題は1980年にハワイで開催された非核太平洋会議にも持ち込まれ、反対運動は太平洋各地に広がりをみせた。1985年1月中曽根首相は南太平洋4カ国歴訪の際、強い反対の声を前に、「海洋投棄計画を凍結する」と各国首脳に表明した。

交差する核問題と気候危機

「もう幸せには暮らせない。素晴らしいものがたくさんつまった島々。ビキニで暮らすことができないから、安心して眠る

대하는 서명운동과 시위, 집회가 섬 전체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이 문제는 1980년 하와이에서 열린 비핵태평양회의에서도 제기되었고, 반대운동은 태평양 각지로 확산되었다. 1985년 1월 나카소네 총리는 남태평양 4개국을 순방하던 중 강한 반대 목소리 앞에서 "해양 투기 계획을 동결하겠다"라고 각국 정상에게 표명했다.

교차하는 핵문제와 기후위기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없어. 멋진 것들이 가득 담긴 섬들. 비키니에서 살 수 없기에, 마음 편히 잠들 곳도 어딘가로 가버렸어. 커다란 절망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내 넋은 정처 없이 떠도네. 저 멀리 비키니로 향하는 해류에 이르러, 그제야 비로소 나는 평온을 찾네." 이 가사는 고향이 미국의 핵실험장이 되어버린 비키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비키니 찬가(Bikini Anthem)›의 한 소절이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우리의 생명을 실험대에 올렸다" "의도적으로 피폭당했다"라고 호소한다. "무서운 혼란은 아직도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말처럼, 핵피해는 시간이 지나며 사슬처럼 이어지고, 건강과 함께 생활·문화·마음에까지 영향이 번진다. 그러나 핵피해가 반드시 눈앞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갑상선 수술은 했다. 하지만 전부 제거한 것은 아니다. 슬픔은 마음속에 있

나란히 하여, 핵 피해자와 지역이 地域が被ってきた不公正を

場所もどこかへ行ってしまった。大きな絶望を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あてもなく私の心が漂っている。そしてかなたへとビキニに向かう海流が見られる場所で、唯一私は穏やかさを取り戻す」。これは「ビキニ讃歌」(Bikini Anthem)として、故郷を米核実験場とされたビキニの人びとの間で歌い継がれている曲の詩である。

「わたしたちの生命を実験台にした」、「意図的に被曝させられた」と訴えられる。「恐ろしい混乱は、まだわたしたちに付きまとっている」と語られるように、核被害は時を経て連鎖し、健康とともに、生活・文化・心にも影響は広が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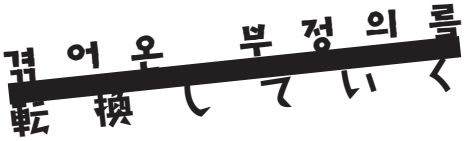
しかし核被害は必ずしも目に迫ってくるものではない。「甲状腺の手術はした。しかしすべてを取り除いたのではない。悲しみは心の中にある」と、被曝し生き抜いてきたレメヨ・アボンは訴える。くわえてトニー・デブルムは、外務大臣在職中に次の言葉を遺している。「否定し、嘘をつき、機密にする。これが核をとりまく文化だ」。核被害は、放射能・放射線が五感で察しにくいだけではなく、政治的、社会的に不可視化させられてきたのである。

マーシャル諸島では、新たな核被害に直面している。核実験場とされたエニウェトク環礁では、直径約111メートル、高さ約8メートルのコンクリート製のドームが、核実験のその後の再居住計画のなかで造られた。実験場の除染作業で集められた汚染土壌が格納されている。このドームには、米本土のネバダ州の核実験場からも220トンもの土壌が運ばれ埋められていた新事

다"라고, 피폭당하고도 살아남아온 레메요 아본은 밝힌다. 여기에 더해 토니 데브룸은 외무장관 재직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기밀로 한다. 이것이 핵을 둘러싼 문화다." 핵피해는 방사능·방사선이 오감으로 감지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치적·사회적으로도 은폐되어왔음을 보여준다.

마셜제도는 새로운 핵피해에 직면해 있다. 핵실험장이 되었던 에니웨톡 환초에는 지름 약 111미터, 높이 약 8미터의 콘크리트 돔이 핵실험 이후의 재거주 계획하에 만들어졌다. 이곳에는 실험장 오염 제거 작업으로 모은 오염 토양이 격납되어 있다. 한편 이 돔에 미국 본토 네바다주 핵실험장의 토양도 220톤이나 운반되어 매립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탐사보도를 통해 밝혀졌다.❶

나는 2003년 에니웨톡 환초에 머물며 직접 루닛 돔을 보았다. 돔 꼭대기에는 '1979년 9월'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돔 뚜껑이 봉인된 시기를 보여준다. 돔 주위에는 미국 에너지부가 설치한 간판이 남아 있다. 내 방문 후 20년 이상이 지



실도, 로サンゼルス·タイムスの調査報道のなかで判明した。❶

筆者は2003年エニウェトク環礁に滞在し、この目でルニット·ドームを見た。ドームの頂上には「1979年9月」の文字が刻まれ、ドームの蓋が封印された時を示している。ドームの周囲には、米エネルギー省が設置した看板が現存している。建設から四半世紀が経過した看板をよく見ると、マーシャル語と英語でうっすらと「近づくな、立入禁止」との警告が記されていた。コンクリートの表面にはひびが入っていた。

それから20年以上を経た現在、老朽化するルニット·ドームは、気候危機による海面上昇も重なり、浸水や破壊が憂慮されている。マーシャル諸島政府からの説明を受け、2019年5月、国連のアントニオ·グテーレス事務総長はルニット·ドームを「核の棺」と呼び、放射性物質の漏出への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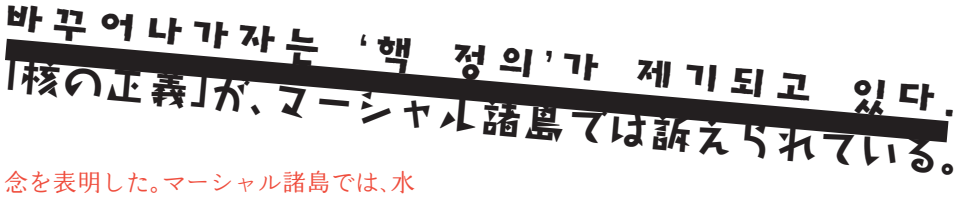
난 현재, 노
겹 치 면 서

후화되는 루닛 돔은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까지 침수와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마셜제도 정부의 설명을 듣고 2019년 5월 유엔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루닛 돔을 '핵의 관'이라 부르며 방사성물질 누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마셜제도에서는 수소폭탄 '브라보(Bravo)' 실험이 실시된 3월 1일이 국가 공휴일인 핵실험 추도기념일(Nuclear Victims Remembrance Day)로 지정되어 기념식이 열린다. 마셜제도에서는 '기후 정의'와 나란히 하여, 핵피해자와 지역이 겪어온 부정의를 바꾸어나가자는 '핵 정의'가 제기되고 있다.

핵 부정의를 전환하기 위하여 – 핵무기를 바라보는 '탈안보화'

2026년 7월로 마셜제도에서 핵실험이 시작된 지 80년이 되었다. 핵무기 문제는 무기 자체에만 주목해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핵확산은 핵무기의 확산뿐 아니라 핵피해의 확산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핵피해는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한정되지 않고 지구적 규모에 이른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 모두가 히바쿠샤'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핵피해의 무차별성에만 주목하면 마셜제도처럼 핵피해를 입어온 사람들과 지역의 존재가 비가시화된다. 나아가 피해를 초래해온 핵권력의 존재와 그 책임이 모호해진다.

핵무기를 안보 문제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 핵실험장이 되었던 마셜제도에서는 핵문제가 기후위기와도 교차하고 있다. 핵 부정의와 기후 부정의는 모두 주변화된 지역과 사람들에게 부담을 집중시켜왔다는 점에서 같다. 핵 부정의를 전환해나가기 위해서는 불균형한 세계의 구조를 바탕에 두고 핵무기를 환경·공해 문제, 나아가 인권과 탈식민지화의 과제와 연결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念を表明した。マーシャル諸島では、水爆「ブラボー」実験が実施された3月1日は、核実験追悼記念日(Nuclear Victims Remembrance Day)として国の休日に指定され、式典が開かれる。「気候正義」と並んで、核被害者や地域が被ってきた不公正を転換していく「核の正義」が、マーシャル諸島では訴えられている。

核の不正義の転換を求めて　核兵器を見つめる「脱安全保障化」

マーシャル諸島で核実験が始まってから、2026年7月で80年を迎えた。核兵器の問題は、兵器のことのみに注目していては十分に捉えることはできない。核拡散は、核兵器の拡散だけでなく、核被害の拡散としてとらえていく必要がある。核被害は、広島や長崎だけでなく、地球規模に達する。ある意味で「人類みなヒバクシャ」とも言える。しかし核被害の無差別性だけに着目していては、マーシャル諸島のような核被害を被ってきた人びとや地域の存在が不可視化される。さらに被害をもたらしてきた核権力の存在とその責任があいまいにされる。

核兵器は、安全保障問題としてのみとらえてはならない。核実験場とされたマーシャル諸島では、核問題は気候危機とも交差している。核の不正義と気候不正義は、いずれも周縁化された地域や人びとに負担を集中させてきた点で共通している。核の不正義を転換していくためには、不均衡な世界の構造を踏まえ、核兵器を環境·公害問題、さらには人権や脱植民地化の課題と結んでとらえていく必要があるのだ。

❶ How the U.S. betrayed the Marshall Islands, kindling the next nuclear disaster, *Los Angeles Times*, Nov. 10, 2019.
本論は、日本語で書いた以下の拙稿をもとに執筆したものである。/ 竹峰誠一郎『マーシャル諸島終わりなき核被害を生きる』新泉社、2015年 / 竹峰誠一郎「地球環境問題をもたらした核兵器―核被害の『無差別性』と『差別性』」戦争社会学研究会『戦争社会学研究』第7巻、みすず書林、2023年、105-122頁 / 竹峰誠一郎「オセアニアから見つめる「冷戦」―「核の海」太平洋に抗う人たち」木畑洋一・中野聡責任編集『岩波講座 世界歴史第22巻冷戦と脱植民地化Ⅰ20世紀後半』岩波書店、2023年、265-284 頁 / 竹峰誠一郎「「放射能とともに歩む」―マーシャル諸島折り重なる気候危機」『世界』986号、岩波書店、2024年10月号、163-172頁.


photo © Alvan Nee

글쓴이
장혜영

48

執筆
チャン・ヘヨン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방법

踏ん張って生き続ける方法

장혜영
1987년생. 한국의 정치인이자 활동가. 21대 국회(2020~2024)에서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낙선 이후 정의당 서울 마포 지역위원장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망원정x'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페미니스트 정치학교' '침착진 읽기 모임' 등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2026년 하인리히 뵐 재단의 의뢰로 후쿠시마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해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햇볕의 농부들: 후쿠시마와 희망›(감독 오바라 히로야스)의 한국어 번역을 맡았다.

チャン・ヘヨン
チャン・ヘヨン(1987年生まれ)。韓国の政治家・活動家。韓国第21代国会(2020~2024)で正義党所属の国会議員として企画財政委員会、気候危機特別委員会で活動した。落選後は正義党ソウル麻浦(マポ)地域委員長として活動を続ける一方、「マンウォンジョンX(望願政X)」という非営利団体を立ち上げ、「フェミニスト政治学校」「チムチャクジン読書会」などを継続的に行っている。2026年、ハインリヒ・ベル財団の依頼で、福島で営農型太陽光発電に取り組む人々の物語を描いたドキュメンタリー‹陽なたのファーマーズ フクシマと希望›(監督 小原浩靖)の韓国語版翻訳を担当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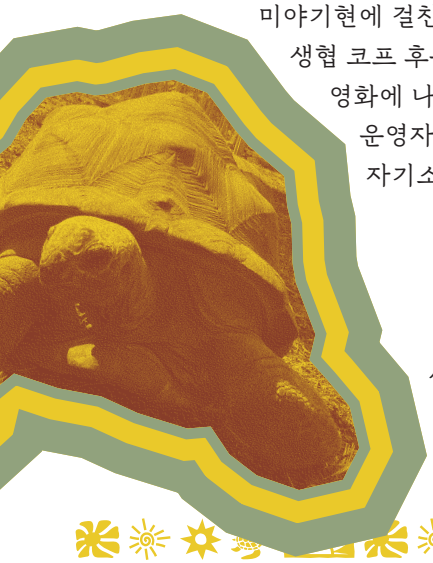
오바라 히로야스 감독의 2025년 작 장편 다큐멘터리 ‹햇볕의 농부들: 후쿠시마와 희망›은 3·11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담은 작품이다. 후쿠시마현 니혼마쓰시의 농부 곤도 케이는 다큐멘터리에서 이 가능성을 주도적으로 열어가는 인물이다. 그는 태양광 패널 밑에서 농사를 지어 전기와 식량을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혹은 '솔라 셰어링'을 "새로운 시대의 겸업 농업"이라고 단언한다. 그의 목표는 태양광과 함께 산업으로서의 농업을 회복하는 것이다.

小原浩靖監督の2025年作長編ドキュメンタリー『陽なたのファーマーズフクシマと希望』は、3.11東日本大震災と福島第一原子力発電所事故の後も、福島で生き続けていく人々の暮らしを描いた作品。福島県二本松市の農家・近藤恵(けい)は、このドキュメンタリーの中でその可能性を主体的に切り拓いていく人物だ。彼は太陽光パネルの下で農業を営み、電気と食糧を生み出す営農型太陽光発電、すなわち「ソーラーシェアリング」を「新しい時代の兼業農業」だと断言する。彼の目標は、太陽光とともに産業としての農業を再び取り戻すことだ。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영화에 나오는 발전회사 '니혼마쓰 영농 솔라'와 농업 법인 '주식회사 선샤인'의 대표이사인 곤도 케이입니다. 니혼마쓰 영농 솔라는 세 개의 회사가 각각 1000만 엔씩 출자해 함께 설립했습니다. 그중 '니혼마쓰 지역 에너지를 모두 함께 고민하는 주식회사', 약칭 고치칸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고치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institute for sustainable energy policies, ISEP),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 걸친 큰 생활협동조합인 미야기생협 코프 후쿠시마—이 세 회사가 영화에 나온 큰 발전소의 소유자이자 운영자입니다. 이 전체적인 구성을 자기소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니혼마쓰 영농 솔라가 세 개의 회사로 구성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치칸은 2018년에 세워진 니혼마쓰 지역 에너지 회사입니다. 니혼마쓰는 인구 약 5만 명의 작은 마을인데, 이곳을 재생에너지 100퍼센트의 마을로 만들기 위해 시민 다섯 명이 단 350만 엔으로 회사를 설립했죠. 시간이 흘러 영화에 나오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고치칸만으로는 자금도 노하우도 부족했어요. 사업의 핵심은 지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하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백업을 해줄 수 있는 단체가 필요했습니다. 미야기 생협은 RE100 기업은 아니지만 탈탄소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니혼마쓰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는 미야기 생협의 생각과 지진으로 인해 그만둔 농업을 부활시키고 싶다는 저의 개인적 동기가 겹쳐서 큰 발전소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의 이이다 데츠야 씨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방법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천해온 분인데, 그분의 노하우도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햇볕의 농부들: 후쿠시마와 희망>을 어떻게 보셨나요?

농업과 인간이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농업의 아름다움과 젊은이들이 좌절을 겪으며 성장해나가는 모습, 그리고 저를 포함한 경영자들의 부족한 점이 솔직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런 요소가 기계적인 패널 아래에서 새로운 농업으로 표현된 점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다른 동료들과 같이 작품을 보셨나요? 관람 후 어떤 감상을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각자 따로 보았고, 감상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각자의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실패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영화에서 (벌레가 포도나무를 먹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포도 담당인 쓰카다 씨가 무척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제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죠.

영농형 태양광, 즉 '솔라 셰어링'을 처음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역시 동일본 대지진의 충격이 가장 컸습니다. 그 전까지 에너지를 사회 문제로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직접 그 피해를 입고 나서야 비로소 에너지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현에서 유기농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후쿠시마현의 원자력발전소가 전기를 만들어 도쿄에 보내는 구조를 아는 사람이 이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매우 무관심했기 때문에, 스스로 깊이 반성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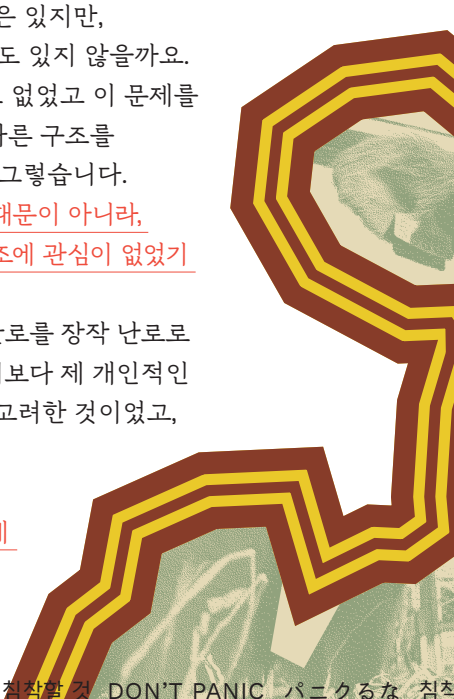
어떤 의미에서는 가해자기이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문제를 알지도 못했다는 점, 스스로 다른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곤도 씨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자' 아닌가요?

물론 피해자라는 의식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가해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앞서 말했듯 이 구조에 관심도 없었고 이 문제를 알지도 못했다는 점, 스스로 다른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후쿠시마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에너지 구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집 난로를 장작 난로로 바꿨을 때, 그건 사회 문제라기보다 제 개인적인 쾌적함이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었고, 공적인 차원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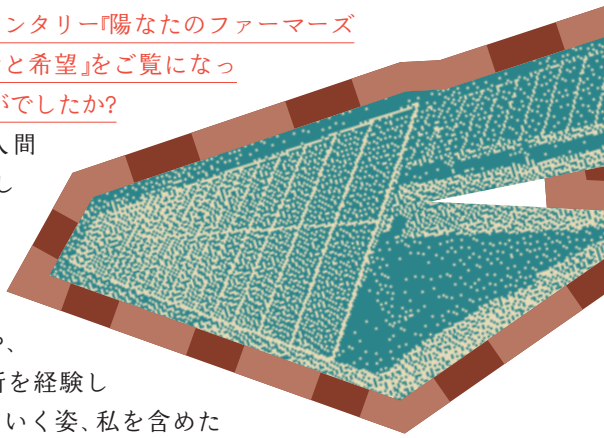
그런 문제의식이 어떻게 구체적인 솔라 셰어링 사업으로

自己紹介をお願いします。

映画に登場する発電会社「二本松営農ソーラー株式会社」と農業法人「株式会社Sunshine」の代表取締役を務める近藤恵です。「二本松営農ソーラー」は三つの会社がそれぞれ一千万円ずつ出資して共同で設立しました。そのうちの一つ、「二本松ご当地エネルギーをみんなで考える株式会社」、略称ゴチカンの代表取締役も務めています。ゴチカン、環境エネルギー政策研究所(ISEP, Institute for Sustainable Energy Policies)、福島県と宮城県にまたがる大きな生活協同組合「みやぎ生協・コープふくしま」――この三社が、映画に登場する大きな発電所の所有者であり運営者です。この全体の構成を、自己紹介とし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二本松営農ソーラー」が三つの会社で構成された理由は何でしょうか?

ゴチカンは2018年に設立された二本松のご当地エネルギー会社です。二本松は人口約5万人の小さな町ですが、そこで再生可能エネルギー100%の町を実現するために、市民5人がわずか350万円で会社を設立しました。やがて映画に登場する営農型太陽光発電プロジェクトを始めるのですが、ゴチカンだけでは資金もノウハウも足りませんでした。事業で一番大切なのは持続性ですから、私たちが進めつつも、万一の事態に備えてバックアップできる団体が必要でした。みやぎ生協はRE100企業ではありませんが、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を目標に掲げていました。二本松地域に再生可能エネルギーを増やしたいというみやぎ生協の考えと、震災でやめてしまった農業をもう一度復活させたいという私の個人的な動機が重なって、大きな発電所が実現できました。環境エネルギー政策研究所(ISEP)の飯田哲也さんは、市民が主体となって再生可能エネルギー設備を増やす方法について長年研究と実践を重ねてこられた方で、その方のノウハウもプロジェクトの実現に大きな役割を果たしました。



ドキュメンタリー『陽なたのファーマーズ フクシマと希望』をご覧になって、いかがでしたか?

農業と人間がともに成長していく姿を描いた作品だと感じました。農業の美しさや、若者たちが挫折を経験しながら成長していく姿、私を含めた経営者たちの至らない点が、率直に映し出されています。動物や植物が頻繁に登場しますが、そうした要素が機械的なパネルの下で新しい農業として表現されている点に、とても満足しています。

ドキュメンタリーに出演した他の仲間たちと一緒に作品をご覧になりましたか?鑑賞後、どんな感想を交わされたのか気になります。

それぞれ別々に観ました。感想を交わす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やはりそれぞれのプライドがありますから。ここはデリケートな問題だと思います。誰だって、自分が失敗する姿を人に見られたくはないですからね。映画でブドウ担当の塚田さんがとても大変そうに見えるかもしれませんが(映画ではブドウの木が虫に食われる事件が映っている)、実は、きちんと指導できなかった私こそが一番見たくないわけです。

ある意味では加害者でもある、といいますか。知りもしなかったこと、そして自ら別の構造をつくり出せなかったこと。その点でそう言えます。



営農型太陽光発電、つまり「ソーラーシェアリング」を始めたきっかけは何ですか?

やはり東日本大震災の衝撃が最も大きかったです。それまでエネルギーを社会問題としてまったく認識していませんでした。恥ずかしいことです。事故が起き、自分自身が直接その被害を受けて初めて、エネルギーの問題を意識し始めました。福島県で有機農業をしている人たちの中には、福島県の原子力発電所が電気をつくって東京へ送る構造をすでに知っている人もいました。私はその点に非常に無関心だったので、深く反省しました。

近藤さんは福島原発事故の「被害者」ではないのですか?

전환되었나요?

사고 이듬해인 2012년부터 경제구조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후쿠시마와 오키나와의 구조, 중앙 집중과 자본의 힘, 지방 간 격차 같은 권력 구조를 공부하면서, 이 왜곡된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기존의 구조가 아닌 새로운 구조 안에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체감상, 재생에너지도 90퍼센트 이상이 기존의 구조 안에서 개발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설립했을 당시에 세웠던 목표는 무엇이고, 얼마나 달성되었나요?

저는 솔라셰어링추진연맹이라는 전국 단위 보급 단체의 대표도 맡고 있는데요. 전국 농지의 5퍼센트에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은 0.02퍼센트정도예요. 속도와 규모가 필요합니다. 선형이 아니라 지수적인 확장이죠.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나가고 계신가요?

비즈니스에서 어려운 것은 시작이 20퍼센트이고 나머지 80퍼센트는 계속해나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도 힘들었지만 계속하는 것은 네 배 정도 더 힘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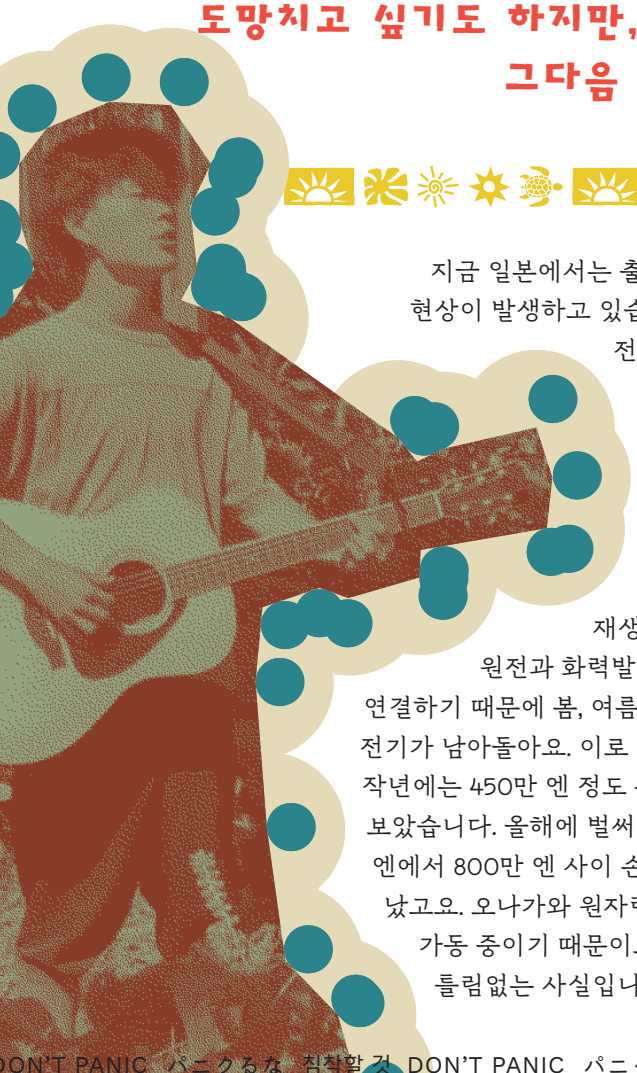
수입이 1억 3000만 엔 정도이므로 비율로 보자면 2~3퍼센트 수준이지만,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농업은 거의 안 하고 패널 운영만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추어 농업은 안 된다는 식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느낌입니다. 야구로 치자면 오타니 쇼헤이처럼 뭐든지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주민들의 반대도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을 쓰고 있으니까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둥도 패널도 커넥터도 중국산이니, 너는 일본을 배신하고 중국 편을 들고 있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금 조달입니다. 앞으로도 자금 조달이 무척 어려울 거예요.

곤도 씨는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극복하지 못했어요.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벽을 마주하고 있지만, 도망치지 않으면서요. 도망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동료를 모아야 합니다. 그다음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협상도 해야 하고요.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산에 오르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도 오르지 못하면 뒤쪽으로 돌아가서 오른다거나. 그래도 오르지 못한다면 시기를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산 밑에서 훈련하고, 2년 후에

**도망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동료를 모아야 합니다.
그다음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출력 억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력망에 재생에너지보다 원전과 화력발전을 우선 연결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에는 전기가 남아돌아요. 이로 인해 작년에는 450만 엔 정도 손해를 보았습니다. 올해에 벌써 600만 엔에서 800만 엔 사이 손해가 났고요.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연간 오른다든가.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도 있고, 영화를 보러 가주는 사람도 있고, 직접 발전소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돈을 보태주는 게 가장 큰 응원이에요. 영화에 나오는 니혼마쓰 태양광 발전에는 미야기 생협과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가 자금과 노하우를 크게 지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직형 태양광 같은 새로운 발전소는 미야기 생협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전형적인 금융산업의 논리죠. 그래서 제 개인 신용만으로 60만 엔을 하나의 구좌에 넣고 총 5000만 엔을 모았습니다. 모두 저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건 정말로 큰 힘이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곤도 씨의 추진력은 상당 부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느낀 '분함'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감정인가요?

꽤 오래 생각해봤는데, 역시 제 존재 자체에 대한 분함인 것 같습니다.

상상도 못한 답이네요.

'피해자'라는 관점에서는 그렇지요. 그것은 권력의

もちろん被害者だという意識はありますが、ある意味では加害者でもある、といいますか。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この構造に関心もなく、知りもしなかったこと、そして自ら別の構造をつくり出せなかったこと。その点でそう言えます。

福島に住んでいるからではなく、自分を取り巻くエネルギー構造に関心がなかったから、という意味ですか?

そうです。例えば家のストーブを薪ストーブに替えたとき、それは自分の快適さや経済的な面を考えてのことであって、社会的な次元ではあまり考えていませんでした。

そのようなところから、どうやって具体的なソーラーシェアリング事業へと問題意識が展開したのでしょうか?

事故の翌年、2012年から経済構造についての勉強を始めました。福島と沖縄の構造、中央集権と資本の力、地域間格差といった権力構造を学ぶうちに、この歪んだ構造を打ち破るためには、再生可能なエネルギーを従来の構造の中ではなく、新しい構造の中でつく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再生可能エネルギーも、肌感覚ではありますが90%以上が従来の構造で開発されています。しかし、そうではない方法も可能だと思っています。

会社を設立した当時に掲げた目標は何でしたか?どれくらい達成されましたか?

私はソーラーシェアリング推進連盟という全国の普及団体の代表も務めているのですが、全国の農地の5%に営農型太陽光発電を導入することが目標です。現在は0.02%ほどです。スピードと規模が必要です。線形ではなく、指数関数的な拡大が必要なんです。

会社を経営する上で最も難しい点は何で、それをどのように解決していますか?

ビジネスで難しいのは、始めることが20%で、残りの80%は続けることだ、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始めるのも大変でしたが、続けることはその4倍ほど大変です。

いま日本では出力抑制という現象が起きています。送電網に、再生可能エネルギーよりも原発や火力発電を優先して接続するため、春・夏・秋には電気が余ってしまうのです。これによって昨年は約450万円ほどの損害を被りました。今年はすでに600万~800万円の間です。女川原子力発電所が稼働しているからです。これは紛れもない事実です。年間収入が1億3,000万円ほどですから、割合で見れば2~3%程度ですが、決して小さな数字ではありません。

政府が必要以上に厳しい規制を敷いているという点もあります。農業はほとんどせず、パネルの運営だけをする業者がいるためなのですが、素人農業ではだめだ、という具合に非常に厳しく要求されている感じです。野球で言えば、大谷翔平のように何でも完璧にこな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わけです。予想外に、住民の反対もあります。中国産の製品を使っているから容認できない、というのです。支柱もパネルもコネクタも中国産だから、お前は日本を裏切って中国の肩を持っている、という調子です。しかし、これまで最もつらかったのは資金調達です。これからも資金調達は非常に難しいでしょう。



近藤さんは、こうした混乱や困難をどのように克服していますか?

克服できていません。右往左往しています。壁に直面していますが、逃げてはいません。逃げてたいのですが、逃げるわけにはいかないので、仲間を集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次に突破口を見つ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交渉も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し、実績を積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山登りに似ています。こっち側から登れなければ、裏側に回って登るとか。もし登れないなら、時期を変えるのも一つの方法です。今はとりあえず山の麓でトレーニングをするとか、また2年後に登るとか。

逃げてもいのですが、逃げるわけにはいかないので、仲間を集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の次に突破口を見つ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一緒に声を上げてくれる人もいますし、映画を観に行ってくれる人もいますし、自ら発電所をつくる人もいます。でもやはり、お金を集めることが一番の応援です。映画に出てくる二本松の太陽光発電には、みやぎ生協とISEPが資金とノウハウを大きく支援してくれました。しかし、垂直型太陽光のような新しい発電所の場合には、みやぎ生協が一緒ではなかったため、金融機関がお金を貸してくれませんでした。典型的な金融業界の論理です。それで、私個人の信用だけで、一口60万円で総額5,000万円を集めました。みんなが私にお金を貸してくれて、それは本当に大きな力になりました。

ドキュメンタリーを見ると、近藤さんの推進力の多くは、福島原発事故後に感じた「悔しさ」から来ているように見えます。この悔しさは、具体的に何に対する感情なのですか?

かなり長い間考えてきたのですが、やはり、自分という存在に対する悔しさなのだと思います。

문제입니다. 중앙과 지방, 혹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쪽과 사용하는 쪽 사이의 권력 구조에서 오는 억울함도 분명 있죠.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결국 자신이 권력자나 자본가 쪽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은 자본가와 소비자가 경계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니까 제 분함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모순적인 인간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달랐어요. 어디를 가든, 사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피해자로서의 의식이 강했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이데올로기를 타인에게 강요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내 옳음을 더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에고이즘도 하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서 후쿠시마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방사능은 흑백으로 단순히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도 처음엔 후쿠시마가 '흑'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백'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바로 이 애매한 부분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후쿠시마는 애매한 땅의 상징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도 애매한 존재죠. 희거나 검기만 한 인간은 없으니까요. 인간은 어차피 모두 검다고 하면 그건 절망뿐이지만, 모두가 하얗게 되어야 한다는 건 하나의 이데올로기죠.

결국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복수'라고 하면 누군가에 대한 복수가 되니까, 그냥 다시 시작하는 거죠. 저는 5년간 농업을 하다가 한 번 그만뒀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일본에서는 '훗코(復興, 부흥)'라고 하는데, 이는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봅니다. 지역이 전원을 공급하는 기지이면서도

바로 이 애매한 부분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의미있다고 생각해요. 후쿠시마는 애매한 땅의 상징인지도 모릅니다.

나타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도, 그러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면 자신에게 설득력이 부족하고 공신력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도 분함을 알게 됩니다. 돈을 빌리지 못할 때의 분함도 있죠.

일본의 영농형 태양광 비율은 지금 0.0몇 퍼센트에 불과해요. 어떤 의미에서 사막이죠. 그 사막에 수로를 만드는 듯한 이미지로 영농형 태양광을 구축하고 있어요. 이 수로가 완성될 때까지는 죽을 수 없다는 각오로요.

왜 후쿠시마여야 했나요?

사고 이후, 여러 사람이 연락을 해왔어요. 후쿠시마에서는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집도, 판매처도, 기술도, 자금도 모두 준비해줄테니 자기네 지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니혼마쓰에서 저를 키워주신 오우치 씨가 후쿠시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셨어요. 아직 방사성물질의 영향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니까, 농업은 어렵더라도 농업에 관련된 일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오우치 씨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후쿠시마에 돌아가 후진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구 지원금이 나온다거나 농업인이나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변화를 도모하고 싶어도 주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저도 매일 그런 마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진실을 성실하게 추구함으로써만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메시지 말고는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네요. 자신의 내면에서 무엇을 원하는 지,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든 부처든 그런 말씀을 남겼죠. 다만 자신이 옳다고 단정해버리면 그 순간 끝이기 때문에, 계속 탐구를 이어가야 한다고 봐요. 다음에 태어날 것들은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다음에 태어날 존재 역시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걸 모두가 함께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상상하면 참 재미있지 않나요?

想像もしなかった答えですね。

「被害者」という観点からすればそうでしょうね。それは権力の問題です。中央と地方、あるいはエネルギーを供給する側と使う側との間の権力構造から来る悔しさは、確かにあります。しかし深く掘り下げていくと、結局は自分自身が権力者や資本家の側に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いまは資本家と消費者が境界なくつながっています。この二つは切っても切れない関係です。だからこそ、どちらか一方に対してではなく、矛盾した人間存在そのものに対する悔しさだと言えると思います。

最初は違いました。どこへ行っても、事故の話をするたびに涙が出ることもありました。被害者としての意識が強かったのですが、自分自身を振り返ってみると、必ずしもそうとは言えないことに気づきました。自分のイデオロギーを押し付けたいという気持ちも生まれますし、自分の正しさをもっと広く知らしめたいというエゴイズムも出てきます。事業をしていると、自分の意見に賛同してくれる人にも、そうでない人にも出会いますが、そんなとき、自分に説得力が足りず、信頼が十分ではないことを思い知らされます。そこでもまた悔しさを知ります。お金を借りられないときの悔しさもあります。

日本の営農型太陽光発電の割合は、いま0.0何パーセントに過ぎません。ある意味、砂漠です。その砂漠に水路を引くようなイメージで、営農型太陽光発電を築いています。この水路が完成するまでは死ねない、という覚悟で。



なぜ「福島」で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ですか?

事故の後、いろいろな人たちから連絡が来ました。福島ではもう農業はできない、と。家も、販売先も、技術も、資金もすべて用意するから、自分の地域へ来ないかと言われました。しかしその時すでに福島には、二本松で私を育ててくださった大内さんが、懸命に努力を続けておられました。まだ放射性物質の影響が残っているかもしれないから、農業は難しくても、農業に関わる仕事ならできそうだと思いました。大内さんに恩返しをするためにも、福島に戻って後進を育て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たのです。復興支援金が出るから、といった理由ではありません。福島で頑張っている人がいなかったら、戻らなかったでしょう。

人々は今でも「では、福島は大丈夫だと言うのか」と問います。

放射能は、単純に白黒で分けら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人々は皆、最初は福島を「ブラック」だと思っていました。しかし、必ずしもそうではありません。かといって、今「ホワイト」だと言うこともできません。まさにこの曖昧なところで何かをすることに、意味があると思うのです。福島は、曖昧な土地の象徴なの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人間もまた曖昧な存在です。白いだけの人間も、黒いだけの人間もいませんから。人間はどうせみんな黒いのだと言えば、それは絶望でしかありませんが、みんなが白く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のは、一つのイデオロギーです。

結局、大切なのは自分自身を回復することだと思います。復讐」と言えば誰かへの復讐になってしまうので、ただ、やり直すということです。私は5年間農業をして一度やめて、同じ場所でもう一度始めたのです。これを日本では「復興」と言いますが、この言葉には元の状態に戻すという意味が含まれています。しかし私は、元の状態には戻さない方がいいと思っています。地域が電源を供給する基地でありながら、農業者や地域住民が主体となって主導権を握り、自ら制御できるエネルギーの仕組みを、必ずつ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ます。

まさにこの曖昧なところで何かをすることに、意味があると思うのです。
福島は、曖昧な土地の象徴なのかもしれません。

変化を望んでも、周りの状況のせいで「仕方ない」と考える人が多い時代です。そうした方々に伝えたいメッセージがあれば?

私も毎日、そういう気持ちと闘っています。でもやはり、真実をきちんと追い求めることだけが道を開くのだと思います。そういうメッセージ以外に、差し上げられる言葉はありませんね。自分の内面が望む声をきちんと聞くことが大切だと思います。キリストであれ、仏陀であれ、そうした言葉を残していますよね。ただ、自分が正しいと断定してしまえば、その瞬間に終わりですから、探求を続け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次に生まれてくるものは、いまは見えないじゃないですか。それが正確に何なのかはわかりませんが、次に生まれてくる存在を、やはり大切にすべきではないでしょうか。それをみんなで一緒に大切にする姿を想像してみると、実に面白くありませんか?

어떤 상황에든 딴짓은 필요하다. 몰입하던 것에서 눈을 돌리고 잠깐 딴짓하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문제를 직면할 용기도 생긴다. 점과 점 잇기, 메모, 십자말풀이 게임을 즐기면서 숨 쉴 틈을 만들어보자.

気落ち

どんな状況であれ、息抜きは必要だ。のめり込んでいたものから目を離し、ほんの少しよそ見をするだけで、頭はずいぶん軽くなり、難解にしか思えなかった問題に向き合う勇気も湧いてくる。点つなぎやメモ、ワードパズルに興じながら、ひと息つく余裕を持とう。

落着いて

패닉에 도움이 되는
점과 점 잇기

58

パニックに効く
点つなぎ

CONNECT THE DOTS TO COPE WITH PANIC

머리를 비우고 점을 잇다 보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참 쉽죠?
頭をからっぽにして点をつないでいくと、絵になります。かんたんでしょう?

1

시작점 찾기
開始点を見つける

숫자 '1' 을 알리는 번호를 찾습니다.
数字の「1」を示す番号を探します。

2

순서대로 선 긋기
順番に線を引く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순서대로
연필이나 펜을 이용해 점과 점을 이어줍니다.
1番から2番、2番から3番の順に、鉛筆や
ペンを使って点と点をつなぎます。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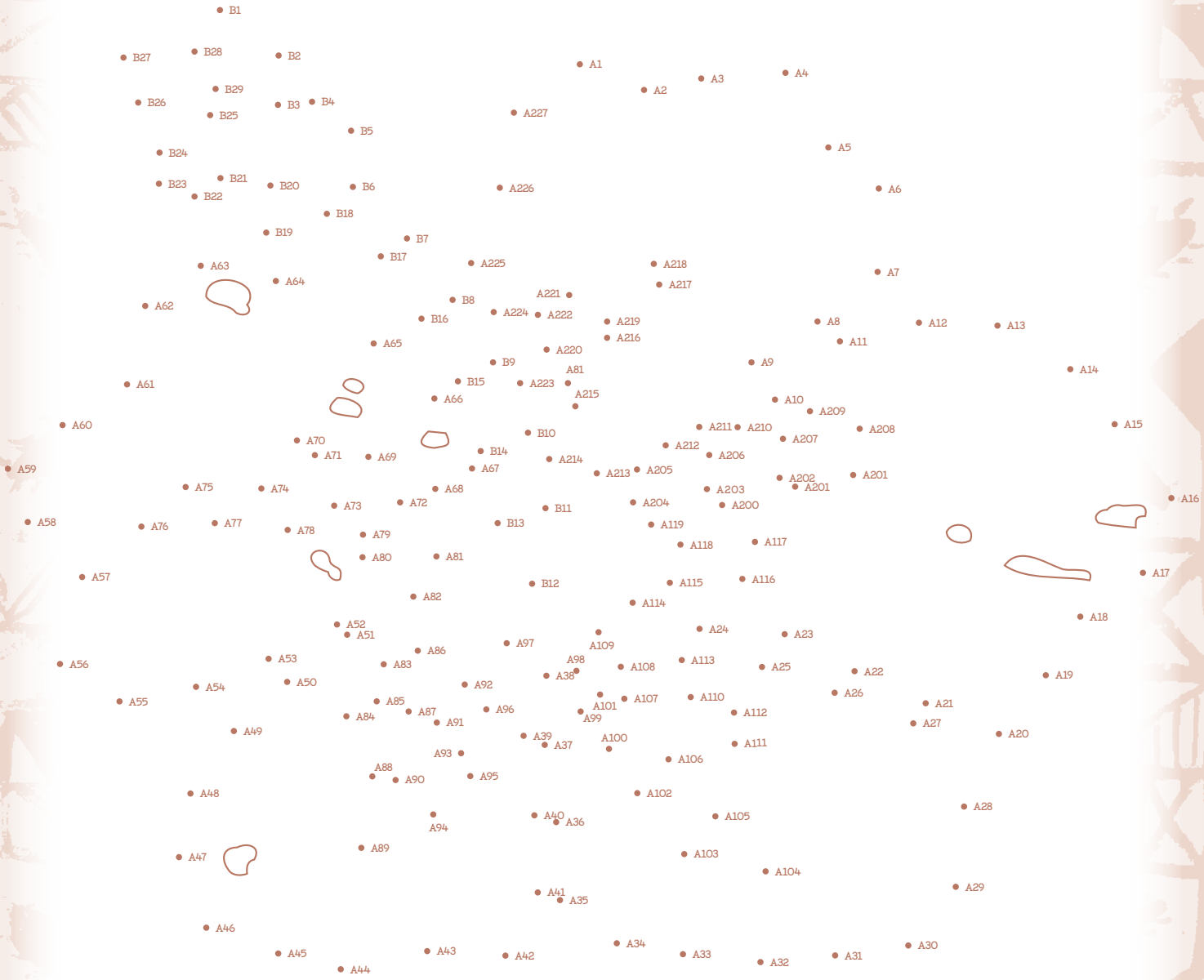
그림 완성하기
絵を完成させる

마지막 번호까지 모두 이은 뒤 빈 곳에
색칠을 하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最後の番号まで全てつないだ後、空いている
部分に色を塗れば、絵が出来上が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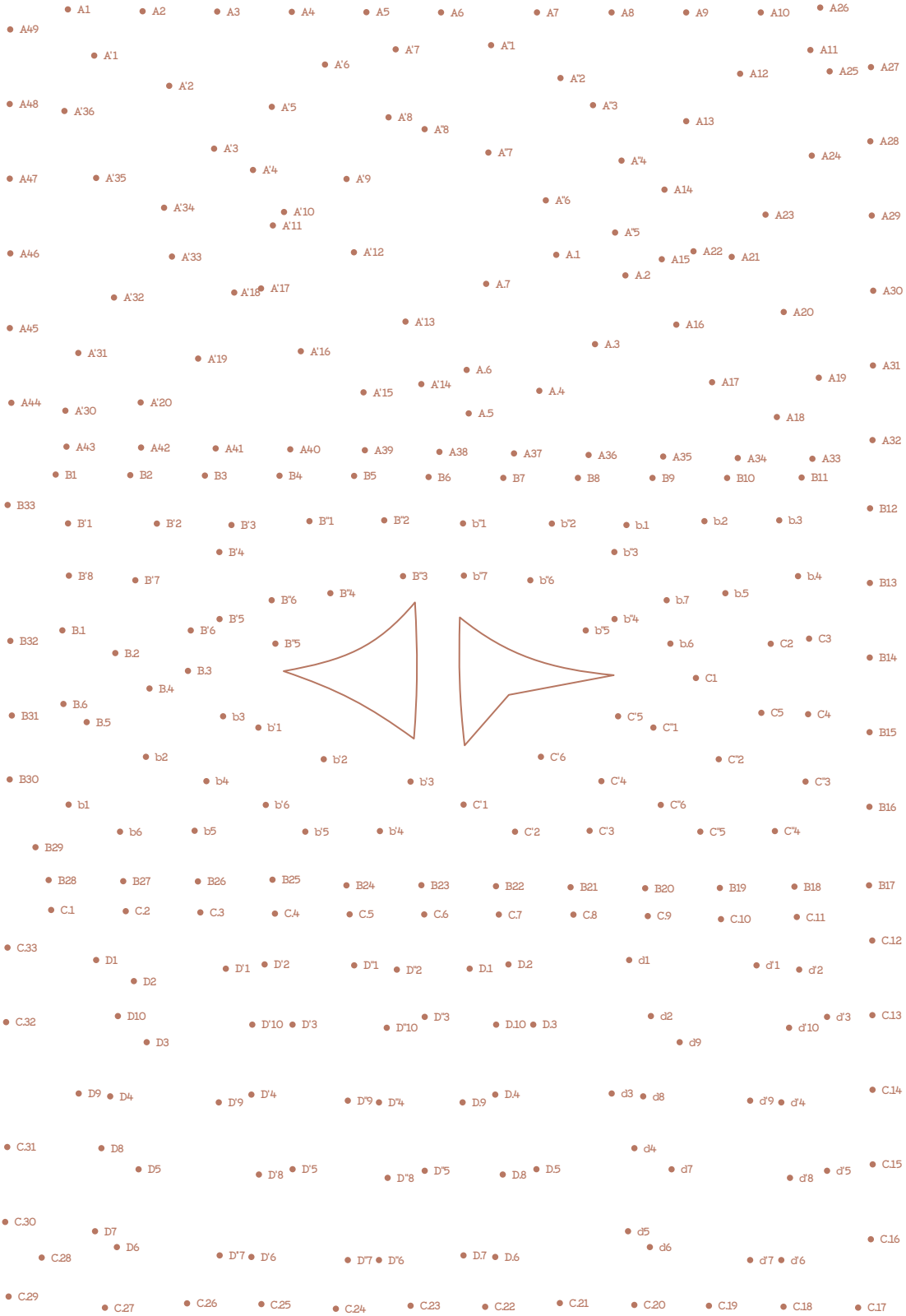
59


A67
A66
A68
A69
A65
A70
A64
A80
A63
A62
A61
A60
C1
A59
C2
C3
C4
C5
A81
A58
C7
C6
C11
C8
A55
A56
A82
A57
C10
C9
A54
A86
A1
A53
A83
A85
A52
B3
B4
B5
B2
B6
B102
B103
B89
A84
A51
B1
B7
A2
B88
B101
B81
B90
B70
B78
A50
B107
B71
B8
B104
B82
B80
A3
B106
B69
B77
B79
A5
A4
B105
B100
B87
A49
B91
B72
B83
B77
B9
A6
B68
B84
A48
B86
B76
B99
B92
B73
B85
A47
B98
B97
B74
B75
A7
B96
B67
B10
A46
B93
B95
B94
B66
B37
B65
A45
B38
B64
B11
A21
A20
A8
A42
B36
B39
B41
B40
A43
B28
B62
B63
B12
A22
A19
A9
A44
B29
B35
B42
B61
B27
B26
B55
B54
A41
B56
B53
A23
B34
B60
B13
B25
B43
B30
B49
A18
A10
B57
B48
A40
B50
B52
B14
A24
B59
B22
B33
B44
B51
B23
B31
A17
A11
B24
B47
B15
A25
A39
B32
B45
B46
B16
B21
B20
B19
A26
A38
B18
B17
A16
A12
A37
A27
A36
A28
A13
A35
A15
A34
A14
A29
A33
A30
A32
A31

69


B1
B27
B28
B2
A1
A3
A4
B29
A2
B26
B3
B4
A227
B25
B5
A5
B24
B23
B21
B20
B6
A226
A6
B22
B18
B19
B7
B17
A225
A218
A7
A63
A64
A217
A221
B8
A62
B16
A224
A222
A219
A8
A12
A13
A65
A216
A11
A220
B9
A9
A14
A61
B15
A223
A81
A66
A215
A10
A209
A60
A211
A210
A208
A15
A70
B10
A212
A207
A71
A69
B14
A206
A59
A214
A67
A213
A205
A202
A201
A75
A74
A68
A203
A201
A16
A73
A72
B11
A204
A200
A58
A76
A77
B13
A119
A78
A79
A118
A117
A80
A81
A57
B12
A115
A116
A17
A82
A114
A18
A52
A24
A51
A23
A97
A109
A86
A56
A53
A83
A98
A108
A113
A25
A22
A19
A38
A54
A50
A92
A26
A55
A85
A87
A96
A101
A107
A110
A21
A84
A91
A99
A112
A27
A49
A39
A37
A100
A20
A93
A111
A88
A106
A90
A95
A48
A102
A28
A94
A40
A36
A105
A47
A89
A103
A104
A29
A41
A35
A46
A34
A30
A45
A43
A42
A33
A32
A31
A44

61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A26
A49
A'1 A'7 A"1 A11
A'6 A"2 A12 A25 A27
A'2
A48 A'36 A'5 A"3
A'8 A'8 A13
A'3 A"7 A28
A'4 A"4 A24
A47 A'35 A'9 A14
A'34 A'10 A"6 A23 A29
A'11 A"5
A46 A'33 A'12 A.1 A15 A22 A21
A.2
A'32 A'18 A'17 A.7 A30
A20
A45 A'13 A16
A'31 A'19 A'16 A.3
A.6 A31
A'15 A'14 A.4 A17 A19
A44 A'30 A'20 A.5 A18
A32
A43 A42 A41 A40 A39 A38 A37 A36 A35 A34 A33
B1 B2 B3 B4 B5 B6 B7 B8 B9 B10 B11
B33 B12
B'1 B'2 B'3 B"1 B"2 b'1 b'2 b.1 b.2 b.3
B'4 b"3
B'8 B'7 B"3 b'7 b'6 b.4 B13
B"6 B"4 b.7 b.5
B'5 b"4
B.1 B'6 b'5
B32 B"5 b.6 C2 C3
B.2 B14
B.3
B.4 C.1
B.6
B31 B.5 b.3 C'5 C"1 C5 C4
b'1 B15
b.2 b'2 C'6 C"2
B30 b.4 b'3 C'4 C"3
b.1 b'6 C'1 C"6 B16
b.6 b.5 b'5 b'4 C'2 C'3 C"5 C"4
B29
B28 B27 B26 B25 B24 B23 B22 B21 B20 B19 B18 B17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C.11
C.33 C.12
D1 D'1 D'2 D"1 D'2 D.1 D.2 d1 d'1 d'2
D2
C.32 D10 D'10 D'3 D"10 D"3 D.10 D.3 d2 d'10 d'3 C.13
D3 d9
D9 D4 D'9 D'4 D"9 D"4 D.9 D.4 d3 d8 d'9 d'4 C.14
C.31 D8 d4
D5 D'8 D'5 D"8 D"5 D.8 D.5 d7 d'8 d'5 C.15
C.30 D7 d5
D6 d6 C.16
C.28 D'7 D'6 D"7 D"6 D.7 D.6 d'7 d'6
C.29
C.27 C.26 C.25 C.24 C.23 C.22 C.21 C.20 C.19 C.18 C.17

패닉에 도움이 되는 메모장 62 パニックに効くメモ帳

여기에 무엇이든 끼적여보세요.
긴장되거나 불안한 마음이 금세 가라앉을 거예요.

ここに、なんでもいいから書き出しましょう。緊張や不安が、すっとほぐれるはず。

작성한 독자 후기는 편집되어 다음 호에 실릴 수 있습니다.
お寄せいただいた読者の感想(レビュー)は、編集の上、次号に掲載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

読後感想

독자 후기

WORD PUZZLE

Z	A	D	M	C	Y	S	E	F	N
Q	N	S	U	E	G	D	M	V	V
R	T	G	T	S	C	A	B	P	E
A	A	Z	T	X	N	B	X	I	A
C	L	E	J	T	P	C	G	N	H
Y	Y	C	I	S	O	L	A	R	O
E	A	Z	Q	W	N	I	L	G	R
Z	D	H	R	E	V	X	I	C	M
A	U	S	T	R	A	L	I	A	U
M	W	P	J	M	Y	M	Q	B	Z

문제

1. COP31 개최지.
2.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약속. OO 100.
3. 파리협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전 지구적 이행 점검.
4. '매일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의 줄임말.
5. 튀르키예식 만두.
6. 영농형 태양광. OOOOO Sharing.
7. '환경건전성그룹'을 뜻하는 단어.
8. 미국과 이란이 통제권을 두고 대치 중인 곳. Strait of OOOOOO.
9. COP31에서 협상 의장국 역할을 맡은 국가.
10. 온실가스 감축작업프로그램.

問題

1. COP31の開催地。
2. 企業が使用する電力を100%再生可能エネルギーで賄うという約束、OO100。
3. パリ協定の実施状況を点検する「世界全体の実施状況検討」。
4. 「毎日肌身離さず持ち歩く物」の略語。
5. トルコ式の餃子。
6. 営農型太陽光発電。OOOOO sharing。
7. 「環境十全性グループ」を意味する語。
8. 米国とイランが制海権をめぐって対峙している場所。Strait of OOOOOO。
9. COP31で交渉議長国の役割を担う国。
10. 温室効果ガスの緩和作業計画。

정답 책을 뒤집어 확인하세요. 正解 本を裏返して確認してください。

Z	❶A	D	M	C	Y	S	❹E	F	N
Q	N	S	U	E	G	D	❺M	V	V
R	T	❸G	T	S	C	A	B	P	❼E
A	A	Z	S	X	N	B	X	I	A
C	L	E	J	T	P	C	G	N	❽H
Y	Y	C	I	❻S	O	L	A	R	O
E	A	Z	Q	W	N	I	L	G	R
Z	D	H	❷R	E	V	X	I	C	M
❾A	U	S	T	R	A	L	I	A	U
❿M	W	P	J	M	Y	M	Q	B	Z

1. Antalya
COP31이 개최되는 곳.
COP31の開催地。
2. 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퍼센트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약속.
企業が使用する電力を100%再生可能エネルギーで賄うという約束。
3. GST
(Global Stocktake)
파리협정의 목표 이이행 경과 및 진전 사항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점검·평가하기 위한 절차.
グローバル・ストックテイク、パリ協定の目標の実施状況および進捗を地球規模で点検・評価するための手続き。
4. EDC
(Everyday Carry)
매일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
毎日肌身離さず持ち歩く物。
5. mantı
튀르키예식 만두로, '만트'라고 읽는다.
トルコ式の餃子。
「マントゥ」と読む。
6. Solar Sharing
영농형 태양광. 농지 한 필지에서 농산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
営農型太陽光発電。
一区画の農地で農作物と電気を同時に生産する方式。
7. EIG
(Environmental Integrity Group)
환경건전성그룹.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6개 당사국으로 구성된 협상 그룹으로, 스위스, 한국, 멕시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조지아가 속해 있다.
環境十全グループ。
国連気候変動枠組条約の6つの締約国で構成される交渉グループで、スイス、韓国、メキシコ、リヒテンシュタイン、モナコ、ジョージアが属している。
8. Strait of Hormuz
호르무즈 해협. 미국과 이란이 통제권을 두고 대치 중이다.
ホルムズ海峡。米国とイランは制海権をめぐって対峙している。
9.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와 튀르키예는 COP31의 공동의장국으로, 오스트레일리아는 회원국 간 협상을 조율하는 협상 의장국 역할을 맡았다.
オーストラリアとトルコはCOP31の共同議長国であり、オーストラリアは加盟国間の交渉を取りまとめる「交渉議長国」の役割を担う。
10. MWP
(Mitigation Work Programme)
온실가스 감축작업프로그램.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마련됐다. 매년 글로벌 대화체와 투자 중심의 행사를 개최한다.
温室効果ガス削減作業計画。
2021年に英国グラスゴーで開かれたCOP26で創設された。毎年グローバル対話と投資中心のイベントを開催する。

서울환경연합
ソウル環境連合

나무와 친구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도심 속 나무와 연결되고 나무를 기록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맵,
시티트리클럽을 만나보세요.

木と友だちになったら、どんなことが起こるかな?
まちの木とつながり、木を記録する 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マップ。
シティツリークラブに出会ってみてください。

시티트리클럽
citytree.club



우정으로 나무를 지키는 사람들
友情で木を守る人たち

✽ 현재 시티트리클럽에서는 대한민국 서울의 가로수만 확인할 수 있어요. 시티트리클럽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인스타그램 @citytree.club 을 팔로해주세요!
✽ 今、シティツリークラブで見られるのは韓国・ソウルの街路樹だけです。
シティツリークラブの最新情報が気になる方は、Instagram @citytree.clubをフォローしよう！

フクシマと希望

陽なたのファーマーズ

감독·각본·편집
오바라 히로야스

監督・脚本・編集
小原浩靖

原発事故から復活し、エネルギーづくりを始めたファーマーたちの挑戦と成長のストーリー。

원전 사고를 딛고 에너지 자급을 시작한 농부들의 이야기



커뮤니티 상영회 문의
コミュニティ
上映会問い合わせ

KR JP

햇볕의 농부들:
후쿠시마와 희망

たべもの、でんき、笑顔も自給

영어·한국어 자막 제작지원 |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 사무소

英語・韓国語字幕制作支援 | ハインリヒ・ベル財団 東アジア事務所

HEINRICH BÖLL STIFTUNG
SEOUL
East Asia | Global Dialogue

COP21 edition

